

2005년 8월
博士學位請求論文

존재 위백규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위 홍 환

존재 위백규의 시문학 연구

A Study on the Poetry of Jonjae Wi Baek-Gyu

2005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위홍환

존재 위백규의 시문학 연구

지도교수 권 순 열

이 논문을 위홍환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위 홍 환

위홍환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김성기 인
위원 인하대학교 교수 김석희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수증 인
위원 전남대학교 교수 김신증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권순열 인

2005년 6월 28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사 및 논의방향	5
3. 연구 자료	9
II. 시문학 형성배경	16
1. 가계와 생애	16
2. 학풍과 교유관계	26
1) 학풍	26
2) 교유관계	37
III. 문학관	49
1. 재도론적 효용성의 추구	49
2. 자득적 문학관	55
IV. 시문학의 형식과 언어	60
1. 근체시의 지속과 질적변화	60
2. 잡영연작의 활용과 외연확대	76
3. 일상어의 포용과 작법의 변화	86
V. 시문학의 공간적 특성과 주제의식	92
1. 공간적 특성	92
2. 주제 의식	98

VI. 문학사적 의의	106
1. 소재의 다양화	106
2. 전범의 탈피와 개아의 자각	110
3. 일상생활의 재발견과 조선시의 실천	112
VII. 결론	115
참고문헌	119
Abstract	123

I. 서론

1. 문제 제기

본고¹⁾는 18세기 문단의 저변에서 일어난 변화에 유의하여 存齋 魏伯珪(1727~1798)의 시문학을 고찰하려 한다. 위백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계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어느 문학사나 시선집에서도 주목받지 못한 시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문집인 『存齋集』과 『存齋全書』에 수록된 200여 편 400여수의 적지 않은 시편은 당대 시문학의 특징을 두루 반영하고 있어 점차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사회상의 변동과 작가의 위상변화, 자기 체험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의 변화, 문학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시인 자신의 존재 조건에 부합하는 독자적이고 실험적인 시세계를 일관되게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그의 시문학은 18세기 문단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시문학 작품에서는 기존 양반들의 시세계에 대한 회의와 함께 새로운 내용적·형식적 측면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18세기 한시의 자기 갱신 과정과 새로운 모색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18세기 조선 문단에서 일어난 변화에 유의하여 존재 위백규의 시문학을 고찰하려 한다.

위백규가 살았던 18세기는 우선 다방면에서 전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지향하고 축적하여 왔던 시대이다. 신분제가 동요되는 현상과 병행하여 상품경제의 활성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²⁾ 서민문화가 약진하는 동시에 京鄕이 분기되며 京華士族이 형성되어 갔다.³⁾ 인식의 변화 또한 현저해졌다. 성리학 중심의 철학적 거대담론이 실생활 중심의 현실담론으로 이동하고, 주체적·상대적 인식

1) 본고는 김석희의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以會文化社, 1995)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 이우성,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 『鄕土 서울』 17, 1963.
고동환, 「18·19세기 서울 京江지방의 商業發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 변동」,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3) 유봉학, 「18·19세기 京鄕學界의 分岐와 京華士族」, 『國史館論叢』 22, 국사편찬위원회, 1991.
김문식, 『朝鮮後期 經學思想 研究』, 一潮閣, 1996.

이 형성되면서 민족적·개인적 정체성이 추구되고 있었던 것이 그러하다.⁴⁾ 한편으로는 정치계의 硬化가 잉여지식인을 양산하는 부정적 현상이 초래되기도 하였으니⁵⁾ 이것도 시대 변화의 표지였다.

이러한 사회 각 분야의 변동과 함께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도 커다란 변동이 있었다. 소설과 판소리, 시조와 가사 등 국문문학이 융성하여 조선 후기 문학의 내용적·형식적 측면이 다양화되고 풍부해져 가는 추세였으며, 俗樂과 俗畫가 유행하고, 書體에서도 東國眞體를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한문학 내부에서도 담당층이 확대되었으며, 紀俗詩의 출현,⁶⁾ 樂府의 제작,⁷⁾ 民謠趣向의 대두,⁸⁾ 장르의 교섭과 이행⁹⁾ 등 괄목할 만한 징표들이 출현하였다. 이중 담당층의 확대는 한문학의 판도변화를 저변에서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이전까지 양반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한문학 분야는 신분제의 동요로 인한 사대부 지식인의 계층화와 중인층의 새로운 부상, 여성작가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작가층이 넓게 확산되고 저변화되었다¹⁰⁾. 정치권력의 분화가 사대부 지식인의 계층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상한 중인층을 비롯하여, 여성작가의 등장, 심지어 李宜侁¹¹⁾처럼 下人을 자처하는 작가가 출현하게 된 것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작가층이 넓게 포진되고 저변화되었음을 알려준다.¹²⁾

4) 이우성, 「實學派와 文學」, 『국어국문학』 16호, 국어국문학회, 1957.
 宋載昭, 「茶山の 朝鮮詩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研究』 2호, 한국한문학회, 1977.
 李東歡, 「조선후기 문학사상과 문체의 변이」,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박무영, 「일상성의 대두와 새로운 조명」, 『우리 한문학사의 새로운 조명』, 집문당, 1999.
 김명호, 「실학파의 문학과 근대 리얼리즘」, 『박지원 문학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5) 李銀順, 『朝鮮後期黨爭史研究』, 一潮閣, 1988 ; 李熙煥, 『朝鮮後期黨爭研究』, 國學資料院, 1995 ; 車長燮, 『朝鮮後期閥閥研究』, 一潮閣, 1997.

6) 金明淳, 「朝鮮後期 紀俗詩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7) 沈慶昊, 「海東樂府體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8) 李東歡, 「朝鮮後期 漢詩에 있어서 民謠趣向의 擡頭」, 『韓國漢文學研究』 3·4합집, 1978.

9) 朴熙秉, 『朝鮮後期 傳의 小說의 性向 研究』, 대동문화연구원, 1993.
 진재교, 「口演傳統과 李朝後期 紋事樣式의 變貌」,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2, 보고서, 2001.

10) 林煥澤, 「개항문학과 서민문학」, 『조선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11) 이단전(1755~1790)은 중의 신분으로 사대부와 교유하며 시를 지음, 그의 시에는 울분과 기골한 기상이 서려 있어 사람들은 귀신이 하는 말 같다고 했다.

이렇듯 문학의 작가층이 다양해지고 저변화된 상황은 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나의 모범, 모두가 따라야 할 획일화된 전범에 대한 회의가 일어남으로써 17세기까지 유효했던 擬古主義의 논리가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대신, 작가들도 각자의 처지와 감수성이 상응하여 자신만의 個性과 眞情을 시의 중심에 정립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에 天機論의 파장은 시인마다의 고유성을 부각시키기에 적합한 요소를 제공하였으며,¹³⁾ 公安派를 위시한 明末淸初의 문학사조 및 중국의 신간서적들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기왕의 전범에 대한 회의를 추동하였다.¹⁴⁾ 道와 더불어 眞·實을 고민하고, 古보다는 今을, 法보다는 俗을 문예의 중심에 세우려는 자각적 인식이 대두되기도 하였다.¹⁵⁾ 요컨대 이 시기는 唐·宋風의 낮익은 시학으로는 변화된 작가의 위상과 현실, 표현 욕구, 제재의 위상과 현실, 제재의 다변화, 분출하는 내적 충동을 정연하게 수렴하기 어려웠던 때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판본과 더불어 필사본의 가치를 인식하고, 득세한 자와 불우한 자의 시세계를 골고루 주목하려는 오늘날의 연구자에게 이 시기는 그만큼 가치가 크다 하겠다. 존재 조건의 변화가 작가의식과 시적 형상의 변화로 이어졌으리라는 가정에 대해 이 시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 기대수치가 높다. 이러한 기대에 대해 적지 않은 해답을 제공하는 이가 위백규이다.

위백규는 일찍이 유명인으로 거론되던 이가 아니다. 후손들에 의해 그의 문학과 사상들이 『존재집』과 『존재전서』로 정리되어 전해왔다고 하지만, 당시 그는 입문하지 못한 채 향촌에 기거하는 지방인사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문학과 연구사에서 그는 주목받지 못했다. 그의 문학과 사상을 후손들이 정리한 『존재집』과 『존재전서』가 학계에 알려진 것도 근래의 일이다. 그러나 400여 수의 작품

12) 林煥澤, 「閩巷文學과 庶民文學」, 『朝鮮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1.

13) 張源哲, 「朝鮮後期 文學思想의 展開와 天機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崔信浩, 「韓國學詩論에 있어서 天機에 대한 고찰(1·2)」, 『韓國漢詩研究』 2·3호, 韓國漢詩學會, 1994·1995.

14) 안대회, 「명말청초 문학의 수용」,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15) 羅鍾冕, 「18세기 詩書畫論의 美學的 性格에 대하여」, 『韓國漢詩研究』 8호, 한국한시학회, 2000.

을 남긴 이 작가는 18세기 문학의 저변에 일었던 움직임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환기시킨다. 어릴 때부터 타고난 명민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계에서 이탈되어 한미하게 전락한 집안의 후손으로서 사회적 벽과 집안의 빈곤함으로 인해 입신양명의 꿈을 접고 향촌에 기거하며 躬耕讀書해야 했다. 그의 이러한 삶은 18세기 지식인 집단의 분화와 작가층의 저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타고난 명민함과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인하여 경제론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 경학·지리·역사·의학 등의 방대한 저술과 문학을 생산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라린 현실을 체험해야 했으며, 조선의 최남단 호남의 벽지에서 무명의 선비로 거의 전 생애를 보냈기 때문에 그는 방대한 지식의 세계를 나눌 만한 교유관계가 적었다. 위백규는 이러한 상황과 자신의 삶을 詩로 형상화해서 남길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소외, 그로부터 유래한 자의식의 형성, 시문저술로의 몰두 과정은 18세기 향촌 지식인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식을 반영하듯이 위백규는 성리학의 근본적인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잃지 않았으며, 경학에 대한 박학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 개혁사상을 저술하기에 이르렀다.

위백규의 시는 당대의 향촌 지식인의 苦惱와 感性, 物情 등을 풍부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과 생활상, 작가 내부의 고민과 감수성 등에 걸쳐 폭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향리에서의 현실에 밀착된 생활은 그에게 사실적이고 실용적인 인식의 태도를 심어주었고, 牧民의 뜻을 얻지 못한 불우한 자신의 포부와 景畧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隱士로서의 존재는 때때로 자신의 처지를 개탄하여 터질 듯한 심경을 수백 편의 시와 수필 속에서 토로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제약받는 환경 아래서 위백규의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경제적인 안목도 점차 확대·고조되었다. 그의 경제사상과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이 담긴 많은 저술들이 이때에 완성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바탕 위에서 보다 절실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백규의 시는 18세기 당대의 사회와 인간을 비롯하여 작가 자신의 체험과 서정을 반사시키는 방대한 스펙트럼을 가진 프리즘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위백규라는 작가에게 비상한 주의가 요청되는 가장 큰 이유는 풍성한 시편에 내재된 특별한 의미 때문이다. 그는 재야문인의 지적인 풍토가 그러하였듯이 독서와 저술을 소명으로 삼았다. 하지만 목민의 뜻을 포기한 좌절의 체험은 기성의 문학 범주 안에 그의 의식과 감수성을 온전히 안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전통을 도외시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현실적 조건과 부합할 수 있도록 시를 변화시켰던 부분이 위백규 시문학의 핵심 부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존재집』과 『존재전서』에 전하는 시편에는 기성의 문학적 관념과 형상을 이어받는 부분과 이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시세계를 모색하려는 의지가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그의 문학 속에 18세기 문학의 지속과 변화가 투영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위백규의 시문학 속에서 18세기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개인적 체험이 어떻게 시로 형상화되고, 그렇게 해서 18세기 문학의 새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詩作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성의 전범에서 벗어난 독자적 부면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탐색하는 작업은 일차적으로 한국 한문학사의 개성적인 작가를 확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위백규는 18세기 지식인의 분화와 작가층의 저변화를 통해 문학의 내용적·형식적 다양함에 획을 더한 작가로서 그의 문학 역시 18세기 조선 문단에서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유독 저술로써 생애를 지탱한 작가가 많았던 시기에, 위백규는 한국한시가 선택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방향을 체현해주고 있다. 그의 문학이 과연 성공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은 남겨두더라도, 이에 대한 탐색은 곧 18세기 한국한시의 저변과 진로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사 및 논의 방향

위백규의 시문학은 1960년대 무렵부터 학계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몇 편의 논문만이 발표되었을 뿐이다.¹⁶⁾ 그마저도 대부분의 연

16) 김석희, 「존재 위백규의 생활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구들이 주로 18세기 실학자로서의 위백규의 위상, 사회 개혁사상 소개 등에 국한된 형편이다. 위백규의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김석회로부터 시작되었다.¹⁷⁾ 김석회의 위백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 부분을 망라하고 있는데, 그는 존재의 생활시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한시의 세계 및 국문시가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 성과를 저서로 내놓았다. 또한 이후 계속적인 보론을 통하여 「농가」에 대한 본문 비평 및 「농가」 9장이 가지는 사회사적 성격을 규명해 놓고 있으며, 존재의 「輿圖詩」와 더불어 조선 후기의 지명시로까지 연구의 영역을 넓혀 놓았다. 그러나 위백규의 시문 연구는 아직은 연구의 출발점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손들이 보존해오고 있는 『존재집』과 『존재전서』에 실린 수백편의 한시에 대한 해석·정리 작업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그의 시문학에 접근하기 위하여 우선 18세기 조선문학에 행해졌던 기존의 연구경향을 참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위백규의 시문학에 대한 연구는 18세기 문단에 주어졌던 보편적인 문제의식들조차 제대로 적용되어 보지 못한 채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18세기 문학의 기존 연구 관점은 위백규 문학을 분석하는 유용한 틀로 작용할 것이다.

18세기 한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관건이 되었던 바를 살펴보면, 먼저 민족·현실·사회·일상·사물·개인·개성이 두루 연구 검토됨으로서 주제 의식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과, 作風이 다채롭게 전개되는 양상을 규명한 연구가 적지 않았다. 사실 이 시기의 한시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논의는 작가의 개성과 독창적 시세계를 설명하려는 데서 始發하여 詩論과 作法등이 아울러 규명되곤 하였다. 그 결과 격식과 규범으로부터의 탈피, 개성적 언어표현, 진실한 표현과 사실적 묘사 등이 18세기 한시의 일반적 특징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¹⁸⁾ 이론

우종숙, 「존재 위백규의 사회개선론적 교육사상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4.

김은혜, 「위백규 시 연구」, 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1996.

조문이, 「존재 위백규의 사회 개선론」,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하성래, 「18세기 호남 사회의 양상과 존재의 개혁사상(1)」, 『다산학보』 제8집, 1986.

이해준, 「존재 위백규의 사회 개선론」, 『한국사론』 제5집, 서울대 국사학과, 1979.

17) 김석회, 위의 논문.

18) 박무영, 앞의 논문 및 안대회, 앞의 책.

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성과 주체성이 핵심어로 여겨지기는 마찬가지였다. 민족과 현실을 양대축으로 삼거나, 혹은 자국의 역사와 풍속, 정서 등을 예각화한 논의들이 작가 개인의 개성 탐색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자국문학의 개성과 정체성 찾기로 연구방향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18세기 민족주의와 현실주의에 윤곽을 그려 넣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고, 조선시로서의 특색이 두루 밝혀지기도 했다.

18세기 중·후반기에 제작된 위백규의 시문학도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위백규의 시문학에 대한 탐색 역시 그간 학계에서 이루어져온 성과를 배경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시세계는 그 자신의 특수하고도 구체적인 체험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 과정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시적 형상에서 남다른 특징이 회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문학사에서 미진하게 남아 있던 부분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후손들의 노력으로 남아 있는 『존재집』과 『존재전서』는 후인의 취사선택을 배제한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현실의 변화에 부응하여 한시가 변모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 위백규가 보여준 문학적 대응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秀作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시가 한 개인의 현실적 체험과 문필생활에 맞도록 재조정되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의미이다. 그가 자신의 체험에 걸맞은 시적 형식과 표현을 갖추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자기표현으로서의 문학정신에 부합한다고 보며, 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시문학이 지닌 독자적 부면과 18세기 한시가 지닌 조선시¹⁹⁾로서의 특수성이 자연스럽게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먼저 그의 시세계에 접근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 제2장을 둔다. 여기에서는 가계와 생애에 의거하여, 그가 당면한 현실은 어떠하였으며, 그 속에서 어떤 자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할 예정이다. 또한 학풍과 교유관계에 기초하여 그의 시문학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

19) 吳壽京은 雅亭 李德懋의 詩論과 朝鮮風의 성격에서 ‘조선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생활감정을 담은 시’를 조선시라 규정했음.

을 주었던 인물을 개괄할 것이다. 사실 위백규의 교유관계나 후학은 매우 소략하고, 묘연하여 밝히기가 어렵다. 이것은 그가 호남의 벽지에서 이름 없는 선비로 거의 전생애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위백규는 그의 유일한 스승 尹鳳九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남달랐다. 따라서 주로 윤봉구를 중심으로 교유인물들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은 위백규의 시문학을 해석하는 전제로서 문학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먼저 載道的 효용성을 추구하였던 문학관을 살펴며, 다음으로는 위백규의 자득적 문학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의 문학관의 양상은 전통적인 재도적 문학관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가운데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문학관의 양상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²⁰⁾ 이렇듯 상이한 문학관은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뒤섞여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양상들이 한 개인에게서 동시에 나타나 있는가 하면, 성리학적 질서를 고수하고자 하였던 문인이나 실학정신을 보여 주었던 문인들 사이에 각기 다른 일관된 문학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당시 문학관의 혼란상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¹⁾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그 시대 문학 정신의 다양함과 문학에 대한 문인들의 폭넓은 관심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위백규의 경우도 재도론적인 입장과 자득적 문학관의 입장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문인 중 한명으로서 성리학 사상에 관한 저술과 경제적 저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위백규의 재도론적 문학관과 자득적 문학관을 살펴봄으로써 문학의 가치·위상·역할에 대한 설정과, 자신의 詩觀을 어떻게 형성시켰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어 자신의 작품 세계와 대응하여 어떤 문학적 실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4장은 위백규 시문학의 형식과 언어표현을 검토하려고 한다. 우선 4장 1,2절에서는 시적 형식에 관한 부분으로 그가 지속적으로 시 형식을 실험하며 차츰 자기표현에 적절한 독자적 형식을 일구어 나가는 과정에 유의할 것이다. 이에 상

20) 정대림, 『한국고전비평사-조선후기편』, 태학사, 2001.

21) 금동현, 『조선후기 문학이론 연구』, 보고서, 2002.

응하는 과제는 대략 두 갈래로 나누었다. 첫째, 중세 서정양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근체시 내부에서 어떤 내적인 질적 변화가 발생하였는가? 둘째, 생활시·장편시와 같이 전통적인 사대부적 문풍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이질적인 시편의 형식 실험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이다. 이는 대략 시기별로 시형식이 선택되어 가는 추세와 내적 특질에 따라 분류할 것이다. 제4장 3절에서는 먼저 일상 언어가 작품에 수용되는 양상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시 작법이 자신의 시 세계 및 18세기 한시사에서 특별히 주목될 수 있는 의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위백규 시문학의 공간적 특성과 주제의식을 다룰 것이다. 첫째 단계에서는 18세기 장흥의 방촌이라는 지역에서 그가 어떠한 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생활인으로서 또한 실학자로서 그가 당대의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로써 향리에 기거하며 躬耕讀書해야 했던 당대의 풍경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흥 방촌일대에서 쓴 시가 生活詩를 형성시켰다는 면에 주의하였다. 자신의 생활체험을 묘사할 때 그의 시는 그 자체로 紀俗的인 성향을 띠거니와 주변 향촌의 자연, 세대 등을 관찰할 때에도 대상과의 거리가 지극히 좁혀진다는 특색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부면에 대해 현실과 일상의 재발견이라는 의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아울러 이런 면모가 18세기 한시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시문학의 주제 의식에서는 그가 향촌의 儒士로서 체감했던 위기의식에 주목하였다. 특별히 위기의식에 관심을 둔 까닭은 그것이 위백규 내면에 잠재했던 중대한 국면이자 동시에 18세기 문인의 심리적 동요를 읽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 6장은 문학사의 흐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유의하여 그의 시문학이 지닌 의의를 간추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고 후속될 수 있는 과제를 제기할 것이다.

3. 연구 자료

존재 위백규의 시문으로는 한시와 가사, 잡체시, 연시조 등 200여 편 400여 수가 『존재집』과 『존재전서』에 전하고 있다. 김석회는 이 중에서 세 가지 경로를 통하여 상당한 작품의 창작연대를 확인하고 있다. 첫째는 문집의 작품명 아래 붙인 細註를 통하여 干支가 확인되는 경우를 추출하여 연대 환산을 한 것이고, 둘째는 年譜의 기사를 참고하여 연대를 측정한 것들이며, 마지막으로 작품에 밝혀진 역사적 사건의 정보를 토대로 제작의 시기를 추산한 것들이다. 김석회가 연대를 확인한 위백규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²²⁾

五言絶句

詠星(7세), 詠燈火(8세), 天冠山(9세), 立春(33세), 訪幽居(34세), 贈別任性汝(37세), 大石門(43세), 輓宋斯文(44세), 金塘船遊韻4수(65세).

五言四韻

尤春兩先生從祀聖廟韻(30세).

五言長篇

罪麥, 麥對, 青麥行(41세), 金塘詩(65세).

* 雜體詩 蒼光山歌贈別黃上舍載之(31세).

七言絶句

癸酉冬一絶上呈(27세), 辛未春謁久庵先生於玉屏溪歸途中敬次先生所贈三難字韻, 是秋自洛下歸歷謁玉屏溪留數十日以一絶上呈(25세), 茨菰, 葛根, 榆根, 黃精(30세 *이들 救荒植物 연작 넷은 『存齋集』을 토대로 算定함), 詠馬耳山(33세), 苦旱 2수(36세), 玉屏溪次晦翁韻贈尹高靈道而心協因與作別 并序, 登鷄龍山, 登全州寒碧堂, 龍湫, 龍穴, 萬德寺, 紀行文德山行(42세), 苦旱(45세), 春日吟5수(50세).

七言四韻

甲申三月感懷(38세), 金塘船遊韻(65세), 寫懷, 遺懷2수(61세). * 寫懷, 遺懷는 문집 권1의 시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存齋全書』 下冊의 然語 뒤에 편제됨.

22) 김석회, 「위백규 문학의 평전적 검토 시론」, 『고전문학과 교육』 제6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69~70면.

雜體詩

續首尾吟75수(130수/ * 一百三十首逸其半)(60세).

* 然語(48세)

余晨起詠詩(神會 중/ 七言絶句 혹은 七言古詩), 寫懷(寫懷 중/ 七言四韻 혹은 七言古詩), 遺懷(遺懷 중/ 七言四韻 혹은 七言古詩), 又(遺懷 중/ 七言絶句 혹은 七言古詩), 又(七言絶句 혹은 七言古詩), 烏(七言絶句 혹은 七言古詩), 壽宴韻(七言四韻 혹은 七言古詩). * 觀物說 一, 觀物說 二, 觀物說 三도 이 무렵의 제작으로 보임.

* 唱酬與梅君(49세) 七言四韻 혹은 七言古詩 21수, 五言四韻 혹은 五言古詩 2수.

* 연시조 農歌九章(46세 경).

* 가사 自悔歌(61세).

* 思成錄 前篇(55세), 思成錄 後篇(58세).

* 德山行(42세), 金塘島船遊記(65세).

이상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57편의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가 확인되는 작품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다룰 경우, 400여 수에 이르는 적지 않은 시 세계에 대한 가치와 정보적 손실이 막대하다. 더욱이 이러한 연보의 재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단계에 있다. 「秋齋逸興寄族兄」, 「輓浩然亭主人」, 「輓栢峴金友」, 「年年行一」, 「年年行二」 등 七言長篇의 경우와 같이 어느 한 작품도 그 명확한 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은 작품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대체적인 연대의 윤곽이 파악되는 작품들이라 할지라도 그 선후를 가려 연대순으로 정리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나머지의 많은 위백규의 한시 작품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리 작업과 분석 작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위백규의 한시 작품들은 이전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생활시 뿐만 아니라, 說理, 自然, 愛民, 自我省察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 위백규의 방대한 문학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들

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키고자 본 논문에서는 『존재집』과 『존재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한시 200여 편을 몇 가지 주제군으로 구분하여 보고 이를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주제군은 說理詩, 生活詩, 自然詩, 地名詩이다. 이중 자연시는 특히 매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 매화 연작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說理詩는 재도론적인 관점에서 성리학적 사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詩作을 선정하였다. 위백규는 주자학파로서의 기본 입장을 비교적 충실히 계승하면서 경전의 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하여 학문의 효용성을 거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위백규의 재도론적인 입장은 그의 문학 작품에도 표현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石經’, ‘松崖’, ‘竹塢’, ‘栢林’, ‘活水塘’, ‘觀魚石’, ‘混混泉’의 7수로 구성되어 있는 「樞谷崔氏書齋七絕」은 재도론적인 관점에서 돌길, 소나무, 대나무, 잣나무, 연못, 물고기의 상징적 의미를 노래하고 있다.

生活詩는 가난과 기근으로 인한 농민들의 애환과 이러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본 사회 비판적 시와, 주변에서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황식물과 보리를 소재로 하여 지은 시들을 포함하기로 한다. 이러한 생활시에 대한 시각은 현실의 부패와 모순으로 인하여 과거를 포기하고 향촌에서 직접 호미를 들고 궁경독서 하였던 위백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自然詩는 주로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자연 현상을 보고 느낀 감상을 적은 시를 말한다. 자연은 단지 그 아름다움이나 감상을 표현하는 데에만 이용되는 소재는 아니다. 자연 현상을 소재로 삼아 성리학적 사상의 주제를 다룰 수 있으며, 愛民的 사상도 노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시의 구분은 다른 이념이나 주제의 명백한 강조 없이 순수하게 卽景의 아름다움과 감상을 다루고 있는 詩作들을 위주로 하기로 한다.

梅花詩는 자연시의 일종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보았다. 그 이유는 위백규가 특히 매화를 좋아하여 매화를 소재로 한 연작 성격의 시편을 다수 남겼기 때문이다. 이 시편들은 형상성과 묘사성이 뛰어나 위백규가 고급 문학으로서의 근체시 제작역량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地名詩는 지명을 패러디하여 희작화한 작품으로 17세기 임영의 「남정부」를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지명시는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한 지명한시와 평민계층의 활동 무대였던 장터를 중심으로 한 육담성을 띤 장타령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양극 사이에 지명가사나 판소리 단가(호남가)나 민요의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포함되어 있다.

위백규의 지명한시는 「여도시」 한 편이 전해 오는데 이는 전국 팔도를 차례로 읊은 총 5언 320구에 이르는 장편시다. 「여도시」는 앞서의 지명한시에서 다소 변이된 양상을 보이면서 언어유희에 의한 희작적 성격보다는 우리나라 역사 지리에 대한 계몽적 지식의 전달 도구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학적 가치보다는 지명시가 갖는 특수성에 비추어 「여도시」를 따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기타 부분에서는 작가의 자아성찰적인 내용을 읊은 자아성찰적 시, 지인과 작별할 때 지어 주었던 離別詩, 다른 사람에게 증정한 贈詩 중에서 앞에서 구분한 주제에 포함되지 않는 시들을 분류하여 놓았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200여 편의 시 중에서 지금까지 번역 작업이 끝난 128편의 한시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8편의 시들 중에서 연대가 확인된 작품의 경우는 작가의 나이로 환산을 하여 괄호 안에 기입해 두었다.

◎ 說理時(21)

辛未春次先生所贈三難字韻 是秋一絕上呈(25세), 甲申三月感懷(38세), 尤春兩先生從祀聖廟韻(30세), 留屏溪贈申斯文有道 與申斯文俱見屈於南省故云, 雙溪寺贈僧, 次李忠武公刀字韻, 樞谷崔氏書齋七絕, 夢後懷人, 性理韻, 性因理賦本於天, 經意難知說亦難, 贈暉上人, 贈眞上人, 除夕, 謹次 丈席性情理氣同異韻, 夢見尤庵寒水齋久庵三先生眞影有感, 道峯書院次尤翁韻, 玉屏溪次晦翁韻贈尹高靈道而心協因與作別并序(42세), 和贈李大來-達運

◎ 生活詩(14)

茨菰, 葛根, 榆根, 黃精(30세 *이들 救荒植物 연작 넷은 『存齋集』을 토대로 算定함), 苦旱2수(36세), 苦旱(45세), 農歌九章(46세 경), 二月入長川洞(이월에 장천동으로

들어간다. 이 동네에 부계당이 있음), 六月, 其二, 罪麥, 麥對, 青麥行(41세), 年年行一, 年年行二.

◎ 自然詩(47)

詠星(7세), 詠燈火(8세), 天冠山(9세 *年譜에만 보임), 松串(32세), 立春(33세), 詠馬耳山(33세), 重陽(33세), 訪幽居(34세), 又(松竹侵庭蔭, 34세), 贈別任性汝(37세), 德山行(42세), 龍湫(42세), 春日吟5수(50세), 詠笠巖之遊呈函丈, 任子中家吟贈, 九月獨宿俯溪堂, 山中雨, 宿金山寺, 大石門(43세), 合掌庵, 訪山居, 宿坪村, 漫吟(讀罷禪窓有所思), 移菊送恕菴因呈一絕, 留題聽雨齋, 次九龍峯韻-冠山, 次黃芝室支提詩韻, 次黃芝室支提詩韻, 宿海仙庵, 又(瀟灑矮簷隱翠松), 閑居仲夏, 宿冠寺贈詩僧, 漫吟(夜靜山僧語), 松花臺, 屏溪寒食, 培蘭, 清明日, 尋源, 新鷺, 濯足, 晚春, 其一, 五月訪濯纓臺, 盆菊, 萬德寺, 納爽亭十二景, 詠天冠山呈久庵先生.

◎ 梅花詩(17)

梅室(16세), 梅檻 梅簷, 梅牕, 梅階, 梅庭, 梅澗, 梅泉, 梅風, 梅月, 梅雨, 梅烟, 梅霜, 梅雪, 梅禽, 梅酒, 溪上次蔡上舍季能盆梅韻.

◎ 지명시(1)

輿圖詩.

◎ 기 타

<자아성찰시(7)>

然語(48세), 가사 自梅歌(61세), 續首尾吟 75수(130수), 寫懷, 遣懷 2수(61세), 春帖, 病中偶吟

<이별시(5)>

贈別任性汝若源癸未(37세), 輓宋斯文(44세), 與柳村高斯文, 洪斯文克念(章海) 二首 說南州之勝一別懷 贈別蔡季能 白休 鎮川人

<중시(10)>

贈寬師, 次黃永叟胤錫韻寄宋一士必淵, 蒼光山歌贈別黃上舍載之(31세), 俯溪堂落成宴頌禱詩 七章, 金溪縣衙別宋斯文綱汝, 贈漢湖丈, 輓任公, 書東坡大師眞, 與柳村高斯文, 輓族弟四樂軒 伯琛.

<차운시(6)>

詠而齋重陽日次家君賞菊韻敬，溪堂秋事次紫陽春日吟，皐蘭寺東閣次金三淵韻，次朴友茅齋韻，冠山次曹斯文師學韻 潤樂，次淵水齋韻(李師稷 南山居靈光)

II. 시문학 형성배경

1. 가계와 생애

가문의 성패가 인생의 향방을 가늠할 만큼 절실했던 그 시대에 가계에 대한 이해는 위백규의 삶과 문학에 접근하는 발판이 된다. 그에 대한 후인의 평이나 당시의 평, 또는 많은 저술을 볼 때,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한 데에는 그가 살았던 곳이 호남 一隅 僻巷을 기반으로 한 데에다 거의 전 생애를 무명의 儒士로 지냈던 사실, 그리고 그의 학문을 이어간 뚜렷한 인물이 없었다는 점에 연유할 것이다. 특히 위백규가 생존했던 영·정조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각기 특색 있는 자신들의 주장과 학문으로써 명성을 얻고 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과 이렇다 할 교류를 갖지 못하였다는 점도 그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후인들의 인식을 지연시킨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장흥 위씨의 시조는 중국인 魏鏡으로, 周나라 惠王 때 晋獻公에 봉해진 畢萬의 후손으로서 關西 弘農 사람이었다. 위경의 東來說에는 신라 제27대 선덕왕(632~647)이 638년 당나라 태종(627~649)에게 道藝之士를 청했을 때 태종이 과견한 八學士(魏·房·洪·陸·奇·殷·吉·奉) 중 한 사람으로 신라국으로 건너왔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²³⁾ 위경의 후예인 위씨 일족이 장흥에 정착하게 된 시기는 고려 초였을 것으로 추측 된다. 조선 초기 기록인 『세종실록지리』, ‘장흥도호부 성씨’조에는 수령현의 성씨가 魏·朴·曹·咸으로 나와 있으므로 고려시대 장흥에서 위씨는 토착세력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고려시대 위씨 문중은 중앙관료에 진출한 인물들이 고려사 등에 상당수 등장할 정도로 명망 있는 가문이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고려사』에 소개된 30여명의 명신들 중에 포함된 魏繼廷이 있는데, 이는 장흥 위씨의 인물로서는 최

23) 위경의 동래설은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팔학사의 한 사람으로 신라국에 건너왔다는 설과 당 태종 때에 大光公主를 陪從하고 신라로 들어왔다는 설이 있다. 현재 장흥 위씨 측에서는 위경의 팔학사 설을 공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경의 신라 입국 시기도 당 태종 12년, 선덕여왕 7년인 638년이 된다(長興魏氏大宗會, 『장흥위씨종보』, 1995).

초로 門下侍中을 지냈던 문신이다.²⁴⁾ 『고려사』 열전에서 장문으로 소개하고 있을 만큼 그는 고려시대 명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로도 太保와 平章事, 尙書와 太學士 등 높은 벼슬이 끊어지지 않아 대대로 가문을 크게 빛냈다. 그러나 이러한 가문의 영화는 고려 말에 쇠운기로 접어들었다. 고려 공민왕 때 閹門判事였던 14세조 魏種이 이성계의 혁명에 반기를 들고 시중 金宗衍, 判三司 池湧奇, 趙裕 등과 함께 모의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유배를 당한 것이다.²⁵⁾ 이어 이성계가 등극하자, 위충은 자포자기하며 스스로의 일신을 돌보지 않고 출사의 뜻을 접고 집에 칩거하다가 불우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 때문에 위씨는 그로부터 3대에 걸쳐 벼슬길이 막혔다가 그의 증손 魏宗復이 한성참군을 지내면서 다시 벼슬길을 열게 된다.

이후 위중복의 두 아들 중 한명인 魏由亨의 자손들이 관산 일대에서 살게 되어 ‘관산파’와 다른 아들인 魏由貞의 자손들이 장흥읍 행원에서 살아 ‘행원파’로 부르면서 세칭 관산파와 행원파의 두 파로 나누어진다.²⁶⁾ 위백규는 이 두 파중 관산파에 속한 인물이다. 이후 廷勳(1578~1662), 廷喆(1583~1657), 廷鳴(1589~1640) 등의 위씨가 형제들이 병자호란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우는 등 가문을 크게 빛내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위씨 일문은 국난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뛰어난 문장으로 향촌 지식인의 위상을 세웠다. 하지만 조선조 후기에 접어들수록 위씨는 지방 향족으로서의 가문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조선조 후기의 변화의 특징을 보면 신분제의 동요와 계층의 분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대략 세 가지 갈래로 중인층이 성장하고, 서민계층이 부상하며, 양반층의 일부가 실세하여 몰락하는 것이다. 이후 양반 계층은 경화사족, 경대부, 향대부, 잔반, 사족계층 등으로 자기분열을 계속해 나가게 된다. 이들은 제한된 관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양반인구로 인해 경화사족을 중심으로 중앙관직이 독점화되고, 과거제도 또한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지게 된다.²⁷⁾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학문에 진취적이

24) 『고려사』, 卷九十五, 列傳 卷第八.

25) 위의 책, 卷一百四, 列傳 卷第十七.

26) 長興魏氏大宗會, 『장흥위씨종보』, 1995.

었으나 관리로 나갈 수 있을 만한 富가 없었던 위씨 일문은 점차 중앙 관직에서 소외되어 장흥 방촌의 지방사족으로서 향촌사회의 운영에 힘쓰게 된다.²⁸⁾ 그리하여 17세기 후반 위씨가는 관료진출의 측면에서 매우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다만 위덕화-위정철의 계인 魏東崙이 무과로 발신하여 군수를 지낸 일 이외에는 더 이상의 정계진출이 없었다. 그러나 위씨가에 있어서 문과 급제를 통한 得名의 의지는 매우 강하였으며, 이를 이루지 못한 회한 또한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씨 문중은 문과 출신을 향한 열망이 강하였던 만큼 당시 정치 사회현실에 관한 관심이 많았고, 현실비판을 서슴지 않기도 하였다. 그 증거로 위백규가 만년에 지은 「만언봉사」나 「정현신보」 등의 저술도 이러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 위씨 일문의 가산은 자족할 만큼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⁹⁾ 그러나 이러한 재산도 18세기 전후가 되면서 여러 형제간의 分財로 인하여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18세기 전후 방촌 위씨 가문의 주요 인물들이 30대의 단명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가문의 존립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위백규의 조부인 魏世寶(1669~1707)와 그의 사촌 형제인 魏世瑚(1656~1668)가 그런 경우였는데, 위백규의 부친인 위문덕이 네 살이었을 때에 위세보가 세상을 떠났다. 한편 위세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후손들은 凶荒과 分財로 인하여 가산이 크게 줄어들어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다행히 위문덕의 경우는 독자인지라 부친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으며, 후사가 없었던 숙부 위세린의 재산까지 상속받게 되어 오히려 재정적 형편이 나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좀더 명료히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도표는 17세기 초반부터 18세기 말엽에 이르기까지의 위백규 近族의 가계도인데 장흥 방촌 위씨 일문의 처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27) 한국학연구소,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문화의식』,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14면.

28) 『存齋集』 卷之二十一, 「위씨충의록서」.

29) 이종범, 「存齋 魏伯珪의 家統과 鄉村活動-傍村 魏氏家の 家乘과 鄉村活動 : 魏伯珪의 學問과 政論 형성의 배경」, 장흥문화원 제15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움 자료, 2003, 2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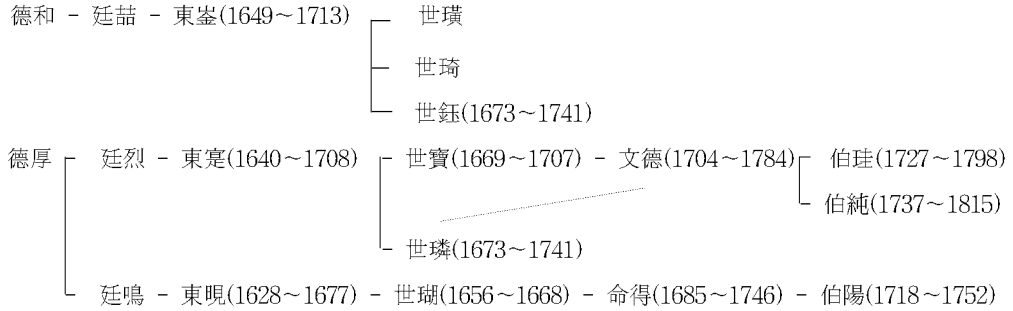


도표 1)

이러한 가문에서 출생한 위백규의 학문적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인물로는 스승인 병계 윤봉구와 위세옥을 들 수 있다. 위세옥은 위백규의 증조부인 魏東寔의 아우인 東峯의 三子로서, ‘신임옥’이 한창인 1721년, 그의 나이 34세에 한양에서 방촌으로 이사하여 왔다. 위세옥은 문장이 뛰어나고 초서와 예서에 뛰어났으며, 학문의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였다고 한다. 특히 위세옥은 위백규의 스승인 윤봉구와 어릴 때부터 절친한 사이어서 위백규를 윤봉구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다. 1751년 위백규가 윤봉구에게 東修贄禮한 것도 위세옥의 敎示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위세옥이 윤봉구에게 위백규를 소개하기 위해서 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백규는 어릴 적부터 천품이 質素하여 爲己之學에 뜻이 있었는데 이 멀고 외진 곳에 師友의 덕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찰흙 밭을 갈고 어두운 길을 가듯 하면서 먼저 깨달음을 얻고 계발된 바가 있으나 돌아보건대 斯文을 위하여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이에 負芟千里하고 문하에 들어 공부를 청하게 되었으니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³⁰⁾

이러한 인연으로 위백규는 윤봉구에게 25세 이후부터 십 수 년 동안 가르침을 받게 된다. 위세옥은 윤봉구 이외에도 대사간 閱百亨 승지 閱百昌 등과 편지를 주고받는 등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있어 왔다. 위세옥은 장흥 방촌에서 경화사족

30) 이종범. 「存齋 魏伯珪의 家統과 鄉村活動」, 『朝鮮後期 鄉村文化史와 存齋 魏伯珪』, 31면, 再引.

이나 산림속덕과 편지를 왕래하고 당대 산림에게 부탁하여 가문의 家狀을 쓰는 등 위씨 가문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위세옥의 당대 산림들과의 교류는 僻巷에 기거하는 위백규로 하여금 학문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였다. 노년에 위세옥은 천관산 서편에 집을 짓고 세 아들과 함께 인근 야산을 개간하여 농서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 약초를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생활은 극도로 궁핍하여 죽도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안 가득히 책을 사들였다고 한다. 위백규가 바닷가 궁벽진 곳에서 살면서 ‘國朝典故와 京華士族의 文體와 禮學’을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위세옥 덕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³¹⁾

위백규는 영조 3년(1727)에 전라도 장흥 桂春洞에서 진사 文德과 平海 吳氏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나 字를 子華, 號를 存齋 또는 桂巷³²⁾이라 칭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위씨 가문은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과 급제로 인한 得名의 소망은 꾸준히 가지고 있었다. 모친과 숙부·숙모의 헌신 덕택에 위백규의 부친인 위문덕은 1740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유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뒤에는 위세보의 再婚 부인인 백씨와 위세린의 부인 정씨가 紡績으로 가계를 보충하는 등 가족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위백규의 경우도 어릴 적부터 보인 명민함으로 인하여 42세 이후 스스로 과거를 포기하고 몸소 밭갈이를 하기 전까지는 과거 준비를 위하여 가족의 후원을 받았다. 그러나 위씨 가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백규는 師門을 정한 뒤에도 스승이 기거하는 덕산에 계속하여 머무르지 못하고 덕산과 장천재를 오가며 공부를 계속하였으며, 어떤 때에는 강습을 계속할 수 없는 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린 시절 위백규는 스스로 경서를 공부하고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기 위하여 ‘不善非人不孝非人子’라는 글을 써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를 즐겨하였으며, 공부에 있어서도 경서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위씨 가문

31) 魏文德, 『詠而齋遺稿』, 卷之四, 魏氏家狀總序, 海曲之得免昧昧實多賴.

32) 묘지명에 “公嘗居桂巷山中 學者稱桂巷先生.”이라 하였고, 自號하여 桂巷耘民, 桂巷逸民, 桂巷居士라고 하였다.

자제들의 교육에 대하여 격려하였으며, 자제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손하며 문학에 힘쓰도록 격려하고, 예절의 공부와 각 재질에 따른 공부를 권장하였다. 이러한 위백규의 명민함과 성실한 태도, 그리고 가문을 생각하는 마음은 훗날 위씨 가문과 향촌의 지도자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어린 시절 스스로의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10세에 天文·地理·筮·律曆·醫相·道佛·兵韜·算數 등의 서적들을 편람하는 열성을 보였고,³³⁾ 부친으로부터 勿事治經의 命이 있던 14세 이후는 이러한 탐구열이 더욱 고조되어, 諸家書뿐만 아니라 百工技藝와 有體有用之學에도 目擊心解에 정진, 그의 주밀한 면모를 보여주었다.³⁴⁾ 하지만 이는 초보적인 해독의 단계에 그친 것이었으며, 위백규는 더 심오한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위백규는 한 가지 문예로 이름이 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으며,³⁵⁾ 제자백가들의 글을 널리 알고자 하였다. 25세가 되던 해 윤봉구를 스승으로 정한 후 위백규의 학문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게 되는데, 주로 성리학에 매진하며 과거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정진하게 된다. 이 기간 중에 初試와 覆試 등의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향촌의 향민 교육에도 힘썼다. 마을의 8세 이상의 자제들을 모이게 하여 글을 읽게 하였으며, 각자의 자질에 맞도록 구구법이나 六甲, 世系부터 『소학』, 『맹자』, 『대학』까지 가르쳤다. 또한 위백규는 32세에 「환영지」를 기술하는 등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보였으며, 민생 현실을 다루는 시를 짓는 등 현실에 대한 의식도 드러내었다.

그러나 스승인 윤봉구가 별세한 후 부정과 부패로 물든 과거를 스스로 포기하고 방촌에 내려가 직접 밭을 갈며 글 읽기를 하는 생활로 돌아갔다. 이 당시 제작한 보리연작 등의 생활시에서는 향촌의 생생한 생활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궁핍한 민생의 현실을 묘사하고 이를 도외시하는 위정자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위백규는 직접 경작을 하면서도 향촌 교육에 힘썼으며, 社講會, 家中四時會 등 가문자제들의 모임을 주도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성리학적

33) 『存齋全書』上, 卷之十八, 「年譜」, 552면.

34) 위의 책, 같은 곳.

35) 위의 책, 같은 곳. 尤欲博涉諸家 耻以一藝成名.

인 규범에 입각하여 가문을 규합하고 질서를 세우려는 목적에서 기획된 활동으로, 그의 제도론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중년의 위백규는 자신이 처한 궁벽한 생활과 비판적인 사회현실의 인식, 그리고 유일한 학문적인 통로였던 스승 윤봉구의 죽음으로 인한 외부세계와의 단절 등으로 울분과 우울증을 가지게 된다. 年譜에 따르면,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오로지 일찍부터 품은 뜻이 어긋나서 그 후회가 가슴 속에 쌓였고, 점점 울적한 心火가 생기게 되었으며 마침내 精血이 날로 소모되어서 정신과 기력이 아득하고 흐려졌다.”³⁶⁾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울분과 울화는 오히려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47세에 지은 자아성찰적 성격의 「然語」(48세), 가사인 「自悔歌」(61세), 「續首尾吟」75수(130수), 「寫懷」, 「遣懷」(61세) 등의 문학작품들에서 위백규는 자신의 우울한 내면을 솔직하게 털어내고 있으며, 自歎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40대에 경험한 실제적인 농촌 생활은 그의 경제적 안목을 점차 심화·확대시키게 된다. 이전까지의 위백규의 時弊思想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향촌 사족 입장에서의 사회비판 사상이었으며, 이는 당대의 향촌 사족이라면 누구나 읊을 수 있는 일반론적인 것일 수 있다. 이는 당시 성리학의 약점과 폐단을 보강하고, 사회 체제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폐의 현실적 연구와 체계적인 사회 정책을 제시하면서 하나의 신랄한 시대정신으로서의 추세를 보인 실학 학풍의 대두와 일맥상통하는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40대 이후 형성된 시폐 사상은 직접 농사를 짓고 밭을 가는 농민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진실성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위백규의 경제 사상이 성리학의 실천사항을 단지 경제치용, 이용 후생, 실사구시 등의 측면으로 확충한 일종의 성리학적 실천 사상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³⁷⁾

위백규는 노년에 들어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한 저술 활동을 전개·완성함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향촌과 가문의 어른으로서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 데에 힘쓰게 된다. 이때 위백규는 이전에 조금씩 써두었던 각종 저술들을

36) 위의 책, 같은 곳, 554면.

37) 정대림, 『한국고전비평사』, 태학사, 2001, 124면.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당시 저술, 조판한 책으로는 「思成錄」, 「去病書」, 「裊瀛誌」, 「正絃新譜」, 「四書筍疑」, 「格物說」, 「萬言封事」 등이 있다.

이 당시 위백규의 저술 및 문학작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그 완성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물론 이 큰 두 축을 나누는 바탕에는 재도론적인 입장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재도론적인 입장은 그가 향촌사회에서 經書의 교육과 유교적인 규율을 전파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점이나, 「의례문답」, 「대학차의」, 「고금」, 「사서차의」 등에서 나타난 그의 성리학 사상의 깊이 등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다.

첫 번째 축은 문학작품의 언어나 주제, 그리고 형식 등이 正格의 틀을 넘어서서 점차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아 갔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그의 詩作들이 전통적인 근체시의 전통을 따르고 이들의 소재나 주제를 많이 채택한 반면, 장년과 노년의 위백규의 문학작품은 점차 질박한 일상생활의 언어와 소재를 사용하여 진실성과 신선함을 주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때의 위백규의 시는 더 이상 과거를 위한 형식상의 문예, 또는 학문의 과정상에 있는 문학이 아니라 자기성찰과 자기 경험에서 기인하고 학문에 있어서도 스스로 깨달은 바를 승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조선조 문학 전반에 걸친 비판과 반성의 문학 정신이 강하게 일면서 성리학의 사변적인 구속에서 탈피하여 점차 현실세계로 눈을 돌리며, 현실의 여러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문학 경향과 부합하는 일면으로 볼 수 있다.³⁸⁾ 또한 이는 더 나아가 18세기 조선시 형성의 구현 양상인 소재의 확장과 일상화, 토속적 정감의 표출과 民歌志向, 낮선 형식을 통한 新奇의 획득 등의 특징과 연결된다.³⁹⁾

또 다른 큰 축은 「봉사」(50세 경), 「만언봉사」(60세 경), 「정현신보」(65세 경) 등으로 대표되는 正論性 저술들로서 이는 위백규의 經世論的인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 노년에 완성된 이 저술들은 위백규가 30대 이후부터 초안을 잡아 왔던 것들로서 위백규의 시폐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위백규가 70세 되던 해에 지방관을 위하여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分賑의 방책과 규제와 구휼의 방책을

38) 이정선, 『조선후기 조선풍 한시 연구』, 한양대출판부, 2002, 24면.

39)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 1999, 72면.

조목별로 마련하여 집필하여 주었는데, 병진년(1796년)에 이 초안이 문집과 함께 규장각으로 들어갔다. 이는 선생의 저술들이 중앙정부로까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1796년 정월 초 6일 선생의 문집을 본가에서 서울로 올려 보낸 후 같은 달 25일 위백규는 정조 임금으로부터 繕工監副奉事(정 9품)직을 제수받게 되나, 병환으로 인하여 즉시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고 같은 해 3월초 입궐하여 謝恩肅拜하고 「만언봉사」 상소를 올리게 된다. 이에 대해 당시 승지 윤숙과 헌남 한홍유는 정조의 求語敎에 상소하여 이르기를, “근래의 하늘 재앙은 관작의 남월에서 말미암은 것인 바, 요즘 남쪽 선비로서 白徒之人인 자를 써서 곧바로 民社의 직임에 제수한 것이 그 한 예입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위백규가 「만언봉사」에 시골구석에서 쓰는 말들을 마구 써서 임금의 귀를 더럽힌 것이 무엄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의 유생들은 위백규의 「만언봉사」가 자기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여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捲堂을 벌이기도 하였다.⁴⁰⁾ 이렇듯 「만언봉사」는 중앙 관리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을 만큼 위정자들과 사회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시폐 사상이 담겨 있으며, 향촌사회의 자율성 모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명시되어 있다.

70세의 노구를 이끌고 옥과 현감으로 到任한 위백규는 즉시 鄉約을 設行하여 勸學과 講武에 힘쓰는 한편 民力을 枯渴케 하는 각종 폐단을 시정하는 등 ‘損私益公 瘠己肥民’의 정신으로 평소 품고 있었던 목민의 경륜을 실행하였다. 그리하여 불과 居官數月에 邑民의 칭송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71세 되던 해 봄에 風痺를 앓고서 동년 6월 고과에서 下等을 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정조는 이에 대하여 “위백규의 치적은 병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그 考題를 보면 마땅히 포상하여야 할 일이지 貶毀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라고 하고 “이는 오로지 ‘軟地插木’과 같다 하여 잘못을 찾을 이유가 없다.”⁴¹⁾고 하였다. 이에 道臣은 놀라서 다시 조사하여 좋은 점수를 주고 위백규의 낮은 성적을 없애버리고 경직의 빈자리를 보

40) 『存在全書』 下, 575면, 부록 승소사실 중의 권당시말 기사. 만언봉사의 문체 및 언어의 표현은 그 자신이 사직소에서 해명하고 있듯이 임금에게 올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도 못한 채로, 마음에 서리는 꾸밈을 시속의 말로 직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1) 『存齋全書』 上, 卷之十八, 「年譜」, 557면.

아 복직시켜 調用토록 하였다. 그러나 위백규는 更進할 뜻이 없었으므로 捲堂物議⁴²⁾와 久病을 이유로 사직을 올렸으나, 정조는 다시 慶基殿令(중 5품)을 改授하는 두터운 신임을 표하였다. 그러나 위백규는 이 역시 병환이 깊어져 응할 수 없었으며, 72세가 되던 다음해 11월(1798, 정조 22년)에 별세하였다.

42) 위의 책, 上, 卷之三, 「만언봉사」, 77면. 위백규는 각급 학교 유생들의 생애를 혹평하였는데, 태 학생들에 대하여도, “場室舊染本無實學 寄廩旅遊 亦出赴炎 終歲不讀一卷書 終日不談一義理 羣居泄泄 徒費料食.”이라 하고 결론지어 “今之所謂士者 反爲病國之痰癘 殄俗之痰火.”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생들은 捲堂을 일으켰었다.(병진년 4월).

2. 학풍과 교유 관계

1) 학풍

존재의 사상은 먼저 성리학적 기반의 載道論의 경향이 강함을 들 수 있다.

군왕에게 “堯舜으로서 聖志의 근본을 삼고 孔孟을 스승으로 삼아 聖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위백규는 경전에서 자기의 궁극적인 학문의 내용을 찾으려는 재도론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경전의 註解에 대하여 “先儒들의 주해는 爛熳하여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서 비록 名士라도 그 위에 또 다시 別義를 더할 수 없다. 만약 別의를 杜撰하게 된다면 비단 쓸모없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인심을 또한 해칠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인의 學이란 堯舜으로부터 周孔에 전해진 경전에 있는 것”⁴³⁾이라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朱子를 포함하는 그 이전 경학의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위백규는 당대의 양반들이 그러하였듯이 다양한 사상의 섭렵을 위해 유가 경전은 물론 제자백가서도 두루 열람하였다. 그러면서도 다독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곳에 함축된 의리를 밝게 깨달아서 독서가 나름대로 그것을 소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즉, 비록 성현의 경전을 읽더라도 ‘窮理盡性’하여 본지를 힘써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 태도는 위백규 자신도 자부하였던 것⁴⁴⁾으로 글을 글자로서 읽는다면 끝내 그 묘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니, 온 정열과 정신을 집중시켜 독자의 심신을 책과 一物이 되도록 하여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구를 만들면서까지 억지로 의미를 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방법상 쉬운 것, 기본적인 것을 읽어 體認의 단계⁴⁵⁾를 거친 뒤 전문적인 글을 읽을 것도 권하였다.

이러한 讀書論은 조선중기 사림 도학파들의 ‘도학주의형 독서관’과 상통한다.⁴⁶⁾

43) 『存齋全書』上, 卷之三, 「萬言封事」 72면. 立聖志明聖學條; 其學(=聖人之學)非藻翰詞章之謂也 堯舜以下傳至周孔 而載之經典者 是也.

44) 『存齋全書』上, 卷之六, 「與李大來論讀書」, 158~160면 참조.

45) 『存齋全書』上, 卷之七, 「人說序」, 173면.

이 독서형은 학문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도에 뜻을 두고, 인격을 수양할 때는 성인에 뜻을 두는 것(爲學以道爲志, 爲人以聖爲志)을 목표로 하는 주자의 독서론을 따르고 있다.

年譜에 의하면 존재는 어려서부터 雜技나 流俗을 꺼려 멀리하고, 오로지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아 현인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항상 사소한 언행이라도 조심하고 혹, 과실이 있으면 마음 깊이 자책·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유년 시절부터 하루하루의 失言·誤事를 기록하고 반성하는 습관을 익혀, 장년이 된 40세 이후에도 언동에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항상 마음으로 반성하는 ‘朝過晝悔 晝過宵嘆’의 태도를 결코 잃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책을 읽을 때 성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무엇보다도 독서를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자의 다음과 같은 학문적 태도와도 일치한다.

독서를 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이 체험하는 것이 반드시 요청된다. 독서를 할 때 단지 문자만 보아서는 안 되고, 또 쓸데없이 조장해서도 안 된다. 학자는 마땅히 성현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날날이 체찰해야 한다.⁴⁷⁾

또한 『존재전서』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위백규가 독서의 순서를 쉽고 기본적인 것부터 설정한 것은 朱子が 제시한 독서 순서와 일치한다. 주자는 책을 읽을 때 먼저 쉽고 용이한 것을 읽고, 나중에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하며, 자기의 지적 능력과 이해력의 정도에 맞추어 難易의 서열을 고려해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예를 들어 四書의 독서 순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먼저 대학을 읽어 그 규모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논어를 읽어 그 근본을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는 맹자를 읽어 그 發越한 뜻을 살피고, 그 다음으로 증용을 읽어 고인의 미묘한 곳을 탐구해야 한다. 대학 한 편은 등급과 차례가 있고, 모두 한 곳에서

46) 金泳은 그의 연구에서 조선전기 관료사장파들의 독서론을 ‘입신양명형의 독서관’, 조선중기 사림 도학파들의 독서론을 ‘도학주의형의 독서관’,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독서론을 ‘문제해결형의 독서관’으로 구분한 바 있다(金泳,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집문당, 1993, 164면).

47) 『朱子語類』, 卷十一, 讀書須要切己體驗 不可只作文字看 又不可助長 學者 當以聖賢之言 反求諸身 一一體察.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지어졌다. 그러므로 마땅히 먼저 보아야 하고, 논어는 각실하나 단 언어가 흩어져 보이므로 먼저 보기가 역시 어렵다. 맹자에는 인심을 감발하고 흥을 돋우는 곳이 있다. 중용은 역시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 책을 본 이후에 바야흐로 읽어야 함이 마땅하다.⁴⁸⁾

이는 위백규가 독서의 방식으로 내세우며, 향촌의 교육을 담당할 때에도 피교육자의 능력에 맞는 과정을 교육함으로써 이를 실천하였던 증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백규의 학문적·실천적 관심이 성리학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백규의 경학과 성리설이 다듬어지는 데는 무엇보다 스승 윤봉구의 영향이 지대하였다. 위백규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유교의 경전을 두루 독서하였고, 윤봉구를 만난 뒤로는 의심스러운 경전의 문구를 질문하면서 경학의 연구에 한층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한 결과로 경학적 저술서인 「의례문답」, 「대학차의」, 「고금」 등이 완성되고 四書에 대한 저술로서 「讀書筭疑」를 남기게 된다. 이처럼 스승의 지극한 배려 속에서 그의 학문은 틀이 잡히고, 폭이 넓어지면서 학문적인 지향이나 관심 영역도 결정이 된다. 이처럼 존재는 易과 禮에 致力하여 주자로부터 東儒禮說까지 정통하였으며, 윤봉구와의 질의문답 내용도 대개 경서와 의례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이 밖에도 위백규의 학문 영역은 천문·지리·역사·정치·경제·의학 등 실로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근간은 바로 ‘경제적 사상’으로 연결된다 하겠다.

이는 존재의 현실인식적 사고에 기반한 것으로, 응색한 성리학적 경학 범주에서 벗어나 학문의 영역을 개방함으로써, 현실적인 제반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 나가기 위한 존재의 실천철학의 모습이며 경제제민의 성격이 강한 실천적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예를 들어 芝峰 李睟光의 『芝峰類說』· 磻溪 柳馨遠의 『磻溪隨錄』· 星湖 李瀼의 『星湖

48) 『朱子語類』, 卷十四, 某要人先讀大學 以定其規模 次讀論語 以立其根本 次讀孟子 以察其發越 次讀中庸 以求古人之微妙處, 大學一篇 有等級次第 總作一處易曉 宜先看 論語却實 但言語散見 初看亦難 孟子有感激興發人心處 中庸亦難讀 看三書後 方宜讀之.

儻說』·五洲 李圭景의 『五州衍文長箋散稿』 등이 모두 백과전서적 저술로 博學의 방법을 구사한 점에서 일치하며,⁴⁹⁾ 楚亭 朴齊家の 『北學議』, 燕巖 朴趾源의 『熱河日記』, 靑莊館 李德懋의 『入燕記』, 茶山 丁若鏞의 一表二書を 비롯한 四書六經의 註解와 惠岡 崔漢騎의 『推測錄』 등의 대부분 실학자들의 저서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쓰인 것이다.⁵⁰⁾

이와 같이 위백규의 ‘박학적 학풍’의 모습은 조선후기 주요 실학자의 공통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역시 경제사상의 맥에 연결돼 있으며, 특히 존재의 「政絃新譜」, 「萬言封事」에 이러한 경제사상이 집약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백규를 비롯, 당시의 유행이라 할 만큼 저변에 확산된 이러한 박학적 학풍의 등장은, 지나치게 관념화된 성리학적 학문 분위기에 대한 반기로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원시유학(孔孟學)에 대한 ‘回歸的 慾求’의 발로에서 출발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원시 유학에로의 복고사상’의 의미란 학문적 성향으로서의 겉모습에 충실한 복고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부정의 한 수단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제기된 현실적인 문제의 타개가 그들의 목표인 것으로,⁵¹⁾ 현실에 대한 인식의 기반에서 출발한 실용적이며, 현실비판적 경향이 다.

이러한 원시유학으로의 회귀 열망은 비단 관념화된 성리학 자체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유교적 이상과는 다른 당시의 사회 현실에 의해서도 발현되었다.⁵²⁾ 위백규는 被治者로서 관원들의 횡포와 부패를 목격하여 지적하고, 당시의 弊困을 국가기강의 해이와 문란에서 찾고 있으며, 기존의 질서를 회복, 재확립함으로써 종묘사직의 번영과 민생안정의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⁵³⁾ 특

49) 금동현, 『조선후기 문학기론 연구』, 보고서, 2002, 64면.

50) 尹絲淳, 『韓國儒學論究』, 玄岩社, 1980, 168~187면, 285~310면. 여기에서 윤사순 교수는 일반 실학자들의 학문 정신을 크게 3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째, 博學의 精神 둘째, 原始儒學의 實際性 追求 精神 셋째, 訓詁學的인 實證 精神 등이 그것이다.

51) 한우근,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1974, 357면.

52) 이우성, 『실학연구서설』, 『실학연구입문』, 일조각, 1973 참조.

53) 『存齋全書』 上, 卷之三, 「萬言封事」, 77~78면(律貪贓禁奢侈 貪吏國之蠹也 蠹蕃則木死 貪盛則國亡 貪吏上以竊國 下以剝民 剝民之害 甚於竊國 竊國則國猶依民以生 剝民不已則民亡 民亡則國雖欲獨存 誰與爲存).

히 그가 평소에 “모든 성리학자들은 비록 재주가 있으나 우매하여 문장의 妙를 얻지 못하며, 문장의 妙를 깨달으면 또한 즐거움이 있어서 부귀와 貧賤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⁵⁴⁾고 하여 성리학자들의 학문적 분위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보면, 그의 경세치용 사상은 학풍과 관련하여 일반 실학자들의 공통 현상으로 원시유학 정신의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위백규의 저술에서는 且耘且讀하면서 儒士로서의 생활 속에서 얻어진 경험 철학과 깊고 박학한 학문을 바탕으로 하여 원시유학적인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런 주석 방법은 읽는 이로 하여금 쉽고 기본적인 것부터 體認하여 전문적인 의리를 궁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施無不周하였⁵⁵⁾는 것도 그의 이러한 학문 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위백규의 학문적 세계는 전통 유가의 덕치 관념을 기본으로 하여 경세사상 즉, 현실대응적인 비판적 안목으로 확장하여 나가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栗谷 李珥의 ‘소론’을 크게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⁶⁾ 현실인식의 테두리 역시 이이와 상대하여 그 경중이 논의되어지며, 국방에 관한 커다란 관심이나 개혁내용 방안까지도 유사한 면이 찾아진다. 율곡과는 거의 2세기라는 시차가 있는 존재였으면서도 이렇게 회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재음미하려고 한 것은, 극에 달한 당시의 정치적 기강 문란과 대외적 위기의식을 피부로 느끼며, 이를 타개하려는 실천적 현실인식이 크게 작용한 연유로 파악된다.

이러한 그의 실천적 의지는 정현신보와 만언봉사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데, 향촌의 자율적 개선 방안과 사회 전반에 대한 시폐의 언급이 그 중 하나이다. 이는 율곡의 「성학집요」와 「만언봉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존재의 개혁안의 타당한 근거의 대부분을 율곡에서 찾을 수 있다. 율곡이 경세론에 있어 내세운 주요 3대 과제가 ‘공안개정, 관리정원의 축소, 감사의 구임’이었고, 존재 역시 이 3가지를 구체적인 제도의 모습으로 보고 있음을 볼 때, 율곡과 존재의 학문관은 많은 면에서 닮아 있다. 또 율곡이 궁중의 사치로 인한 進上·貢物의 폐단을 없

54) 정대림, 앞의 책, 125면.

55) 『存齋集』, 卷之十.

56) 김석중·안황권, 『존재 위백규의 사상과 철학』, 삼보아트, 2001, 33면.

애기 위해 內需司의 폐지와 공안개정⁵⁷⁾을 주장했는데, 존재 역시 貢物 進納 과정에서 자행되는 情賂와 폐단을 장흥의 例⁵⁸⁾를 들어 지적한 다음, 율곡의 공안 개정론에 따라 개혁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監司의 久任도 그의 吏胥 및 지방관 선도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율곡의 ‘관리 정원의 축소’ 문제는 존재의 「정현신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는 郡縣 수의 과다가 剝民의 요인이 되고 있는 위에 營·鎭·驛·堡 등의 濫設이 ‘不耕而食者’층을 증가한다⁵⁹⁾고 하여 ‘無爲遊食’층의 수가 불필요한 관직의 濫說에도 연유함을 지적한다. 이렇게 하고서도 어떻게 백성과 국가가 궁핍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처럼 존재의 시대는 관직의 남설로 관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이로 인한 결과는 당연히 백성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이 들을 내려다보면 때맞춰 비 오고 바람이 알맞게 불어 주었으나 배부르게 먹을 양식은 없었으며, 아낙네들이 밤낮으로 베를 짰으나 입을 옷감은 없었습니다. 남녀노소가 울분을 참고 삼키며,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마른 채 사는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하며,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하고 힘없이 하늘만 쳐다보니 周詩에 실린 大東之篇의 슬픔도 이만큼은 못할 것입니다.⁶⁰⁾

애써 농사를 짓고 베를 짜 보지만 세금으로 수탈로 죄다 빼앗겨 버리고 힘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처참한 삶, 이것이 존재 시대의 민중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관원과 吏胥의 수를 줄이고 사치를 금하며

57) 『栗谷全書』, 卷之五, 「萬言封事條」, 考列邑之物產有無 田結多少 民戶殘盛 推移量定 均平如一 必以本邑 納宇各司 則防納不禁自罷 民生如解 倒縣矣 今日急務 無大於此矣.

58) 『存齋全書』 上, 卷之三, 「封事」 貢物之弊에서 장흥의 토산으로 공단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표고로서 실제 상진량은 100근인데 민간에서 바친 전은 1,000근 價에 달하며, 더욱이 근래 장흥에서 표고가 생산되지도 않기 때문에 민의 손해가 더욱 커진다고 하고 뒤이어 그는 “防納情賂之弊 八域三百州 無非長興也 無非蒙古也 此豈聖朝 制貢之初意哉.”라 하였다.

59) 『存齋全書』 下, 「政絃新譜」, 4면. ‘官職條’, 太半冗員 十月無一事 一月無一政 坐糜廩食 閑費餐錢 強分職司 煩立府寺 其胥吏之遊食者 因此而又益衆矣.

60) 『存齋全書』 上, 卷之三, 「萬言封事」, 77~78면. ‘律貪贓禁奢侈條’. 降觀其野 則雨耕風耘 而瓶甕盡傾 月紡雪而杼軸俱空 男女耄倪吞嚙嚼愁 魂羸魄瘁 有生爲難 求死不得 穹蒼周詩大東之悲.

국민 모두가 근검절약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오늘날 기강이 이처럼 문란해진 것은 나라의 元氣인 선비의 풍습, 곧 士習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고 士習을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는 선비를 양성하는 학교, 곧 향교의 폐단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존재가 정현신보 첫머리에서 학교의 弊를 논한 것도 이러한 뜻에 바탕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관폐를 고발한 그는 「정현신보」 전편에서 1. 學校 2. 貢擧 3. 用人 4. 郡縣 5. 官職 6. 田制 7. 奴婢 8. 軍制 9. 武選 10. 漕運 11. 糶糴 12. 宮屯 13. 田結 등 13조를 열거하고 그 폐단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이 시폐 사상은 일찍이 존재가 31세 때 스승 윤봉구에게 開陳한 것으로, 윤봉구는 존재에게 시폐만 논하지 말고 구폐도 함께 논하라고 가르쳤었다.

존재는 또 「정현신보」를 지은 지 30여년 후인 65세 되던 해에 후편에서 시폐를 들었는데 그는 거기서 前篇의 設弊인 13조 외에 19조목⁶¹⁾을 더해 모두 32조목에 걸쳐 구폐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70세에 자신이 직접 상경하여 정조 대왕에게 올린 「만언봉사」에서 總合되는데, 그는 그의 만언봉사에서 울곡의 『성학집요』와 「만언봉사」를 논하고, 만약에 당시의 집정자들로 하여금 이울곡의 정책을 듣게 하였다면 임진왜란의 화가 반드시 이처럼 혹독한 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⁶²⁾ 조정의 신하들 중에 임금에게 진언하는 신하가 한 명도 없었음을 애석해 했다.

이와 같은 요지의 「만언봉사」에서 존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시폐가 많으니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조 자신이 요·순의 덕행을 그대로 본받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봉사에서 그가 당시 사회의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이를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필요가 있다.

존재의 눈에 비친 당시의 사회는 어느 것 하나 바로 잡혀 있는 것이 없었다.

61) 위백규는 스승 윤봉구의 지시에 따라 時弊 13조 외에 人吏·閹閹·戶帳·僧尼·冠服·錢布·烽燧·禁盜·堤堰·牧場·捕虎·市塵·海島·魚鹽·牛酒松禁·塚地·貢物·工醫·技術 등 19조목에 걸쳐 폐단을 구하는 방법을 논하고 있다.

62) 『存齋全書』 上, 卷之三, 「萬言封事」, 79면. 若使當時聽 施先正之策 壬辰之禍 必不至於若是烈也.

교화가 진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극한 정치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덕망을 지닌 노숙한 선비도 없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존재의 학문과 사상은 성리학에 바탕을 두면서 사회 곳곳에 내재해 있는 각종 부패와 폐단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점차 현실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변모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두드러졌던 집권층 내부의 권력 투쟁, 중간관리 계층의 부패 및 수탈,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과 국가적 생산력의 저발전, 그리고 그에 따른 다수 피지배 계급의 빈곤과 그로 인한 민중의 저항 등은 주자학적 통치 질서관을 근간으로 하는 봉건 질서의 와해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백규는 피지배 계급의 생존권 및 생활권 보호와 국가적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정치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현실관은 다음 시에서 잘 나타난다.

售田賣畜已春初
一粒何曾度夏餘
爲語門前索租吏
姑紓民命待收畚

전답 팔고 가축 판 것이 이미 초봄이었는데
한 알로 어떻게 남은 여름을 지내랴?
문 앞의 세금을 찾는 관리에게 말하노니
우선 백성들의 목숨을 늦춰 논의 수확을 기다려 다오.

「六月」⁶³⁾

晚秧豐歉較一午
覓雇呼傭相喧鬪
誰謂旱餘仍作霖
蓑笠價倍腐襪襪
傭值三十加點心
浮氓鼓腹農舍螿
居士社堂舍念佛
雇錢滿糶兼魚肉
況是兩麥未全收
入者蒸黃田者黑
牟還檢督正得時
縛人秧田索錢食

늦은 모 흉풍은 한나절을 견주나니
머슴 찾고 품팔이 부르느라 서로 시끄럽네.
늪가 가뭄 끝에 장마 들 줄 알았으리
삿갓은 값이 배나 오르고 도롱이는 썩네.
일꾼은 샅이 삼십문에 점심까지 없히니
떠돌이는 배를 두드리고 농부는 독만 오르네.
거사나 사당패들 염불은 제쳐두고
품삿이 께미에 가득하고 생선 고기까지 검하였네.
하물며 밀 보리도 다 거두지 못했는데
들인 것은 떠서 누렁고 밭의 것은 검게 썩네.
보리 환자 살피고 독촉함이 제 때를 만났으니
못논에 와서 사람을 잡아가고 돈과 곡식을 찾네.

63) 『存齋全書』 上, 卷之一, 詩, 14면.

……중략……

種稻未飽一盂飯	벼는 심어도 한 그릇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없고
種綿未具袍與襪	면화는 심어도 도포와 속고의를 갖출 수 없네.
三百六十夜與晝	삼백육십 밤과 낮을
風雨寒暑長役役	비바람 추위 더위에도 길이 노역만 하네.
殫此一生辛苦力	이 일생의 고생스런 힘을 다하여
備與侯侯供玉帛	후문에 골고루 주고 옥과 비단도 바치네.
侯侯事與中華別	후문의 일은 중국과도 달라
世世卿相傳奕焉	대대로 재상들이 전하여 이어져 가네.

「年年行一」⁶⁴⁾

위 작품은 농민들의 곤궁한 삶과 관리들의 호사스런 삶을 대비시켜, 농민의 피폐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듯 존재는, 농민들의 밖에 서서 구경하는 단순한 방관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비판적 현실의 눈을 갖고 민중의 편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는 투철한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굶주리는 민중의 배고픔을 자기의 배고픔으로 느낄 줄 모르는 자가 이렇게까지 생생한 감동을 주는 시를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과 다름 바 없는 전답과 축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에게 세금을 독촉하는 관리들과, 가뭄과 온갖 병충해로 한 해 농사를 망쳐 버리고 근심에 겨워하는 농민들과는 대조적으로 육식에 포만감을 느끼는 관리들의 대조적인 모습의 시구는 당대 어느 작품보다 직접적이고 사실적이다.

물론, 직설적이고 뻔해내듯 토해내는 사실적 표현의 이러한 시편들은 시의 예술적 잣대로 볼 때 높은 가치를 부여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부른 감상을 덧붙이거나 극화시키기에는 그가 직접 목도한 현실이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회제도의 모순들을 시로 파헤쳤다는 것이 존재의 또 다른 특징적 면모일 수 있다. 그는 과거를 포기하고 농촌 마을로 돌아와 농민들의 비참한 삶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농민들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64) 위의 책, 卷之一, 詩, 35~36면.

서는 잘못된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그는 도탄에 빠진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치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정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그의 시각은 매우 독특했다. 제도와 법제가 시행되는 말단 향촌 사회 현실에서 그 개혁의 해법을 구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하급 관리들에 의한 중간 수탈의 방지를 통한 농민 구제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한 목표는 자신과 같은 향촌 지식인들이 참여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중간 수탈을 일삼는 하급 관리들을 지방의 향교나 서원의 학생들로 하여금 규찰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생·원생들을 교육하는 향교 지식인들을 직접 참여시켜 향촌 질서를 유지하려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농민들을 수탈하는 하급 관리들을 견제하는 대안으로 향촌의 지식인들을 참여시켜 향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존재는 「만언봉사」에서 경륜의 대강을,

1. 입성지 명성학(立聖志 明聖學)-堯舜의 志와 孔孟의 學
2. 간보필 거현능(簡輔弼 舉賢能)-인재등용
3. 여염치 진기강(勵廉恥 振紀綱)-향촌교화
4. 정사습 억분경(正士習 抑奔競)-선비의 자세
5. 율탐장 금사치(律貪贓 禁奢侈)-사치금단
6. 유구장 혁폐정(由舊章 革弊政)-폐단혁과

라고 하여 聖學을 밝힘으로써 邪道를 물리치는 것으로 그의 사상의 근본을 삼았다. 결국 존재의 실학사상은 사상적으로 보아 利用厚生學派라기보다는 經世致用學派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존재 위백규의 학풍은 기존의 전통적 질서나 체제를 크게 변동시키지 않고 고수하려는 성리학적 기반을 근거로, 무엇보다 현실 인식의 성향이 강한 모습을 띄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천적이며, 현실지향적 모습의 추구는 그의 작품 곳곳에서 찾아진다.

따라서 존재의 학풍은 학문적 경향으로만 충실한 성리학에 대한 복귀라기보다,

현실의 인식에 기반한 실천적 학풍이며, 이는 또 실용적 가치관과 행동 범주에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2) 교유관계

진술한 바와 같이 위백규는 호남의 僻巷에서 거의 전생애를 머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유관계가 활발하지는 않았다. 年譜에서 “항상 참다운 벗을 얻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⁶⁵⁾라고 말했을 정도로 교유관계가 넓지 못했다. 이러한 한탄은 44세에 선비 송일제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지은 만사에도 잘 드러나 있다.

百年知己少	평생토록 뜻에 맞는 친구가 적어
蕭洒臥空林	상쾌하게 빈숲에 누웠네.
智齋人去後	지재에 사람 떠난 후엔
松菊萬古心	송국만이 만고심이로다

「輓宋斯文」⁶⁶⁾

송일제를 추모하면서 知己가 적어 외롭게 살다 간 것을 애도하고 있다. 이는 송일제의 인품과 삶인 동시에, 위백규 자신의 처지이기도 했다. 그는 동병상련의 심정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장흥 僻巷에서 그와 지적 수준이 대등한 교유인물을 찾기 힘들기도 했거니와, 그의 교유 회피 경향도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학문적인 재질이나 탐구의욕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느끼는 심리적 갈등은 이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고 내향적인 성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윤봉구의 문하에 들어간 뒤 계속 과업에 종사, 거의 매년 외지를 경유하여 마음껏 자신의 학문·식견을 펴고 깊이를 증대시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나, 그의 냉소적 성격이나 學的 交遊의 自絶로 이러한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다. 물론 여기서도 향리에서 ‘耕樵無暇 往還遂斷’⁶⁷⁾하였다는 자신의 술회를 보면 경제적인

65) 위의 책, 上, 卷之十八, 「年譜」, 43세, 554면

66) 위의 책, 卷之一, 詩, 1면.

67) 위의 책, 卷之六, 書, 「與李長興書」, 152면.

어려움 때문에 여유 없는 외유를 초래한 듯도 하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역시 자신의 交遊自絶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의 시에서 자신에 대해 ‘상쾌하게 빈숲에 누웠네’ 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 그 자신은 20여년 京鄕을 오가면서 단 한번도 高門에 投託하지 않고 고고하게 經蠹書蟬한 것을 자부하여 긍지로 삼았던 것도 같다. 병계에서 회옹 시에 따라 지은 시를 살펴보면, 이러한 위백규의 긍지를 알 수 있다.

서울과 호남을 다닌 지 이십여 년 동안 일찍이 지체 높은 집에 찾아가서 명함을 내놓은 적이 없었으며, 비록 수재들이나 아사들을 만난다 해도 또한 일찍이 반면의 친분도 맺지 아니 하였다. 그것은 감히 거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또한 내가 좋아한 데 따를 뿐이었다. 스승의 문하에 예물을 바치고 집지를 하는 일 같은 것은 이 시대 대인의 대요를 얻어 봄으로 백년 한 평생을 헛되어 보내지 않고자 함이었다. 스스로 부끄러운 바는 부질없이 우러러 사모함만 깊었을 따름이지만, 해안의 어초로서 비록 근원을 찾아 소매를 받들지는 못했을망정 경경한 꿈만은 일찍이 풍잠과 옥계의 사이에 머물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선생님도 별세하셨으니 장차 어느 누구를 존경할 자가 있겠는가? 영유에 곡을 올리고 사직한 다음 새벽에 쉼신을 삼아 신으려고 하는데, 차가운 구름은 햇별을 가리고 손바닥만한 눈송이가 내리므로 무료한 순간 한 절구의 시를 읊으며 좋은 봄의 감회를 부치니 거기에 대한 운은 곧 회옹과 옥계의 시 가운데에서 윤선생님이 따라 지은 것을 시제로 하였다.⁶⁸⁾

「玉屏溪次晦翁韻贈尹高靈道而心協因與作別」에 붙여 놓은 序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백규는 당시 권세 있는 자들과 교유하여 영달을 꾀하려는 것을 경멸하였다. 실제로 계미년에 위백규가 增廣東堂에서 일등을 하고 네 번째 아우인 백순과 함께 會試에 나아갔을 때 서너 집의 권세 있는 자식들이 만나기를 요구하였으나 문을 닫고 거절하니 서울에서 ‘怪物’이라고 서로 전했다고 한다.⁶⁹⁾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고결한 성품 云謂의 문제를 떠나 심각한 학문적·사상

68) 위의 책, 卷之一, 詩, 16~17면. 「玉屏溪次晦翁韻贈尹高靈道而心協因與作別」并序, 遊歷京湖二十載 未嘗投一刺於高門 雖遇其秀才雅士 亦未嘗修半面之款 非敢爲亢也 亦從吾所好而已 乃若束脩於師門 則以爲得見斯世大人之要 不爲虛過百年 自慚暴棄徒深景慕 海岸漁樵 雖不得源源奉袂 耿耿魂夢 未嘗不在於風峯玉溪之間 今梁木摧矣 將安仰矣 哭辭靈帷 晨理芒屨 寒雲掩旭 雪片如掌 聊吟一絕 謾寓陽春之感 其韻卽晦翁玉溪詩 而先師所嘗次者也.

69) 위의 책, 卷之十八, 「年譜」, 46세, 555면.

적 제약이 아닐 수 없고 이것이 지역적인 편벽을 보완·극복할 수 없도록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백규가 僻巷에서 외롭게 자수 성업하는 과정에서 스승 윤봉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특별한 것이었거니와 평생 교유관계가 거의 없었던 위백규에게 스승 윤봉구는 마음의 벗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윤봉구는 國中の 학자였으며 宋時烈의 高弟 權尙夏의 제자들인 江門八學士의 한 사람으로서 노론의 호론계 산림이었다. 당시 노론 기호학과 내에서 이간과 한원진을 중심으로 人物性同異논쟁이 벌어졌는데 윤봉구는 人物性相異論의 편에 섰던 호론계 대표적인 학자였으며, 영조가 세자가 되기 전 잡저에 있을 때 학문을 가르친 적도 있었다. 춘담공 위세옥과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친분관계가 있어 윤봉구가 위세옥에게 ‘竹馬故友’라고 부르며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위세옥이 증조 위덕화와 조부 위정척의 家狀을 윤봉구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위세옥과의 인연과 18세기 중엽에 위씨 일문이 노론에 귀속되어 있었던 가문사적인 연관 속에서 윤봉구를 위백규의 스승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윤봉구가 國中の 학자로 명성이 있었으나 조정에 나가지 않은 채로 소외되어 있었던 산림이었다는 점은 위백규로 하여금 외부 세계와의 폭넓은 교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기도 하였다.

스승 윤봉구와의 만남은 위백규가 25세 되던 해 봄에 束修之禮를 행하고 『대학』과 『중용』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윤봉구는 위백규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주는 데, 이는 초보 학문에서 벗어나 더욱 정진하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위백규는 당대의 고등학문이었던 성리학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된다.

綱條已熟極功明	강령과 조목은 이미 익숙해 극진히 한 공이 밝았나
不識眞能築底成	참으로 능히 밑바탕을 쌓아 이론 줄 알지 못하네.
和靖一書猶半歲	윤화정은 대학 한 책을 오히려 반년이나 읽었는데
纔旬二傳恐難精	겨우 열흘 동안에 이전을 아마 정독하기는 어렵네.

『附屏溪先生原韻』⁷⁰⁾

70) 위의 책, 卷之一., 詩, 12면.

병계 윤봉구가 위백규에게 준 원운이다. 『대학』과 『중용』의 강령과 조목은 이미 익숙해져 지극한 공이 밝아졌으나 그것이 자신의 밑바탕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며, 공부의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전구와 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거를 들어 보여 주었다. ‘和靖’은 程伊川의 高弟인 尹焞(1061~1132)의 호이다. 윤돈이 정이천에게서 수학하게 되었는데, 『대학』과 서명을 무려 반년동안이나 읽었다고 하며, 공부의 정밀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겨우 열흘 동안에 ‘二傳’을 마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말하고 있다. ‘이전’은 『춘추』 해석서인 『공양전』과 『곡량전』을 이르기도 하고, 『좌전』과 『곡량전』 등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대학』과 『중용』 두 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만 전수하는 데도 반년이 모자라는데, 열흘도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제자에게 서둘러 두 책을 가르치고 난 감회와 우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당시 스승과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위백규는 스승에게 두 편의 시를 받는데, 그 중 깨달음과 터득 그 실천의 어려움(難)에 대한 시는 다음과 같다.

經意難知說亦難	경서의 뜻은 알기도 설명하기도 어렵고
雖言下言領之難	비록 쉬운 말을 해도 깨닫기 어렵네.
又雖領會分明得	또 비록 깨달아 분명히 얻었다 할지라도
心體行時覺最難	마음으로 본받아 행할 때는 가장 어려움을 느끼네.

『附屏溪先生原韻』⁷¹⁾

이는 위백규가 유년시절부터 남달리 학문의 열정과 명민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리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춘담공 외에는 그 누구도 그의 학문 기반 형성에 영향을 미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윤봉구와의 만남은 자신의 학문을 돌이켜보며 폭과 깊이를 한층 더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윤봉구는 위의 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위백규에게 새로운 학문적 경지로 나아가는 포문을 열어주고 있

71) 위의 책, 같은 곳.

다.

이 시를 받고 스승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위백규는 스승께서 주신 難字 세 자에 대한 답시를 짓는다.

人不虛生自古難	사람이 헛되게 살지 않는 것은 전부터 어려우니
眞知實踐是爲難	참으로 알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것이네.
今見先生聞大道	이제 선생을 뵙고 큰 도를 들었으니
升高行遠肯辭難	높은 데 오르고 먼 데 가는 것을 어렵다 사양하리?

「辛未春謁久庵先生於玉屏溪歸途中敬次先生所贈三難字韻」⁷²⁾

이 시는 스승 윤봉구가 준 難字를 次韻하여 지은 시로 師門을 정한 감회를 표현하고, 스승에게 받은 학문적 도전에 대한 답시라 할 수 있다. 스승에게 시를 바치고 돌아간 위백규는 감회와 큰 도(大道)를 품고, 이에 대한 도전을 받은 체 지낸 것 같다. ‘升高’는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으로부터 오른다는 뜻으로 일을 함에는 반드시 순서를 밟아야 함을 의미하고, ‘行遠’은 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으로부터 간다는 뜻으로 일을 함에는 반드시 순서를 밟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백규는 스승에게서 도를 들었으니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어찌 사양하겠는가 하며 학문에 대한 자신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그의 심경은 그해 초가을 스승을 뵙고 이십 여 일 동안 옥계에 머물면서 스승에게 올린 시에서도 나타난다.

吾道相傳祇此心	우리 도가 서로 전해 옴은 단지 이 마음이니
淵源千古活來深	그 연원은 천고에 살아온 것이 깊네.
玉溪秋月明寒水	옥빙계 가을 달이 한수 위에 밝아 있으니
審問能行便易尋	살피 묻고 능히 행하면 곧 쉽게 찾으리라.

「是秋自洛下歸歷謁玉屏溪留數十日以一絕上呈」⁷³⁾

72) 위의 책, 같은 곳.

73) 위의 책, 같은 곳. 12~13면.

이 시에서 위백규는 자세히 묻고 능히 가다보면 道의 淵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겸허한 깨우침을 스승에게 드리고 있다. 성리학의 道統을 의식하며 寒水齋 權尙夏(1641~1721)로부터 屏溪 尹鳳九(1681~1767)로의 學脈을 예찬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자부심까지를 내비치고 있는 작품이다. 도학적인 說理詩답게 ‘審問能行’ 등의 求道 關聯 熟語로 매듭 지워져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한 스승의 답시는 다음과 같다.

初學惟宜收放心	초학은 그 무엇보다도 방심을 거두어 모아야 하고
本源既得資之深	본원을 이미 얻으면 의뢰함이 깊어야 하네.
自茲迤邐向前去	여기서부터 잇달아 앞으로 향해 가노라면
入德門程庶可尋	덕으로 들어가는 길을 거의 찾게 되리라.

『附先生和詩』⁷⁴⁾

윤봉구는 앞으로 정진하다보면 덕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게 되리라 격려하고 있다. 윤봉구는 위백규의 빈한한 가정 사정을 알고는 오래 머물러 강습할 수 없음을 섭섭히 여겼다. 그로 인하여 양식과 반찬을 주어 가며 10일 쯤이라도 더 머물게 해 준 적도 있었다. 심지어 『朱子全書』를 얻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위백규에게 그것을 입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성의도 보였다.⁷⁵⁾ 이렇듯 십 수 년 동안 위백규는 윤봉구가 살고 있는 덕산을 왕래하며 가르침을 받고 또한 문과 급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양을 왕래하며 일정 기간 체류하기도 하였다.

위백규에게 있어서 스승과의 만남은 외로운 自習 이후의 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벗과의 만남과도 같았다. 이렇게 위백규의 스승에 대한 간절함은 훗날 32세때 스승이 천관산을 유람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스승을 만나는 행위에서도 잘 드러난다. 윤봉구 또한 남쪽 멀리에서 자신을 찾아온 위백규를 환영하며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다음의 시를 보면 윤봉구의 마음을 알 수 있다.

74) 위의 책, 같은 곳, 13면.

75) 위의 책, 卷之十八, 「年譜」, 31세, 553~554면

“또한 주자대전이 없는 줄 알고 자기의 큰 아들인 심위에게 당부하기를 자화(위백규)가 주자전서를 배우지 못하여 아깝다. 어찌 환영(진라감영)에 부탁해서 1질을 얻을 방법을 찾지 않느냐?”고 하였다.

冠山秀色夢中回 천관산 빼어난 산색 꿈속에 다가오더니
君自冠山千里來 군이 관산으로부터 천리 길을 찾아왔도다.
何日携君上山去 언제나 군과 함께 그 산상에 올라가
南臨滄海壯襟懷 남쪽으로 바다를 향해 장엄한 가슴속을 열어 보랴?
「屏溪先生元韻」⁷⁶⁾

윤봉구는 위백규를 빼어난 ‘冠山秀色’이라 표현하면서 그의 인물됨을 칭찬하고 있으며 위백규와 함께 산상에 올라가 기상과 포부를 펼쳐볼 것을 바라고 있다. 이는 僻巷에만 기거하고 있던 위백규에게 학문의 지경을 넓혀 바다와 같은 기상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웅색한 三僻 속에 갇혀 있었던 위백규에게 장엄한 포부를 심어준 스승 윤봉구의 이러한 격려의 시는 분명 가슴 떨리는 요구였을 것이다. 그 후 7년 뒤 스승 윤봉구가 천관산을 유람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록 현실은 그가 25세 때 스승에게 시를 받던 장엄한 기상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한걸음에 달려가 노령에서 스승의 가마를 만났다. 그러나 극성스런 더위로 인해 천관산 유람을 포기하고 입암산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年譜에 따르면 윤봉구는 위백규에게 천관산을 그리게 하여 손가락으로 명승지를 꼽아가면서 매우 궁급해 하며 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한다.⁷⁷⁾

위백규는 이러한 스승의 촉망 속에 빠르게 학문적으로 성장해 간 것으로 보인다. 人物과 物性에 관한 다음의 기록들이 이러한 사정을 드러내 주고 있다. 어느 날 윤봉구는 위백규와 人物性에 관해 論判하던 끝에 詩를 지어주고 위백규의 비범함을 칭찬하였다. 위백규가 35세 되던 계유년 겨울, 스승을 찾아뵙고 人物性異同에 대한 논란을 갖고 그 한 부분을 바쳤다. 먼저 위백규가 스승에게 바친 「性理韻」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76) 위의 책, 卷之一., 詩, 12면.

77) 위의 책, 卷之十八, 「年譜」, 32세, 554면.

계유년 겨울에 나는 久菴 선생을 찾아뵈었다. 선생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人物의 성품이 다르고 같음에 대해 지금 말들이 분분해서 결정을 짓지 못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였다. 나는 이에 대답하기를 곧 그들은 ‘性卽理’라는 이 세 글자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물이 처음 태어날 때에는 이치가 일찍이 같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理가 氣에 가하게 되면 곧 만 가지로 다르게 形質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氣質 가운데에서 理字 하나만 뽑아 두고 보면 비로소 거기에서 性이라는 名目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性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람과 물의 性이 어찌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中庸을 보면 天命之性의 한 구절만 보아도 天字에 중점을 두는 것을 보면 사람과 물이 한 근원의 이치임을 볼 수가 있고, 率性之道의 한 구절에서 率字를 비교적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과 물이 동일하지 않는 性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나라 정이는 ‘理는 善하지 않음이 없다(理無不善)’는 구절에 대해 性善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그 性의 근원을 거슬러서 찾아보고 이르기를 ‘性은 곧 理’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다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性理 두 글자를 합쳐 보아도 다시 다를 것이 없을 것이며, 그 卽字도 마땅히 자세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性이 하늘에 있는 것을 理라고 하는데, 그 理의 근본을 찾고 보면 사람과 물이 일찍이 같지 않은 것은 아니며 理가 物에 있는 것도 性입니다. 그러나 그 性을 論해보면 人物에 있어서 일찍이 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이 두 글자가 맥락은 비록 상통하나 窠座가 스스로 다릅니다. 다만 공부하는 학자들이 보는 것이 통투하지 못할 뿐입니다. 평소 언제나 이와 같이 보고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끝으로 절운 한 수를 지어 올립니다.⁷⁸⁾

性因理賦本於天	성은 理로 인하여 타고나며 하늘에 근본한 것
人得其全物得偏	사람은 그 온전함을 얻었으나 물은 한쪽만 얻었네.
若論一原同處是	만약 일원을 논한다면 같은 곳이지만
纔看氣上便殊千	기질상으로 본다면 문득 달라짐이 천 갈래네.

「性理絕韻」⁷⁹⁾

78) 위의 책, 卷之一, 詩, 12면. 癸酉冬謁屏溪先生謂伯珪曰 人物性異同之說 方紛然未定 子以爲如何 對曰彼以人物之性爲無異者 正彼他性卽理 三字所誤了 盖人物有生之初 理未嘗不同 而是理乘是氣 則便有萬殊之形質 其成性之後 人物何嘗同乎 且看中庸天命之性一句 天字爲重 而可見人物一原之理 率性之道一句 率字較重 而可知人物不同之性 程子將以理無不善 發明性善之義 故推上性之本原 而訓之曰 性卽理也 非是直教人 合看性理二字 更無差別也 其卽字頂子細看 夫性之在天者 理也 原其理 則人物未嘗不同 理之在物者 性也 論其性 則人物未嘗不異 盖此二字脈絡 雖通而窠座自別 但學者 看不透耳 平日常作如此見解 如何如何 遂以一絕上呈.

79) 위의 책, 같은 곳.

이와 같이 위백규는 性卽氣質을 근거로 한 人物性相異論으로부터 출발하여 本然의 성이란 氣質性에 내재한 것이며, 구체적인 性이란 氣質性일 뿐이라고 하는 唐·宋 이래의 性卽氣質論을 펼쳤다. 이는 스승인 윤봉구의 학설에 따른 人物性相異說의 주장이다. 그는 스승 윤봉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간절히 말씀하오니 하늘이 명령한 이치는 작은 나방과 하루살이와 기생하는 버섯의 종류들이 다 사람과 같으나 그 각자의 성품이 된 것은 어찌 사람과 같다 하리오.
……중략……

기가 편중하면 이치 또한 편중하고 기가 적으면 이치 또한 적으므로 사람은 기의 얻음이 온전하고 많아서 이치 또한 온전하며 많고, 물은 기의 얻음이 적으므로 이치 또한 편중되고 적은 것이다. 또 호랑이와 기러기는 물의 큰 자이므로 그 모방되어 같은 점을 취한다면, 부자간의 사랑과 형제간의 질서에 비유하여 말을 한다. 그러나 만약 호랑이가 마음의 덕과 사랑하는 이치가 있고, 기러기가 일을 마땅하게 하고 이치의 절도가 있다고 한다면 돌아보건대 옳겠습니까? 물의 작은 자에 이르러서는 반딧불은 다만 화기를 얻었을 뿐이니 어찌 예의의 성품이 있으며, 버섯은 생기를 얻었을 뿐이니 어찌 측은의 성품이 있으리오?⁸⁰⁾

人과 物의 이치가 같은 것은 理가 본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고, 人과 物의 본성이 다른 것은 만물을 형성하는 氣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하늘이 人과 物에게 부여해준 理는 본래 같아도 그것이 사물 안에 들어와 性이 되었을 때는 이미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즉 만물이 하나의 우주 안에서 일정한 법칙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人과 物은 자연으로부터 동일한 이치를 받아 태어나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人과 物이 똑같은 수는 없다. 아무리 같은 우주의 법칙을 따른다 해도

80) 『存齋全書』上, 卷之六, 「書」, 150~151면, 謂天命之理 則焦螟蠓蟻寄生菌耳 皆與人同也 其所以爲性 則豈可謂與人同也. ……중략…… 氣偏 則理亦偏 氣少 則理亦少 人得氣之全而夥 故理亦全而夥 物得氣之偏而少 故理亦偏而少且 斥鴳鴻鴈 猶豈物之大者 故取其倣似者 擬於父子之仁兄弟之序而爲言 然若言斥鴳狼有心之德愛之理 鴻鴈有事之宜 則理之節文 顧可乎 至如物之微者螢火只得火氣而已 何嘗有禮之性哉 菌耳只得生氣而已 何曾有側隱之性哉.

人과 物의 다른 특성들에 주목한다면 그 본성에서부터 서로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그는 인간도 만물 중의 한 種이며, 신체적인 운동과 감각적 작용 및 모든 생리적인 작용은 다른 사물과 다를 바가 없지만, 오직 사람만이 만물 중에서 존귀하고 가장 신령스러울 수 있는 까닭은 단지 仁義禮智를 그들의 性으로 지니고 있는 까닭이라고 주장한다.⁸¹⁾ 이처럼 위백규는 性을 氣質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人性과 物性이 상이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위백규의 입장은 氣質 속에 내재되지 않은 理는 性이라 할 수 없고, 理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本然의 性이란 氣質 속에 내재한 理를 기질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미로 파악한다는 것 이상일 수 없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性이란 기질의 性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가 性의 개념을 규정할 때 “理가 氣를 타고 形質에 들어갔으니, 이름하여 性이라 하였다. 性은 과연 善도 있고 下善도 있다.”⁸²⁾라고 밝히고 있는데서 잘 나타난다. 性의 개념을 이처럼 기질과 관련시켜서 해석하기 때문에 위백규는 인물성의 동일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 “뒷날 선비가 본연 기질의 이름 때문에 드디어 性字의 본뜻을 상실하고, 인간과 사물의 性이 同이라 말하게 되었으니, 그 오류가 심한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⁸³⁾ 이러한 존재와 스승과의 문답 후 윤봉구는 위백규의 학문적 비범함에 화답하고 더욱 정진하라는 내용의 시를 지어준다.

君知性善出於天	그대가 성선이 하늘에서 나옴을 안다면
氣質何論偏不偏	기질이 어찌 치우치고 치우치지 않음을 논하리오?
學問元來工最大	학문은 원래 공부가 가장 큰 것이니
人能之十己能千	남이 열 번에 능하거든 그대는 천 번에 능히 하계.

「附先生和詩」⁸⁴⁾

위백규가 41세 되던 정해년 말에 윤봉구 선생이 세상을 떠난다. 그 때의 심경

81) 『存齋全書』 上, 卷之七, 「人說」 참조.

82) 위의 책, 卷之十四, 「孟子節義」, 423~452면.

83) 위의 책, 卷之十七, 「論性說」, 199~200면.

84) 위의 책, 卷之一, 詩, 12면.

은 다음 시에 잘 드러나 있다.

悵然長嘯出玉溪 쓸쓸히 긴 한숨을 지으며 옥계를 나서니
北風空山雨雪時 북풍 부는 빈산에는 눈이 내리네.
如今亦少荷簣者 지금은 또한 은자도 드무니
有心無心不怕知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줌을 두려워하지 않네.
「玉屏溪…先師所嘗次者也」⁸⁵⁾

이 시는 위백규가 42세에 스승 윤봉구의 부음을 듣고 비록 다섯 달 동안의 복을 입게 되었지만 마음속이 갑자기 허전하고 빠른 것만 같아서 즐겁지 않았으며 무엇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막상 스승의 靈筵에 배례를 올리고, 걸어서 산문을 나설 때는 한 세상이 멀고멀어 아득하기만 하며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읊은 것이다. 이 시에서 위백규는 유일한 벗과 같은 존재이자 스승이었던 윤봉구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스승이 돌아가신 다음 해, 위백규는 궁경독서를 결심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궁경독서의 의미는 과거를 포기하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스승의 죽음이 큰 계기가 된 것 같다. 윤봉구와의 대화 단절은 위백규로 하여금 큰 슬픔을 줌과 동시에 새로운 진로를 자신의 지반 위에서 찾게 하였다. 윤봉구 사후 그가 향촌활동에 진력하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생활을 본무로 선택한 것은 대개 이러한 상황 아래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학문적 지주를 잃은 충격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컸던 것 같다. 위백규가 43세 되던 해의 年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충격은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주었던 것 같다. “항상 참다운 벗을 얻지 못한 것을 지극히 한스럽게 여겼다. 평생을 돌이켜보면 오로지 평소의 마음을 어기지 않고 뉘우치는 일을 마음에 쌓아가니 점차 울화가 커졌다. 드디어 精血이 날로 소모되고, 정신과 기백이 昏黃해졌다.”⁸⁶⁾고 전하는 바와 같이 정신적 신경쇠약은 심각

85) 위의 책, 卷之一, 詩, 17면.

86) 위의 책, 卷之十八, 「年譜」, 43세, 554~555면.

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애절함 때문일까, 이후 위백규는 송우암, 한수재, 구암 세 명의 영정을 꿈에서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짓는다.

嫡傳三世一心通	적통으로 전한 삼대가 한마음이 통하여
不絕春秋在大東	끊이지 않는 춘추가 우리 동방에 있네.
夢覺書窓增感慨	꿈을 깬 서창에 감개가 더하니
海天朝日照丹襄	해상 하늘의 아침 해가 단심을 비추네.

「夢見尤菴寒水齋久庵三先生眞影有感」⁸⁷⁾

위 시에는 평생에 걸쳐 성리학의 깨우침을 근본으로 삼았던 위백규가 이를 심어준 성현들과 스승 윤봉구에 대하여 마음으로 존경하고 깨우침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심정이 담겨져 있다.

이상으로 윤봉구와 위백규의 교유관계와 연대를 살펴보았다. 위백규에 있어서 스승 윤봉구는 전생애에 있어서 거의 유일하게 학문적 영향을 미친 인물로서 거의 독보적인 연대관계에 있었으며, 그만큼 그의 인생을 통해 배출한 문학작품과 각종 저술들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 둘의 교감과 교유활동, 작품의 상관성과 같은 논의는 앞으로 더욱 정밀하게 실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상술한 내용을 미루어 위백규의 문학적 실천 이면에 윤봉구의 사상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두고자 한다.

87) 위의 책, 卷之一, 詩, 6면.

Ⅲ. 문학관

1. 제도론적 효용성의 추구

조선후기는 시대적으로 혼란과 충격이 연속된 변모와 반성의 시기였으며,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의 병폐가 날로 심화되고 실학의 기운이 융성해가는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따른 사상적 변화와 혼란을 겪는 가운데서도, 文衡을 쥐고서 당시의 문단을 주도했다고 보이는 대표적인 관료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 문인들과 변화를 거부하며 보수적 견해를 보이면서 입신양명을 목표로 정통 한문학을 익히는 데에 전념하였던 사대부 문인들은 성리학의 절대적 권위 아래 안주하면서 전통적인 제도적 문학관에 매달려 있었다. 성리학의 규범 속에서 그 이념의 구현을 위한 문학을 추구하는 그들이었기에 현실 문제의 해결을 내세우며 근대의 가치관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폭넓게 전개되는 데 위기의식을 느껴 오히려 이념적 질서와 함께 정통 한문학의 규범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고자 하면서 제도적 문학관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한편, 성리학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혼란하였던 당시 사회의 여러 현실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근대의 가치관을 지향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주었던 실학적 문인들도 기본적으로는 제도적 문학관을 내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丁若鏞(1762~1836)은 文은 道를 실어 전달하는 그릇임을 확인하면서, “文章의 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도를 해치는 줄과 같은 것”⁸⁸⁾이라고 하였고, 따라서 “문장과 도는 반드시 서로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럽게 여겨서 버려야 할 것”⁸⁹⁾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黃胤錫(1729~1791)은 “文이라고 하는 것은 道의 나머지고 시는 또한 文의 나머지”⁹⁰⁾라고 인식하였으며, 安鼎福(1712~1791)도 ‘문장은 잔기술이며 시 역시 하찮은 기예’⁹¹⁾라고 보았

88)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十三, 「西園遺稿序」.

89) 위의 책, 卷十七, 「爲李仁奈贈言」.

90) 『頤齋遺稿』, 卷十一, 「孤舟集序」.

다.

위백규 역시 기본적으로 송시열과 권상하, 그리고 윤봉구로 이어져 내려오는 학문의 맥을 자신이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재도론적 문학관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는 “성리학에 어두운 자는 비록 才思는 있을지라도 文章의 깊은 뜻을 터득할 수 없다. 문장의 오묘함을 터득해야 自樂할 수 있고, 부귀나 빈천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항상 소요부의 즐거움을 사모하였지만 얻지 못하다.”⁹²⁾라고 하여 성리학적 관점을 배척하지 않았다. 먼저 이러한 재도론적인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는 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絕學歸東土	끊어진 학문을 동국에 돌려놓았으니
懷川道不疚	회천의 도가 시들지 않았네.
洛濂明水月	염계와 낙수에 깨끗한 달이 밝고
沮澤遠龍蛇	늪지대에 용과 뱀이 멀어졌네.
冠冕三韓國	관과 면류관 삼한국에 있으니
淵源兩宋家	연원은 우암과 동춘당 두 송씨로다.
聖祠尊俎豆	성사에 제사를 받드니
天聽定非遐	하늘의 들으심이 결코 멀지 않았네.

「尤春兩先從祀聖廟」⁹³⁾

盈科終到海	웅덩이가 차서 마침내 바다에 이르고
源深逝如斯	근원이 깊으면 가기를 이와 같이 하네.
觀其瀾有術	여울을 보는데 방법이 있으니
聖訓豈余欺	성인의 가르침이 어찌 나를 속이리오?

「混混泉」⁹⁴⁾

첫 번째 시에서 위백규는 중국에서부터 중도에 끊어진 학문을 송시열과 송준

91) 정대림, 『한국 고전문학 비평의 이해』, 태학사, 1991, 102면 再引.

92) 『存齋全書』 上, 卷之十八, 「年譜」, 49세, 555면.

93) 위의 책, 卷之一, 詩, 5~6면.

94) 위의 책, 卷之一, 詩, 5면. 「混混泉」은 아래로 人事를 배운 후에 위로 천리에 도달하는 天德을 뜻하고 또 學知와 生知도 성공한데 있어서는 동일함을 뜻함.

길이 백을 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위백규는 이들의 계를 잇는 노론계 학자로서 이들의 학문을 계승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학문을 복원하는 것이 위백규 사상의 근본적 틀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기호남인의 일원으로서 조선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대의 문학적 지반 위에서 자신의 문학을 배태시켜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두 번째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성현의 교훈을 지상 최고의 지표로 삼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재도론적 입장에서는 문장을 道の 榮華로 보고, 六經을 본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자와 맹자 등을 성현으로 보고 그들의 교훈을 깨우치는 것을 진정한 학문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두 편의 시를 살펴보면 시의 역할이 효용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의 효용론적인 입장이란 문학은 도를 전달하고 선전하는 도구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작자의 이념이나 참된 삶의 가치 등을 문학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여 작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독자를 이끌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관점이다. 효용론은 주자학을 정치철학으로 삼아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서부터 중심적인 문학론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이러한 효용론적인 관점에서는 문학이 독자의 성정을 순화하는 이른바 敎化의 수단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작자는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학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성향을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⁹⁵⁾ 다음은 위백규의 격물설 중 시경으로서 그가 효용론적 관점의 詩觀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의 詩人에서 보여주고 있다.

시는 당나라에서 성했다고 하며, 말하는 이마다 숭상을 한다. 그러나 처음의 시들부터 나중의 시들까지 수천만 편의 당시들을 어디에 쓰겠는가? 『시경』 국풍편을 보면, 비록 여자들이나 민간에서 하는 말이라도 모두가 다 불만하고 말할 만하여 거울 삼아 경계하고 본받아 실행할 만한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 그 어디에 일찍 이러한 데가 있었던가? 부자와 존귀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하거나 우러르고 사모한 태를 보면 입가에 침이 흐르고 오장이 거꾸로 치밀어 오르도록 추겨 올린다. 그리고 가난하고 미천한 자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미워한 태를 보면 대단히 상심을 하고 마음속

95) 정대립, 앞의 책, 10~11면 참조.

에 깊이 새기면서 차라리 갑작스럽게 죽어 버리려고 한다. 또 이별의 시를 보면 애간장이 토막토막 끊기는 듯하고 남을 헐뜯거나 나무라는 데에서는 칼과 창을 가지고 끈 썩을 듯이 노출된 느낌을 받는다. 비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호협한 부분이 적고 실지로는 부러워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산과 들을 보고 시가를 외어 읊으면서도 그 사실은 원망이 담긴 시뿐이었으니 대체로 거의가 상심한 풍습과 퇴폐한 풍속을 읊은 시였기에 마음을 방탕케 하거나 본성을 망치기에 알맞은 자료라고 할 수밖에 없다.

주남과 소남 이 두 편의 시는 오래된 시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패풍에서 빈풍에 이르기까지 백 삼십 오 편의 변풍으로 되어 있는 국풍의 시에도 그 어느 사람을 사모했다면 이르기를 “길이 멀다고만 하더니 어떻게 하여 능히 왔는가?”라고 했으며, 비유해서 재미있게 말한 비풍을 보면 이르기를 “산초나무여! 가지가 너무 멀도다.”라고 하였다. 그 기자하는 시를 보면 이르기를 “왜 삼을 가지고 길쌈은 하지 않고. 시중에 나가 벌렁벌렁 춤만 추는가?”라고 했다. 이처럼 말이 간략하면서도 뜻이 진실하며 점잖고 아담하며 깊고 먼 느낌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당인들의 경구는 그 어디에 일찍이 이와 비슷한 기상이 있었던가? 또 시인들은 가끔 눈앞에 보이는 즉경을 시로 만들어서 쓰거나 계절에 따라 풍물을 장난감으로 삼으면서 풀과 나무, 새와 벌레에 대해서 읊고, 바람과 구름, 달빛, 이슬 등에 대해서도 부딪힌 경관마다 읊조리기도 한다. 그러나 주남편에 이르기를 “츰의 녁쿨이 깊이어 그 앞이 무성하도다. 골짜기 속에 뻗으니 그 앞이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피꼬리 넓이어, 저 관목에 모이니 그 울음소리 피꿀피꿀 하도다.”라고 했으니, 다시 읽어 본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과 정신이 화평하고 기쁘게 하며 가엽고 통감을 준다. 하지만 당인들의 시는 그 어디에 일찍이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를 꿈이나 꾸었던가? 또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주남편과 소남편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담장을 정면으로 하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였으니 필연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지금 당시는 천편을 읽는다 해도 어떻게 해서 담장에 정면하는 경우를 벗어 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당시 가운데 명인들은 그중에서 가깝고 올바른 것을 취하려고 하면 겨우 열에 한둘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이에 경박하고 저속한 것이라고 하겠다. 두보를 제외한 그 외에는 이백을 높게 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부귀를 흠모하거나 방탕에 빠져서 정도에 복귀하지 못하며, 과다한 신선술에 흥미를 붙인 시인들은 모두가 이에 쓸모없는 것들이며, 마침내 험박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고 누선에 오른 식이 될 것이니, 괴이할 것이 없다. 당나라 때 이후로부터 시율을 유사들이 훌륭한 학업으로 생각해 왔고, 송나라의 소동파나 황정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부박한 공언을 면치 못했다. 끝으로 명나라의 마지막 운세에 이르러서는 온 천하가 시를 버려 명사를 볼 수가 없었고, 그들의 폐단은 시대의 추이도 모르고 육침하게 되니 이치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의 사람들도 입만 열면 번번이 시를 읊는다고 하지만 그 기상이 너무 오화하고 낮으며 경박하고 무례하여 자못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장차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96)

<詩人>에서 위백규는 시대가 흐를수록 문장이 쇠말화된다고 진단하고 시문을 통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근본·原流에 해당하는 古風을 挽回하는 것이라고 한다. 시는 당대의 풍속을 진술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며, 비록 여자나 민간의 말이라도 거울삼아 경계하고 본받아 실행할 수 있게 한 것이 『시경』의 가치라고 말하였다. 또한 卽景을 시로 만들었을지라도 이를 읽어 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화평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가엽고 통감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말이 간략하면서도 뜻이 진실하며 짙고 아담하며 깊고 먼 느낌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唐나라 이후의 시들은 거의가 상심한 풍습과 퇴폐한 풍속을 읊은 시였기에 마음을 방탕케 하거나 본성을 망치기에 알맞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위백규의 詩觀은 尙古의 관점이며 『시경』과 古詩를 시의 모범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면 위백규는 왜 문학사에서 고시를 비롯한 上古詩歌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上古詩歌를 因文悟道の 선례로 보았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이 시기의 시는 언어의 雕琢과 術學에 물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간의 ‘性情’과 ‘風俗의 善惡’을 표현해 낼 수 있어 결과적으로 文質이 뛰어나다고 본 것이다. 이때 성정과 풍속은 文을 통해 형상화될 수 있는 道の 핵심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96) 『存齋全書』 上, 卷之九, 「格物說」, <詩人>, 279~280면.

詩盛於唐 談者尙之 自始音至遺響累千萬篇 何處用之 詩經國風 雖女子閭巷之言 皆可以觀 可以言 可鑑戒 可體行者 唐詩 何嘗有是哉 歎慕富貴 則口角流涎五臟倒 怨惡貧賤 則痛心刻骨 寧欲溘死 離別 則腸肺寸斷 訕刺 則劒戟露刃 譏議俠少 而其實艷之 諷咏山野 而其實怨之 大體傷風敗俗 蕩心喪性之資也 二南尙矣 至於變風 其思人 則曰 道之云遠 曷云能來 其比諷 則曰 椒聊且遠條且 其譏刺 則曰 不續其麻 市也娑娑 言約而意至 優閒而淵永 唐人警句 何曾有此等氣象哉 且詩人每言 陶寫卽景 玩弄時物 草木禽虫 風雲月露 觸境吟咏 然周南曰 葛之覃兮 施于中谷 其葉萋萋 黃鳥于飛 集于灌木 其鳴喑讀之令人心神和怡 精彩影暢 唐人何嘗夢到此哉 且聖人曰 不爲周南召南 正牆面面立 必非欺我之言 今讀唐詩千篇 何以掇面墻哉 是以唐詩名人 其近正可取十僅一二 其餘都是輕薄鄙夫也 杜子之外 李白高矣 而過歎富貴流蕩 不歸於正 託興於神仙過多 皆是无用 畢竟狼狽於脅迫 上樓船 無足怪也 自唐以後 詩律爲儒士勝業 至於宋之蘇黃 皆不免浮薄之空言 未至于大明季運 舉天下去詩 則無以名士矣 其弊至於陸沉 理所固然也 今之人開口便吟詩 其氣象汚陷輕褻 殆有不可言者 將奈何哉.

이러한 시에 대한 관점은 『논어』에 나타나 있는 공자의 『시경』에 관한 전반적인 논평과 상통한다. 효용론의 원류인 공자의 논평은 후세 유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됨으로써 각기 다른 문학론의 전거로 쓰이게 된다.

『시경』 삼백 수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것이다.⁹⁷⁾

이 思無邪의 정신은 공자의 시관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 후세의 학자들이 사무사를 歸於正, 또는 誠 등으로 해석하면서 효용론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무사의 해석은 주자에 이르면 더욱 효용론적인 측면에서 강조되기에 이른다.

사무사란 말은 노송 경편에 나오는 말이다. 시에서 선을 말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감동시켜 분발하게 할 수 있고, 악을 말한 것은 사람의 방탕한 마음을 징계할 수 있으니, 그 효용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성의 올바름을 얻는데 귀착될 뿐이다.⁹⁸⁾

주자는 사무사를 이렇게 ‘歸於使人得其情性之正而已’로 해석하여 철저하게 시의 효용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공자는 『시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너는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였느냐?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으면 마치 담장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⁹⁹⁾

이는 주남과 소남을 『시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편들로 뽑았으며, 시의 가치나 효용면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했음을 뜻하는 말이다. 공자는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면 인격을 수양하여 修齊治平의 大道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

97) 『論語』, 「爲政篇」, 詩三百一言以蔽之曰 思無邪.

98) 朱子, 『論語集註』, 思無邪 魯頌駉篇之辭 凡詩之言 善者可以感發人之善心 惡者可以懲創人之逸志 其用歸於使人得其情性之正而已.

99) 『論語』, 「陽貨篇」. 女爲周南召南矣乎 人而不爲周南召南 其猶正牆面而立也與.

이다. 위백규는 <詩人>에서 이러한 공자의 교훈을 인용하면서 제도론적인 문학관을 피력하고 있다.

2. 자득적 문학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 문단을 대표하는 문인들은 각각 그들 나름대로의 필요와 명분에 따라 제도적 문학관을 피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학에 대한 인식 또한 다양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위백규의 문학관도 이전의 ‘文以載道’의 이론에 바탕을 둔 ‘道本文末’의 사고에서 벗어나 점차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부분적이거나 진취적이고 개성있는 自得的 성격의 문학관으로의 변모를 보이고 있다. ‘自得的’ 문학 세계란 모방이나 답습·慕華의 擬古등에 對가 되는 개념으로,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문학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조 전기까지는 시가 중국의 수준에 얼마만큼 접근했는가, 그것이 얼마만큼 시작법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수사의 妙를 얻었는가라는 것 등으로 시론이 채워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유들이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시란 어떤 규범과 격식 속에서 누구를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시대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개성울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게 된다.¹⁰⁰⁾ 따라서 이러한 독자성을 추구하고 자주적·자득적 문학세계를 지향하는 것은 조선조 후기의 문인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인식되었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이 전적으로 제도론적인 문학관을 고수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문학관을 고수하여 문학 활동을 해왔다고 가정해서는 18세기 문인들의 문학 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¹⁰¹⁾

南公轍(1760~1840)은 “오늘날 보고 듣는 바는 모두 옛날의 사물이 아닌데 그것을 억지로 文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원숭이에게 옷을 입혀 놓고 사람이라 하고 못생긴 여자에게 화장을 시켜놓고 西施와 같은 미인이라 하는 것과

100) 崔信浩, 「朝鮮後期 詩論의 몇 가지 성격」, 『민족문화연구』 제18호, 62면.

101) 정양완, 『朝鮮後期漢文學作家論』, 집문당, 1994, 171면.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하였다. 즉, 오늘날의 세상을 살면서 문을 배우려고 한다면 마땅히 오늘날의 세상에 쓰일 것을 구해서 배워야 한다고 하였고, 그래야만 오늘날의 도가 행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말로써 당시의 사물을 갖추어 나타내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에 古之人 古之人하며 큰 소리만 치고 고원한 것어나 힘쓴다고 하면 사실에서 멀어질 뿐이며,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을 읽고 그 사람을 알게 하고 그 세상을 논하게 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문과 도를 둘이라고 일컫는 것이 그 때문이라 하였다.¹⁰²⁾

이는 文과 道를 분리하여 보고 도라는 것이 시대를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文도 옛것만을 쫓아서 배울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말로써 오늘날의 사물을 표현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도는 성인의 도가 말해 주는 영구불변의 진리로서의 道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고 시대를 따라 변화하는 도이며 자연으로부터 부여받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로서의 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확실히 文以載道를 본받아 문학의 모범으로서 경전에만 의존하고자 하던 문학관에서는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위백규의 경우도 오직 경서에서 말하는 도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가 金燮之에게 보내는 서찰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체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깨달아지는 도라면 어느 분야의 도이든지 詩作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위백규의 사상은 自得的인 문학관으로의 확장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心性の 정밀하게 쌓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성현의 정밀하고 의로운 글을 읽지 못할 것이요, 하늘과 사람 이치와 기운의 오묘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聖神의 깊은 글을 읽지 못할 것이다. 옛사람 말의 뜻을 체험해 알아서 털을 나누고 실을 쪼개지 못하는 자는 정자와 주자의 훈계하는 글을 읽지 못할 것이요, 옛 사람 풍류를 체험해 상상하여 깨끗함을 흘날리고 음의 높낮이를 알지 못하는 자는 반고와 사마천의 책을 읽지 못할 것이다. 속된 말과 천한 말의 까닭도 많고 정세한테 통하지 못하면 옛 사람의 노래를 보지 못할 것이요, 仙風道骨의 깨끗하고 요원한데 달하지 못하면 옛 사람의 시율을 보지 못할 것이다. 종횡과 열리고 닫히는 기술을 살피지 못하면 옛 사람의 출몰과 권도를 알 수 없을 것이요, 불도의 조용히 깨닫는 취지를 두루 살

102) 정대립, 앞의 책, 425~426면.

피지 못하면 옛 詩의 말 밖에 남은 뜻을 알 수 없을 것이니 음양의 형상과 숫자에 어둡지 아니한 연후에야 易經啓蒙을 읽을 것이다. 음률과 수학에 어둡지 아니한 연후에야 樂書와 책력을 읽을 것이요, 경륜과 형정의 구비함을 봄이 있는 연후에야 史官의 기록한 글을 읽을 것이다. 재물이 流布하는 방법을 청함이 있는 연후에야 소금과 철과 재화의 늘리는 전기를 읽을 것이다. 진실로 뜻을 예의와 도수에 경영하는 자가 아니면 의식과 예절의 경전을 읽지 못할 것이요, 진실로 뜻을 井地經界에 유의한 자가 아니면 『王制』를 읽지 못할 것이다. 목공의 일에까지 두루 통하고 또 명당터와 궁전터 잡는 글을 읽을 것이요, 겉으로는 농사와 장사 일에 밝히고 심고 걷우고, 또 배와 수레 만드는 글을 읽을 것이다. 손빈과 오기의 병법을 읽어서 반드시 그 전투와 진지에 奇正法을 연구한 연후에야 문장의 변화를 다 할 것이다. 軒岐의 비결을 읽어서 반드시 그 수은과 납을 수련하는 묘리를 연구한 연후에야 易學의 가지에 통달할 것이다. 무릇 천지간에 사람 일과 물의 이치는 누애실과 쇠털까지도 모두 마음에 싣고 글에서 얻어 반드시 그 뜻을 연구하여 그 취지를 통달한 연후에야 그 읽은 바가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되는데 도달하지 아니할 것이다.¹⁰³⁾

위백규는 하늘의 이치와 기운을 깨닫는 경학뿐 아니라 풍류체험, 선풍도골, 불도, 음률·수학, 경률·정치, 속된 말·천한 말, 목공일, 농사, 장사, 배·수레 만드는 일, 병법, 헌기의 비결 등에서 나름의 깨우침을 얻어야 옛 시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 詩律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글을 읽을 때 능히 뜻과 취지를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구차하게 글귀만 읽고 음만 해석하여 입과 귀에만 지나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동시에 古風에 얽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7세기의 의고 논리 강조에서 18세기 들어 개성을 강조하는 詩說로 극복되어 가는

103) 『存齋全書』上, 卷之六, 165~166면, <與金雙>. 不知心性精微之蘊者 不能讀聖賢精義之書 不知天人理氣之奧者 不能讀聖神鉤深之書 不能體認古人言意 毫分縷析者 不能讀洛閩訓誥之文 不能體想古人風流 飄灑頓挫者 不能讀班馬傳紀之文 不通於俚言鄙語之委析精奧者 無以觀古人之歌騷 不達於仙風道教之清虛雅遠者 無以觀古人之詩律 不察於從橫押闔之術 則無以知故人之出沒機權 不遍於禪佛靜悟之旨 則無以知古詩之言外餘意 不昧於陰陽象數然後 可以讀易經啓蒙 不昧於律呂兼學然後 可以讀樂皇曆 有見於經綸刑政之具然後 可以讀史官紀律之書 有諳於財貨流布之道然後 可以讀鹽鐵貨殖之傳 苟匪經意於禮儀度數者 不能讀儀禮經傳 苟非留意於井地經界者 不能讀王制 曲通於梓匠之事 以之而讀明堂殿廈之書 傍燭於農賈之業 以之而讀稼穡舟車之書 讀孫吳之韜 而必究其戰陣奇正之法然後 可以盡文章之變 讀軒岐之訣 而必究其修鍊汞鉛之妙然後 可以達易學之支 凡天地間人事物理之蠶絲牛毛 皆載之於心而得之於文 必窮其義而違其趣然後 其所讀者 必不至於書自書我自我.

모습을 보여주는 당시 문단의 새로운 흐름을 배경으로 한다고도 할 수 있다. ‘文必秦漢 詩必盛唐’이라는 기성의 관념을 깨뜨려가며 시대·공간·처지에 부합한 시를 지어야 비로소 작가의 개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본 것이 18세기 문단의 특징적 동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30세에 이르러 위백규는 文字를 지을 때 起草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부르는 것을 적었다고 하였으며, 평소의 마음이 글 짓는 일을 필요하지 않은 일로 여겼다. 또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지도 않았다고 하여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¹⁰⁴⁾ 이러한 표현은 그의 시세계에 접근하기 위한 관건이 되고 있다. 그는 속수미음에서도 “子華非是愛吟詩 詩是知天自喜詩(자화가 시 읊기를 즐기는 것은 아니로다. 시는 천명을 알고 절로 기뻐할 때 울어나온다.)”라고 하여 그의 시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채상사 계능이 지은 분매시에서 차운한 溪上次蔡上舍季能 盆梅韻에서도 “古姿幽韻出天然(고고한 자태와 그윽한 시는 자연스러운 데서 나오고)”라고 하여 이상적인 시는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詩作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경우는 많이 있다. 중국 명나라 시인 전검익의 경우 “시는 각자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뿐”¹⁰⁵⁾이라 하였으며, 원평도 역시 “시에 대해서라면 애오라지 붓을 놀렸을 따름이니 마음 가는 대로 나오고 입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였다.”라고 하였고, “독자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펼치되 마음 가는 대로 말하며 팔뚝에 입을 의탁하였다.”고도 하였으며, “문장의 新奇란 하나하나가 자기의 흥중에서 나와야 참된 것”이라 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꾸밈과 인위를 배제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縱意信筆을 강조하곤 하였다.

이처럼 그의 自得的 문학관에서는 詩와 文을 단지 道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 효용론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徐命膺은 “사람에게는 진실로 문장이 없어서는 안 된다.”¹⁰⁶⁾고 하였으며, “사람에게 있어서 문장은 작은 일이 아님을 알았다.”¹⁰⁷⁾고도 하였다. 위백규의 경우

104) 위의 책, 卷之十八, 「年譜」, 30세 참조, 553면.

105) 전검익, 『初學集』, 卷三十一, 「范璽卿詩集書」, 詩者 志之所之也 陶冶性靈 流連景物 名言其所欲言者而已.

106) 徐命膺, 『保晚齋集』 人, 卷六, 誠不可無文章也.

도 “剩餘란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文章은 선비들의 잉여라고 하면서도, 문장이 없으면 또한 成人이 될 수 없다.”¹⁰⁸⁾고 하여 문장을 성인이 되기 위한 필수품으로 보고 문장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였다. 이러한 詩와 文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개성적인 문학 의식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문학정신의 변화는 조선조 문학에 대한 비판이나 민족 문학에의 지향 의식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⁹⁾ 정약용이 “조선인이기 때문에 즐겨 조선의 시를 짓겠다.”¹¹⁰⁾라고 한 것과 같이 그의 自得的 문학관은 민족 문학정신으로 계승되었으며, 그만큼 중국 문학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선의 고유한 풍토에서 탄생된 문학이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7) 徐命膺, 위의 책, 卷十六, 以是知文章之於人未可少也.

108) 『存齋集』, 卷之二十一, 「剩餘集跋」, 剩餘之爲言 無所用之攄也 ……중략…文章之是士之剩餘也 然無文章 亦不可謂成人.

109) 정대립, 『한국고전비평서-조선후기편』, 2001, 태학사, 136면.

110)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6, 「老人一快事六首效香山體」, 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

IV. 시문학의 형식과 언어

1. 근체시의 지속과 질적 변화

근체시는 한시문학에서 핵심을 이루는 영역이다. 그것은 押韻, 平仄의 규칙이 엄밀하게 약정되어 있고, 律詩에서는 對偶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기·승·전·결구의 구성(絶句), 首·頷·頸·尾聯의 안배(율시)는 짜임새 있는 시상을 지향하며, 단형의 정형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 시어 하나하나의 사용이 고도로 절제된 양상을 띤다. 시어 한 자 한 자의 단련, 함축적 언어표현, 짜임새 있는 사상, 새로운 意境이 두루 필요했으므로, 근체시는 한시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짓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고급문학으로 전래되어 오던 근체시가 그 안에서 질적 변화를 보인다면 그것은 시대 변화의 중대한 징후로 간주될 수 있다. 근체시의 변화는 중세의 핵심적 운문 양식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감을 뜻하기 때문이다. 위백규의 근체시는 그러한 변화의 도정에 위치하며, 그 실상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이 절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여, 근체시로서의 형식과 짜임새를 유지하면서 점차 그 내질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근체시의 제작 역량을 진단해 본 후 생애에 따라 그가 어떤 근체시를 구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기로 한다.

다음은 그가 정격의 근체시를 얼마나 충실히 소화해 내었는지를 대변해주는 작품들이다. 絶句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各定名與位	각기 이름과 위치가 정해져
須氣卦無形	기를 따라 형체가 없는 곳에 걸려 있네.
參爲三光一	참여하여 삼광의 하나가 되어
能使夜色明	능히 어둠을 환하게 하네.

「詠星」¹¹¹⁾

照物無欺暗 사물을 비추매 어두운 데를 속일 수 없으니
 丹心本自明 붉은 마음이 본래 스스로 환하네.
 獨作房中晝 홀로 방안을 대낮처럼 만들었는데
 窓外過三更 창밖에는 삼경이 지나네.
 「詠燈火」¹¹²⁾

發跡冠山寺 관산사에서 출발하여
 梯空上春昊 공중에 사다리를 놓고 봄 하늘에 올랐네.
 俯視世人間 세속 인간계를 굽어보니
 塵埃三萬里 먼지 낀 삼만리네.
 「上春昊」¹¹³⁾

徒倚危欄納晚風 높은 난간에 기대어 석양 바람 맞으니
 醺醺酒力上顏紅 훈훈한 주기가 얼굴에 올라 붉네.
 江村日暮孤烟起 강촌에 해 저물어 외로운 연기 피어오르는데
 客子閑情細雨中 나그네는 가랑비 속에 한가한 정취를 느끼네.
 「宿海仙庵」¹¹⁴⁾

위의 시들은 「詠星」(7세), 「詠燈火」(8세), 「上春昊」(9세), 「宿海仙庵」으로 이들에 작품은 동심적인 호기심과 조숙한 의무감 혹은 비판의식을 동시에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빛이나 빛나는 명산을 題材로 한 점이 흥미롭고, 그것을 형상화하는데 주변 사물이나 배경과의 또렷한 대비를 통해 변별의식이나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이 주목된다. 온 가문의 촉망을 받고 있는 천재 소년의 영웅의식이나 의무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가문과 국가의 빛이 되고자 하는 염원과 함께, 그의 일생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天冠山 同一視’의 自己正體感이 형성되어 가는 端初를 엿볼 수가 있다.

111) 『存齋全書』 上, 卷之一, 詩, 1면.

112) 위의 책. 같은 곳.

113) 위의 책, 卷之十八, 「年譜」, 551면.

114) 위의 책, 卷之一, 詩, 13면.

첫 번째 「詠星」은 별을 소재로 지은 시로, 용력이 집중된 글자가 보이지는 않으나, 그것이 오히려 편안한 시상에 부합하고 있다. ‘제각기 이름과 자리 정해져기에 응하여 형체 없는 곳에 걸려 있네.’라고 한 기·승구가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밤하늘의 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어 ‘삼광의 하나로 참여하여 능히 어둔 밤 환히 밝히네.’라고 한 전·결구가 하나의 종속문을 이루어 구법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 억지로 짜맞춘 느낌을 주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기·승구는 전·결구의 전제가 되고, 전구는 결구의 원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결구의 시각적 심상, 즉 ‘능히 어둔 밤 환히 밝히네’의 별의 환한 모습이 선명히 부각되도록 한 것이다. 시상의 짜임과 구법의 운용이 균더더기가 없이 이루어진 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詠燈火」는 등불을 보고 지은 시이다. ‘사물을 비추매 어두운 데를 속일 수 없으니 붉은 마음이 본래 스스로 환하네.’라고 한 기·승구는 등불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으며 등불이라는 외부 사물의 속성이 마음이라는 내면으로 이동하는 시상이 인상적이다. 이어 ‘홀로 온 방을 대낮처럼 만들었는데 창밖에는 삼경이 지나네.’라는 전·결구에서는 방 안과 방 밖의 밝음과 어두움의 시각적 대비를 주어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기·승·전구에서 방안의 등불을 묘사한 시상이 결구에서 반전됨으로서 강렬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구법의 운용과 시상의 조직 등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작품은 천관산에 올라 느낀 심상을 표현한 시이다. 유천관산기에 들어 있는 작품으로 원래는 제목이 없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上春昊」라고 불렀다.¹¹⁵⁾ 그래서 본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이는 9세 무렵의 작품으로, 이 시를 미루어 보건대 위백규가 천관산의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며 느낀 감회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기·승구는 관산사에서 천관산에 오르는 과정과 정상에 올라 탁 트인 사면을 바라보며 호연지기를 기르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어 ‘세속 인간계 굽어보니 먼지 낀 삼만리’라 하여 전구와 결구가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한 폭의 풍경 묘사를 하고 있다. 기·

115) 위의 책, 卷之十八, 「年譜」 551면.

승구에서는 산 정상을 향한 상승의 느낌을 주다가 전·결구에서 하계로 이동하는 시상이나, 자연과 인간세계를 대비시킨 점이 흥미롭다.

네 번째 「宿海仙庵」은 칠언절구로 해선암자에서 하루 머물면서 느낀 정취를 표현한 시이다. ‘높은 난간 쪽으로 옮겨서 기대어 석양 바람 맞으니, 훈훈한 주기가 얼굴 위에 붉게 달아오른다.’라 하여 기·승구에서는 해질 녘의 암자에서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기구에서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연상시키는 석양의 시각적 심상은 승구에서 주기가 오른 붉은 얼굴의 시각적 심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강촌에 해 저물고 외로운 연기 피어오르는데, 객은 가랑비 속에 한가한 정취를 느낀다.’라 하여 전·결구에서는 강촌의 해 저무는 모습의 외로움을 객으로 표현된 자신에게 이입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관점의 이동이 기구에서 승구로 가면서 자연에서 자신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전구에서 절구로 가면서 다시 자연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구법의 운용은 고즈넉한 자연의 정취와 이의 흥취에 빠져있는 시적 자아의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이 작품의 성취도에 초점을 맞추어 위의 시편을 감상한 이유는 언어와 시상을 다루는 위백규의 솜씨가 여느 작가에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절구는 그 짙막함에 찰나의 감정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秀作을 생산하기가 쉽지 않은 양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시들은 시상의 전개가 매끄러우면서도 언어의 사용이 깔끔하고, 특징적 순간과 풍경을 포착하여 독자의 공감과 감수성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음은 그의 작가적 역량을 확인시켜 주기에 족하다. 더욱이 이 세 편의 시들이 10세 이전에 지어졌다는 것은, 위백규의 명민함을 증거해 주고 있다. 계속하여 律詩를 보기로 한다.

山到懷州氣益全	산은 회주에 이르러 기가 더욱 온전해졌고
扶輿清淑此蜿蜒	산의 맑은 기운이 여기에 서려 있네.
望中壺丈三千里	방장산 삼천리가 바라보이고
物外風烟八萬巖	세속 밖의 풍경으로는 팔만봉이 펼쳐 있네.
嵌窟龍藏雷雨動	굴속에 용이 숨어 있어 우레와 비가 동하고

石棧雲霽月星懸 돌사다리에 구름이 걷히니 달과 별이 걸렸네.
靈區造化眞宰秘 신령한 구역에 조화의 참기능이 감추어져
自在天南極海邊 그대로 하늘 남쪽 먼 바닷가에 있네.

「詠天冠山呈久庵先生」¹¹⁶⁾

古姿幽韻出天然 예스런 모습과 그윽한 운치가 자연스럽게 나와
特地風光斐几前 특별한 풍경이 조출한 궤 앞에 보이네.
未禁暗香恒漏泄 은근한 향기가 항상 새어 나옴을 금하지 못하고
好看淸影自團圓 맑은 그림자 스스로 단란함이 보기에 좋네.
芳隣剩接詩書架 좋은 이웃에 시서의 서가를 넉넉히 접하니
花意留從造化緣 꽃의 뜻이 조화의 인연을 오래 따랐네.
氣味但教同處覓 정취를 다만 같은 곳에서 찾게 한다면
園松階竹喜雙全 정원의 솔과 섬들의 대 둘이 온전함이 기쁘네.

「溪上次蔡上舍季能盆梅韻」¹¹⁷⁾

율시가 절구와 대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對偶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工對, 隣對, 寬對 등으로 이루어진 이 대우는 또한 작가가 시어의 음성적 자질과 의미적 자질을 얼마만큼 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냐의 표지가 된다. 그래서 위의 두 작품은 특히 對偶가 잘 짜여 있는 예를 선별하였다.

첫수 「詠天冠山呈久庵先生」은 천관산에 대하여 읊은 시를 윤봉구에게 드린 것으로 천관산의 웅장한 형상을 그리고 있다. 首聯에서 ‘산의 기가 온전해졌다’는 표현이나, ‘맑은 기운이 여기에 서려 있네’라는 표현은 천관산의 신비로운 자태를 형상화한 것으로 산의 풍경묘사가 군더더기가 없다. 함·경련은 대구가 절묘하다. 함련은 ‘삼천리가 바라보이고’와 ‘팔만봉이 펼쳐 있네’가 경련은 ‘굴속의 용과 돌다리의 구름’이 ‘우레와 비, 달과 별’이 짝을 맺은 것이 자연스럽다. 미련은 천관산의 수려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두 번째 작품 「溪上次蔡上舍季能盆梅韻」은 채상사 계능이 지은 분매시를 차운한 것으로 매화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표현하고 있다. 수련에서는 매화의 자태를

116) 『存齋全書』 上, 卷之一, 詩, 20면.

117) 위의 책, 같은 곳.

형상화하고 있는데 그 묘사가 섬세하다. 頷聯에서는 매화의 조용한 향기와 청초한 그림자를 대응시켜 첫머리에서부터 대를 이루며 매화의 이미지를 압축해 내었다. 首聯·頷聯에 비해 頸聯의 대는 다소 평이하기는 하지만 사군자 중 하나로서의 고고한 매화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미련의 마무리는 표현된 내용이 재미있다. 首聯·頷聯·頸聯에서 형상화한 매화의 향기와 취미와 대등한 것으로 松과 竹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매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여운을 운치 있게 표현해 내고 있다.

이밖에도 위백규는 매화를 소재로 하여 15수의 연작시를 남겼는데, 매화를 주제의 물상과 연관지어 시제로 한 것도 특이하지만, 다양한 면모로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다음 세 작품을 통해 위백규의 매화에 대한 취향을 알 수 있다.

步庭繞古梅	뜰을 거닐며 오래된 매화를 감돌고
入室望古梅	방에 들어와 오래된 매화를 바라보네.
傍人來相問	옆 사람들이 와서 묻기를
何事戶常開	무슨 일로 문을 항상 열어 두는가?
	「梅室」 ¹¹⁸⁾

牽開風自暢	걷어 여니 바람이 저절로 통하고
短齋月不遲	낮은 서재엔 달이 더디지 않게 떠오르네.
宜風復宜月	바람에도 좋고 또한 달에도 좋은데
偏與古梅宜	유난히 오래된 매화와 어울리네.
	「梅簷」 ¹¹⁹⁾

晨興濯清泉	새벽에 일어나 맑은 샘물에 씻고
午煩飲清泉	한낮에 답답하면 맑은 샘물을 마시네.
頻頻來又去	빈번히 왔다가 또 가니
多情古梅前	다정한 오래된 매화 앞이라네.
	「梅泉」 ¹²⁰⁾

118) 위의 책, 卷之一, 詩, 2면.

119) 위의 책, 같은 곳.

120) 위의 책, 卷之一., 詩, 3면.

이 세 작품에 등장하는 매화는 모두 ‘古梅’이다. 첫 번째 작품에서는 심지어 기·승구 모두 ‘고매’를 등장시켜 뜰과 방안 모두 ‘고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내외의 ‘고매’에 흡족해하는 모습은 전·결구의 서술문을 문답식으로 바꾸어 도치시킨 부분에서 읽어낼 수 있다. 보통 오언절구 안에 같은 어휘가 중복해서 사용되지 않음을 감안할 때, ‘고매’가 두 번 나오는 특이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고매’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작품은 매화와 주렴을 연관지어 시제로 하였다. 주렴을 걷어 여니 바람은 저절로 통하여 시원함을 주고, 처마가 감싸고 있는 서재 또한 달빛이 그리 더디지 않게 비춰주고 있다. 따라서 바람과 달빛은 전체 시를 이루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작품 속 화자는 그러한 두 요소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유독 고매만이 좋다고 하였다. 즉, 시의 중요한 매개체를 내놓은 이유는 결국 고매를 은연중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작품은 매화와 샘을 연관지어 시제를 <매천>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시제에 알맞게 기·승구에서 ‘清泉’이라는 어휘를 사용해 샘물의 맑음을 연상하게 하였다. 작품 속 화자는 그 맑은 샘물에 세수를 하는가 하면, 더운 한낮에는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기도 한다. 이 시에서 ‘청천’의 역할은 곧, 두 번째 작품의 바람과 달빛과도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바람과 달빛이 중요한 시적 인자였음에도 고매보다 못했던 것처럼 화자에게 있어서 ‘청천’도 고매보다는 못함 존재임을 전·결구에서 알려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위백규는 매화시에서 ‘고매’를 자주 등장시킴으로서 매화에 대한 취향을 알게 하는데, 결국 현실 속에 있는 매화이지만 현실과 멀리 격리하고픈 욕구의 표출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또한 매화를 다양한 면모로 표현하였는데, 다음은 ‘凌寒春信’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梅好雪中看	매화가 눈 속에 보기가 좋다는 것을
人人誰不說	사람마다 그 누가 말하지 않는가?

珠鳳與玉龍 주봉과 옥룡 같은 모습이
 磻谷獨有雪 반곡에 홀로 눈이 있는 듯하네.
 「梅雪」¹²¹⁾

매화는 곧 봄을 알리는 시초이다. 암울한 시기를 청산하고 희망과 광명의 세상을 회구하는 시인들이 매화를 즐겨 문학 속에 표현하였던 것도 매화의 이 같은 상징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칼날 같은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이겨 봄이 되도록 참았다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는 압박과 검제의 고난을 이기고 해방과 자유의 그날을 고대하는 선각자의 형상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이다.

위 작품은 이렇듯 봄을 알려주는 전령사로서 매화를 표현하고 있다. 먼저 기·승구에서는 눈 속에 핀 매화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경탄할 것임을 직설적으로 풀어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전·결구에서는 눈 속에 핀 매화를 ‘주봉’과 ‘옥룡’이라고 하여 상징화시킴으로써 매화의 원래 모습을 대신하였다. 봉황과 용은 그 자체에서 신비로움을 내포하고 있는데, 둘 모두에 구슬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임으로써 귀한 보물의 이미지를 연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봉’과 ‘옥룡’과 같은 모습을 한 매화는 ‘반곡’이라는 곳에 있는 눈과도 같다고 하여 속세에서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였다.

다음 두 작품은 ‘俗外佳人’의 모습으로 매화를 표현하고 있다.

玉映光皎潔 옥이 비추니 빛이 하얗고 깨끗하며
 梅窓影婆娑 매화 문창에 그림자 너울너울 춤을 추네.
 世人應不識 세상 사람들 아마도 알지 못하리니
 月色多吾家 달빛이 나의 집에만 많네.
 「梅月」¹²²⁾

霜重風撼撼 서리가 질게 내려 바람이 쌀쌀하고
 蕭森態又豪 쓸쓸한 자태가 또 호기롭기도 하네.

121) 위의 책, 같은 곳.

122) 위의 책, 같은 곳.

花蕾團已紫 꽃봉오리가 둥그렇게 이미 붉어졌으니
 眼暗尙認高 눈이 어두워도 오히려 그 고상함을 인정하네.
 「梅霜」¹²³⁾

첫 번째 작품은 매화와 달빛이 조용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비추고 있는 주체는 달빛이고, 비추임을 입고 있는 것은 매화이다. 옥 같은 달빛이 매화를 비추어 희고 깨끗함이 더욱더 빛나서 창가에 뻗은 매화나무 그림자가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듯하다고 묘사하였다. 작품의 화자는 이러한 광경을 자신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세속적인 모습에서 멀리 떨어지고자 하였다.

두 번째 작품은 서리에 맞은 매화의 모습을 현상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절구에서 ‘눈이 어두워도 오히려 고상함을 인정하네’라고 함을 통하여 속외의 이미지를 나타내려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매화를 시의 소재로 삼은 것은 멀리 『시경』의 「標有梅」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 후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인들은 사군자의 하나인 매화를 소재삼아 다양한 모습으로 매화를 그렸다. 시기적으로 이른 봄철에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을 알려주는 진령사로 인식하기도 하였고, 그 자태의 고고함 때문에 탈세속적인 이미지로 승화시키기도 하였다. 위백규의 매화시도 이와 같은 맥락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위백규도 사대부적인 의식에서 매화의 전통적 인식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매화시를 창작하였다.

이상에서 위백규가 절구에서도 시어와 시상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였음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정격의 근체시를 지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작가라 할 만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로 나아간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의 제약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근체시 내부에서 질적 변화를 모색하며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는 위백규의 시는 역동적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23) 위의 책, 같은 곳.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그의 생활의 특수함이 배태되어 있다. 20대 후반에서 30대에 걸친 수학기 중에 그는 과거공부와 동시에 생활을 병행해야 했다. 따라서 그의 생활은 덕산과 방촌을 오가는 불안정한 생활이었으며, 덕산에 있을 때에는 재도론적 입장을 표명하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시들을 지었다면, 방촌에서의 어쩔 수 없이 보고 겪게 되는 현실은 그로 하여금 민생현실을 다룬 시들을 짓게 하였다.¹²⁴⁾

「贈別蔡季能」도 이러한 의식 하에 쓴 시로서 역시 이 시기의 작으로 보이며, 그 형상성이 뛰어나 옮겨보기로 한다.

鎮川冠山南北州	진천과 관산은 남북 먼 고을
溪上逢迎若萍浮	병계에서의 만나고 헤어짐은 부평초와도 같네.
好是襟期相照地	좋은 것은 흉금의 기약이 서로 비추는 경지이니
兩鄉明月卽青眸	두 고을의 밝은 달은 바로 푸른 눈동자이리.

「贈別蔡季能」¹²⁵⁾

진천 사람 채백휴에게 준 시로서, 덕산에서의 만남이 서로 기약하기 어려운 정황임을 드러내고, 헤어져서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살아가자는 다짐으로 매듭지어져 있다. 달을 볼 때마다 서로를 생각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특히 두 고을의 밝은 달이 자기들의 눈동자일 것이라는 비유는 참신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처지를 부평초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덕산 수학은 만나고 떠나고를 반복하는 다소 불안정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개가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 굴척하는 기간이 더 많았고, 이러한 처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酬唱 또한 다반사로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친구현에게 준 격려의 시 「留屏溪 贈申斯文有道」, 고향에 돌아가는 동학들에게 준 「金溪縣衙 別宋斯文 網汝 洪斯文 克念」 등이 더 있다. 이러한 증별시들 외에 덕산이나 京師, 기타 赴學 길을 오가는 도중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이는 기행시로 33세 때의 「詠馬耳

124) 본 항과 이하의 기술은 김석희,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의 85~110면까지를 주로 참고하였음.

125) 『存齋全書』 上, 卷之一, 詩, 16면.

山」을 위시하여 「扶餘懷古」 등이 있다.

이 시기의 또 한 부류는 장천재 부계당에서의 심상한 일상을 그린 시들이다. 33세에 지은 「立春」, 34세에 지은 「訪幽居」, 37세에 지은 「贈別任性汝」 등이 그것이다. 立春은 「立春帖」의 慣性을 따라 지은 시이고, 「訪幽居」는 산중에서 꽃지 집을 하며 賞春하는 풍류를 읊은 것이고, 「贈別任性汝」는 멀리서 장천재를 찾아왔다 돌아가는 벗을 전송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들보다 장천재 생활의 실감을 더 선명하게 형상화한 시들은 「九月獨宿俯溪堂」, 「山中」, 「山中雨」 등인데, 이들 작품도 34세에 지은 「訪幽居」와 37세에 지은 「贈別任性汝」 사이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 30대 중반 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九月獨宿俯溪堂」은 가을이 깊어가는 부계당의 禪趣에 가까운 靜閑을 잘 그렸고, 山中은 장천재의 삼월 春愁를, 「山中雨」는 비 내리는 산중의 生動을 여실히 그리고 있다. 방촌에서의 생활을 근거로 쓴 이 시는 이념적 입장과는 거리가 멀며, 卽景을 노래하고 있을 뿐이다.

石灘輕噴玉	바위틈에 흐르는 물은 가볍게 옥을 뿜고
林霧細隨風	숲의 안개는 가늘게 바람을 따르네.
藥圃多春事	약밭에 봄 일이 많아
臨階喚小童	섬돌에 임하여 어린아이를 부르네.

「山中雨」¹²⁶⁾

이후 위백규는 농촌사회의 정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해당 시들의 작품세계에 농촌이 지닌 고유한 성격을 가미시켰다. 이런 유형의 작품에는 관념적이거나 음풍농월적인 태도로 농촌생활을 노래하던 기존의 시풍을 넘어서서, 농촌의 실제 정경을 형상화하며 그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쓰인 위백규의 시에는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시인 자신의 고통과 일치하고 있으며, 부정과 비리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토해내고 처연한 백성들의 삶을 보고 뜨거운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제의

126) 위의 책, 卷之一., 詩, 1면.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점차 그의 근체시가 관념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현실적인 삶의 장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冷窓疎烟煮赤楡	차가운 문창 성긴 연기에 붉은 느릅나무 끓이니
野人生活盡堪吁	시골 사람들의 생활이 모두 탄식할 만하네.
如今國乏三年積	지금까지 나라에 삼년 적출이 없으니
肉食諸君念也無	육식하는 제군들은 생각을 하는가 아니하는가?

「楡根」¹²⁷⁾

枯苗抽芒纔覆阡	마른 싹이 까끄라기를 내밀어 겨우 논두렁을 덮었는데
賊風螟雨日相連	해로운 바람과 명충 떼가 내려와 날로 이어지네.
只應肉食憂民食	아마도 관리들이 백성들의 식량을 걱정할 것이니
未必山人愁不眠	꼭 산인만 근심하여 잠 못 이루지는 않으리라.

「苦旱」¹²⁸⁾

첫 번째 시 「楡根」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느릅나무 뿌리만 끓이고 있는 농민의 한탄스러운 생활을 묘사하면서 삼년 가뭄 속에서도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는 관료들을 비판하고 있으며, 두 번째 시에서는 말랐던 싹에서 나온 까끄라기가 겨우 논두렁을 덮었는데 해로운 바람과 명충 떼가 연일 이어져 고통 받고 있는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의 현실을 토로한 시는 이 시대 문인이라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 시에는 고통 받는 백성에 대한 爲民意識이 표출되어 있으며, 빈궁에 대한 농부의 푸념이 절절히 배어 있다. 이러한 시의 특징은 내용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위백규의 시는 가뭄에 대한 농사꾼으로서의 심정을 체험에서 우러나온 질퍽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근체시의 형식을 따라 對偶와 같은 형식적 요소를 맞추려는 노력보다는 푸념과 걱정 등의 하고 싶은 말을 일상의 언어를 구사하듯이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마치 두 명의 작가를 접하는 것처럼 이념을 추구하는 시와 가뭄의 고통

127) 위의 책, 卷之一., 詩, 13면.

128) 위의 책, 卷之一., 詩, 15면.

을 토로하는 시의 언어가 다르다. 이처럼 고통 받는 백성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 당대 현실을 비판한 시는 실학사상의 작가들에게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다산 정약용의 사회비판시를 들 수 있다.

不教黃犢入瓜田	송아지 오이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移繫西庭碌礪邊	서편 뜰 씨레 옆에 옮겨 매어 두었네.
里正曉來穿鼻去	이정이 새벽에 와 코 꿰어 몰고 가며
東萊下納始裝船	동래 하남물을 이제 막 배에 싣는다 하네.

「長鬢農歌十章」¹²⁹⁾

위의 「長鬢農歌」는 다산이 유배지에서 농민들의 참상을 목도하고 기록한 시이다. 송아지를 里正이 와서 빼앗아 가는가 하면, 영남지방 稅米의 절반을 일본으로 수출한데서 생긴 ‘下納’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세미를 거두어들이고 있는 관리들의 횡포와 착취를 그리고 있다. 이처럼 관리들의 부패는 백성들의 삶을 황폐케 하여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생활의 주체로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위백규의 경험이 담긴 시는 다산 정약용의 사회비판적인 시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정약용은 당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초래된 현상 중에서 농민들의 토지상실과 이에 따른 궁핍화 현상을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보았다. 따라서 시에 있어서도 諸社會問題를 바로잡을 수 있는 道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 茶山의 확고부동한 신념이었다.¹³⁰⁾

무릇 시의 근본은 부자와 군신, 부부의 도리에 있으며, 때로는 그 즐거운 생각을 선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사모의 정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는 세상을 근심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언제나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며 안타까워 차마 버리지 못하는 뜻을 지닌 이후에야 바야흐로 시가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해에만 매달리면 시라고 할 수 없다.¹³¹⁾

129)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四, 詩.

130) 송재소, 「다산 정약용의 문학론」, 『대동문화연구』 18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1984, 147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을 통분해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옳은 것을 찬미하고 잘못을 풍자하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려는 뜻이 있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 그러므로 뜻이 확립되지 못하고 배움이 순정치 못하고 대도를 듣지 못하고 임금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며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풀려는 마음이 없는 자는 시를 지을 수 없다.¹³²⁾

다산의 이와 같은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약용은 시의 가치를 공리적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즉 제도상의 모순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고통 받는 사회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爲政者의 입장에서 또는 군이 정계에 몸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식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회상인 것이다. 반면 향촌의 지식인이었던 위백규의 시에는 경험의 주체로서의 진실성이 묻어 나온다. 이는 30대 이후의 위백규의 삶이 과거를 포기한 후 가정의 생활고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직접 밭을 갈아야 하는 농민의 삶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언어이다. 양반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과 위백규의 직접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의 노래의 차이는 근체시는 아니지만 그의 연시조인 농가구장에 은근히 언급되고 있다.

땀은 듣는 대로 뚫고 벗은 쥘 대로 찢는다.
 청품의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드시 머무는고¹³³⁾

이 시조에는 ‘땀은 떨어지는 대로 떨어지게 두고 햇볕이 따가워도 그대로 그을리며 일을 하는’ 농민의 고된 노동이 현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시원한 바람

131) 『與猶堂全書』, 卷一, 227면, 京仁文化社版 影印本, 「示兩兒」. 詩之本 在於父子君臣夫婦之倫 或宜其樂意 或導達其怨慕 其次憂世恤民 常有欲拯無力 欲調無財 彷徨惻傷 不忽遽捨 然後方是詩也 若只管自己利害 便不是詩.

132) 『與猶堂全書』, 卷一, 443면, 不愛君憂國 非詩也 不傷時憤俗 非詩也 非有美刺勸懲之義 非詩也 故志不立學不醇 不聞大道 不能有致君澤民之心者 不能作詩.

133) 『三足堂歌帖』, 「農歌九章」, 4장.

에 옷깃을 열고 긴 휘파람을 불며 일하고 있을 때'라고 하여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며 잠시 여유를 즐기는 휴식이 잘 표현되어 있다. 아울러 '어디서 길 가던 나그네가 땀 흘려 농사짓는 이 마음을 아는 듯이 쳐다보고 서 있다.'고 하여 사대부들에 대한 은근한 비판이 엿보이는데,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기분을 이해할 리 없는 양반이 마치 화자 자신의 기분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바라보는 데 대한 은근한 빈정거림이 나타나 있다. 이는 자연을 완상과 예찬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사대부들의 江湖歌道の 시와 다르며,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는 지식인의 현실 비판적 시와도 다르다.

이후 그의 시작형태는 더욱 일상생활과 밀착되어진다. 시어의 선택이나 주제 선정 면에서 더욱 진솔해지며, 시의 형태도 이러한 작가의식의 변화에 따라 취사 선택되게 된다. 이 장에서는 근체시의 내질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였으므로, 근체시의 형식에 따르는 작품 중 위백규의 노년에 지은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시는 빈곤의 굴레 속에 고통하고 있는 生計主體들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고 있는 시이다.

四千歲去一番春	사천 년 지나 한번 오는 봄인데
目下荒年未必嘔	눈앞의 흉년을 꼭 화낼 것이 아니네.
小麥團蒸兒意氣	밀가루로 둥글게 찐 떡은 자식놈의 의기요
弊衫牽補婦經綸	해진 적삼을 기운 것은 부인네의 솜씨네.
奴尋隱沽愆朝課	종놈은 몰래 술파는 집을 찾느라 아침 일을 빼먹고
婢撤殘籬備夕薪	종년은 낡은 울타리를 뜯어 저녁 땀감을 마련하네.
惟有老翁無事事	오직 늙은이가 일이 없어
坐看羲易岸烏巾	앉아 주역을 보며 검은 건을 높이 쓰고 있네.

「疊韻送義瑞單道別懷」의 제2수¹³⁴⁾

稱爲梅霖古或然	메림이라 일컫는 때는 옛적에도 혹 그러했는데
翻盆浹旬祇今年	만 열흘 동이를 뒤집듯이 한 것은 다만 금년뿐이네.
農民愁死其如歲	농민들이 시름에 죽을 지경이니 올해를 어찌할 것인가
大陸橫侵莫問天	대륙이 마구 잠기니 하늘에 물을 수도 없네.

134) 『存齋全書』上, 卷之一, 詩, 22면.

賢聖有言吾自慰	성현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달래보나
爨炊無計婦堪憐	밥 지을 계책이 없으니 부인네가 가련하네.
化翁戲劇應靡已	조화옹의 장난은 아마도 끝이 없으니
且喚家僮看防川	우선 아이를 불러 방천을 보게 하네.

「疊韻送義瑞單道別懷」의 제3수¹³⁵⁾

이와 같이 위백규의 시 언어는 점차 현실생활을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실질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위백규 노년의 시에서는 그 속에 향촌의 현실적인 고통과 문제점을 담아내고 있으며 생계주체로서의 체험과 정서를 진솔하고 담백하게 풀어내는 시어 속에 장년의 고통의 토로와는 다른 여유가 돋보인다. ‘중늠은 물래 술을 파는 집을 찾느라 아침 일을 빼먹고, 종년은 낡은 울타리를 뜯어 저녁 떨감을 마련하네.’라는 표현에서는 가난 속에서 어려운 삶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諧謔마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頷聯의 ‘牽補’는 원문에 ‘補牽’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작시법으로 보아 ‘牽補’로 하는 것이 바를 것 같아 바꾸었다. ‘성현의 말씀 있을 때 나는 어찌 지내련만 부엌거리 없거니 며느리가 가엾네.’라는 표현에서는 성리학적 이념으로서의 중심 가치를 지니고 있는 노학자의 모습과 동시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가여워하는 시 아버지의 긍휼이 느껴진다. 이와 같이 위백규의 근체시는 관념적인 정격의 시에서 점차 현실의 장으로 그 내용이 확대되며, 노년에 와서는 성리학의 이념뿐만 아니라 현실의 고통조차 포용하는 질적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이후 위백규의 시세계는 잡체시, 잡영시, 가사 등으로 형식면에서도 더욱 확장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시형식의 확장과 함께 소재나 표현 면에서의 확장도 피하게 된다.

135) 위의 책, 같은 곳.

2. 雜詠連作의 활용과 외연확대

42세 이후 위백규는 과거에 대한 뜻을 접고 샷갓과 도롱이에 호미를 갖추고, 書冊을 허리에 찬 궁경독서의 삶을 시작한다. 이 시기는 성리학적 이념과 사회경제적인 조건 사이의 간극과 괴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 향촌 사족층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며 몸부림쳤던 시기이자, 향촌의 생활 현장에서 겪게 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소화해 내며 투쟁력과 생존력을 획득해 나간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위백규는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수, 또는 수십 수를 상회하며 거침 없이 써나가는 잡영연작들을 지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위백규가 연작들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대외적으로 당시 문단의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문단의 주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로 ‘개성의 추구하고 변화의 시도’를 들고 있는 안대회는 이 시기에 이르러 個人抒情과 景物吟詠의 전통적 범주를 벗어나 현실의 다양한 부면을 드러내는 시가 속출하였으며,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가 실험된다고 보고하였다.¹³⁶⁾ 그 중 하나가 연작시이다.

잡영연작의 성격에 대한 안대회의 소견 역시 참조할 만하다. 그는 잡영연작이 조작 없이 손이 가는 대로 쓰기에 용이하며 일상사로부터 인정과 물태, 정치와 경제, 사회와 풍속 등 다양한 소재를 포괄하게 되었다고 보고, 주관적 서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곤 했던 기존의 절구와 변별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18세기에 이르러 작품 바깥의 사회와 현실이 작품 안으로 급속하게 삼투되었다는 말로도 들리며, 역으로 시인들은 다변화된 시대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의 견식과 체험을 자유롭고 포괄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었다고 부연할 수 있다.

잡영연작은 작가의 관심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기에 용이하며, 대체로 형식적 장치가 덜한 잡체시형을 선호하여, 어떤 상황과 욕구에 직면하였을 때 잡영연작이 활용의 대안으로 채택되게 된다. 雜詠이 역사적으로 그 유례가 있었을 뿐만

136)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45~47면 참조. 그 예로 역사와 인정세태, 풍속생활을 읊은 樂府詩와, 여향의 비속한 삶을 주제로 삼은 일군의 세태시, 그리고 작가의 독특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연작시를 들고 있다.

아니라,¹³⁷⁾ 작위적 배치와 시적 긴장으로부터 상대적 자유를 얻고, 삶에 대한 관조를 표상하기에 적합하며, 현실과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기에 용이한 양식이었다. 안대희의 지적을 빌리자면, 18세기 문인들의 삶에 대한 전면적 표현욕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잡영연작을 발전시켰을 것이라고 재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맥락을 따를 때에라야, 위백규의 잡영연작은 그 자신의 선택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위백규의 관점에서 잡영연작이 생산될 수 있었던 근거로, 포괄적인 전체로서 만물이 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미 전술했듯이 김섬지에게 보내는 글에서 그는 반드시 경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도를 깨우쳐야 옛 시를 이해하고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 분야에는 농사·장사를 비롯하여 속된말·거친 말 등 다른 사상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만물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위백규는 시의 외연을 폭넓게 설정했다. 특히 보리, 각종 식물의 뿌리와 같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농산물들을 시의 재료로 간주하였던 소재적 관점에서 볼 때, 잡영연작은 그 자신의 관심을 반영하기에 알맞은 형식이었다.

문단의 동향과 개인적 관점에 의거하여 잡영연작의 발생근거를 위와 같이 개관할 수 있을 때, 다음으로 잡영연작이 누릴 수 있는 의의가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잡영이 지니는 일반적인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위백규의 잡영을 검토하면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잡영은 무엇보다 자유로움이 장점이다. 다수의 작품을 이용하여 관심을 다양하게 펼쳐낼 수 있으며, 대체로 잡체시 형태를 활용함으로써 율시의 형식적 수사를 덜어내기 쉽다. 발상이 자유롭기 때문에 생각이 미치는 대로 연쇄적이고 산발적인 견해를 피력하기에 알맞다.

이와 같이 잡영연작의 성격을 개관할 수 있을진대, 위백규는 어떠했는가? 이제 그의 잡영연작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실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백규의 연작

137) 중국의 경우, 唐 錢起의 江行絕句 100수, 宋 範成大的 田家詩 칠절 40수 이후, 특히 邵雍의 수미음 135수, 주자의 연작절구 등 濂體에서 이러한 경향이 자주 발견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조선에는 金時習의 山居絕句 칠절 100수, 朴祥의 山居絕句 칠절 100수를 예시하고 있다.

시로는 보리연작인 「罪麥」(5언 84행), 「麥對」(5언 146행), 「靑麥行」(26행)과, 「年年行」 연작(1편 7언 100행, 2편 55행) 등이 있으며 救荒食物 연작과 「續首尾吟」(7언 75수)¹³⁸⁾이 있다.

각 작품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年譜에 의하면 위백규가 41세 되던 해 여름 社講會를 設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罪麥」과 「麥對」는 보리타작의 현장을 다루고 있어 음력 5월 경, 社講會 시행 한두 달 전쯤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죄맥」은 5언 84행의 잡체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보리를 피고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모양과 성품 등으로부터 타작해서 먹기까지의 좋지 못한 점을 매도하고 있으며 어느 틈에 술단지를 독점해 버렸다고 성토했던 뒤, 별 가치 없는 것이 비옥한 밭만을 요구하니 유배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¹³⁹⁾ 「맥대」는 5언 146행이나 되는 장편 잡체시로 시인과 보리의 문답 형태를 빌려 청빈한 삶의 가치를 내세운 작품이다. 「청맥행」은 풋보리를 잡아 춘궁기를 면하는 농촌 실정을 보리죽에 얹힌 애환 속에 담아 춘궁기의 농촌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 형태가 구를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다. 「年年行」은 一편과 二편, 두 편이 있는데, 일편은 7언 100행이나 되는 장형이며 이편은 55행으로 한시의 전형적인 형태를 뛰어넘는 과격의 시이다. 전자가 주로 농사의 애로나 수탈의 실상에 대한 사실적 기술이라면 후자는 그러한 노역의 애로나 수탈의 실상에 대한 자회를 표현하고 있다. 「속수미음」은 수미 쌍관의 잡체시로서 문학의 재도론적 효용성을 피력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와 자위의 자기 성찰, 비판적 현실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우선 보리연작인 「죄맥」, 「맥대」, 「청맥행」 중 일부를 차례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전략……

亂嚼牙觸沙 어지럽게 씹으니 어금니에 모래가 부딪히고

138) 당초에는 宋時烈的 「首尾吟」을 보고 차운한 130수였으나, 문집에는 7언 율시의 형태로 散逸되고 남은 75수가 전한다. 원래 「수미음」은 北宋의 道學處士 邵雍이 그의 원조다. 송시열은 소옹의 「수미음」 135수를 본떠 134수를 남겼고, 위백규는 송시열의 「수미음」에 130수를 차운한 것이다.

139) 본 항과 이하의 기술은 김석희, 『존재 위백규 문학연구』의 110~157면까지를 주로 참고하였음.

强咽舌逢戟
 味反猜膾炙
 類求喜臭鮮
 交合宜糟醬
 相得只毛藿
 入口已難耐
 下膈尤作惡
 泄氣助溲薰
 敗臭發面濕
 乖刺作痢泄
 促迫驅溷廁
 老人痿成痺
 健兒瘵脫髀
 只緣逼飢火
 猥令充枵腹
 上天豈降明
 與人作恒穀
 神農寧教耕
 俾民供糊喫
 也應丘氓愚
 亂喫仍成俗
 ……후략……

억지로 삼키니 혀가 창을 만난 것 같네.
 맛은 도리어 헛감이나 불고기를 시키하고
 냄새가 좋은 생선과 짝하자 하네.
 배합엔 조장이 마땅하고
 서로 어울리기에는 다만 모팍뿐이네.
 입에 들어가면 이미 건디기 어렵고
 가슴을 내려가면 더욱 사특함을 드러내네.
 방귀가 악취를 뿜어내니
 썩은 냄새가 발하여 얼굴을 덮어씌우네.
 잘못되면 이질 설사가 되고
 촉박하면 뒷간으로 달려가네.
 노인은 풍병이 나서 마비가 되고
 긴장한 아이도 야위어 뼈가 드러나네.
 다만 극도의 시장기에 시달림으로 인하여
 잘못 뜨러진 배를 채우게 하네.
 상천이 어찌 밝은 빛을 내려서
 사람에게 주어 일상의 곡식을 삼게 하셨습니까?
 신농씨가 어찌 경작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풀칠하고 먹는데 제공토록 했는가?
 아마도 초야의 백성들이 어리석어
 함부로 먹음으로 인하여 풍속이 되었으리라.

「罪麥」의 33~54행¹⁴⁰⁾

시가 쉽게 쓰여 질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작가의 묘사력과 해학적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 내용이 전혀 비밀스럽거나 난해하지 않으면서도 보리를
 묘사한 그 표현력에 탄복하게 된다. 시어의 경우에도 함축적 시어가 쓰이지 않고
 지시적 언어에 육박하게 된다. 시어가 사전적 의미의 지시어로 바뀌고 시상이 난
 해함과 비밀스러움보다는 평이함을 지향하며, 전체적으로 시가 산문화되는 것은
 이후 연작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작가의 입장에서선 오
 로지 전달하려는 메시지로 시상을 삼아, 그것이 명백히 이해될 수 있도록 시의

140) 『存齋全書』上, 卷之一, 詩, 6면.

용도를 바꾸어 놓았다. 할 말을 하면 될 뿐이므로, 그만큼 거기에는 시적 장치에 대한 배려가 급감하고, 시 자체의 아름다움이 등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시어의 사용도 이전의 재도론적 사상의 바탕에서 형식적 가치를 추구하였던 시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설사 기운’, ‘방구’, ‘뭍은 설사’와 같은 단어들은 시에 쓰기에 민망한 단어들이면서도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으며 오히려 시의 표현력을 풍부하게 가미시키고 있다. ‘상천이여, 어찌 빛을 내려 주셔서 사람에게 주어 양식을 삼게 하십니까, 신농이여, 왜 보리농사를 가르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목구멍에 풀칠하게 하셨습니까?’라는 구절에서는 보리의 무가치함에 대해 하소연하고 있는 위백규의 어조에서 일종의諧謔마저 느껴진다.

위의 시는 「좌맥」의 일부로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보리’라는 소재의 확장과 함께 시어 선택의 확장이다. 시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는 다르다. 특히 한시의 경우 사용되는 시어는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잡영연작으로의 형식상의 확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지 형식상의 변화는 아닐 것이다. 작가의 시세계의 확장은 그가 사용하는 시 언어를 통해 표출된다. 박제가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모두 시이다.’¹⁴¹⁾라고 말했듯이 조선후기 시의 소재는 확장되어 나아갔다. 이전에는 분명히 시에서 쓰야할 말과 대상이 존재했으며, 관념 속의 세계, 은유돈후한 도학적 자세, 강호자연을 노래했던 것이 조선조 유학자의 재도론적인 시세계였다면,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상황이 변모하기 시작한다.

……전략……

舍垢或受瑕	때를 머금고 혹은 티를 받아준 것이
信似不掩璜	진실로 패옥을 감추지 아니한 것 같네.
開心抱金矢	마음을 열고 금화살을 안고
苦口戒過傷	입이 쓰도록 지나치게 상함을 경계하네.

……중략……

珍饈修成疾	진기한 반찬도 지나치면 병을 이루고
薄饜貧不妨	박한 반찬은 부족하더라도 해롭지 않네.

141) 안대회, 『韓國 漢詩의 分析과 視角』,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50면 再引.

羹藿徵象著
 舖糟聞滄浪
 隱顯要不貳
 入心稱自臧
 人皆腹不潔
 蓄穢成疾痒
 我豈小人如
 厭然掩肺臟
 老癯與健瘦
 都由暑溽戕
 苟非泄內濕
 多見病膏肓
 不忍民命窮
 聊醫眼前瘡
 無實豈成俗
 有善斯可常
 ……후략……

국과 나물에 상아 젓가락을 경계하고
 지게미를 먹으면서 창랑의 물결소리를 듣네.
 은거하거나 현직에 있거나 두 마음을 먹지 않아야
 마음속에 들어와 스스로 잘한다고 일컫게 되네.
 사람이 모두 배가 깨끗하지 않아
 더러운 것이 쌓여 병이 되네.
 내가 어찌 소인과 같이
 염연히 폐장을 가릴 리 있겠는가?
 노인이 병나고 젊은이가 야위는 것은
 모두가 더위나 습기가 해침으로 말미암은 것이네.
 진실로 안의 습한 것을 새어나오지 않게 하면
 고향에 병든 것을 많이 볼 수 있네.
 백성들 목숨의 궁한 것을 차마 보지 못하여
 그저 눈앞의 종기를 다스리네.
 실지가 없으면 어찌 풍속이 될까?
 선이 있으면 이에 떳떳할 수 있네.

「麥對」¹⁴²⁾

「맥대」의 일부이다. 보리의 죄를 물은 「죄맥」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보리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있으며, 같은 상황을 「죄맥」과 「맥대」에서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이색적이다.

臭餽狗喜舐
 容殘鷄讓啄

쉰 냄새나는 보리밥은 개는 핥기를 좋아하지만
 남은 찌꺼기는 닭도 쪼기를 사양하네.

「罪麥」의 19~20행

鷄啄應不敢
 狗舐或謾藏

닭이 쪼기를 아마도 감히 못하니
 개라도 핥아서 간혹 부질없이 채우네.

「麥對」의 35~36행

142) 『存齋全書』上, 卷之一, 詩, 7면.

이 두 구절을 비교하여 보면, ‘닭도 쪼기를 사양하네’ 라는 시구를 통해 보리의 가치를 사정없이 비하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닭이 쪼기를 감히 못하니’ 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보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아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보리라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도 상반되는 느낌을 자유자재로 표현해 낸 ‘보리 연작’은 당시 자영농적 한사층의 계층의식을 토대로 자아의 갈등과 계층간의 사회 경제적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잡영체의 채택은 위백규로 하여금 시어 선택의 확장과 함께 자유자재로 그의 표현력을 구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러한 위백규의 시 세계의 확장은 「청맥행」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죄맥과」, 「맥대」에서 그나마 7언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맥행」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시 형식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家人碎青麥	집사람이 풋보리를 뺏아서
作糜供朝夕	미음을 만들어 조식을 받치네.
囊荷萬菑助其味	양하와 상추가 그 맛을 돕는데
三物凝成青碧綠	세 가지가 합하여 청벽록이 이루어지네.
忽疑猫睛寶玉盃	홀연 고양이 눈동자 같은 보석사발이
磨出火食國	화식 나라에 갈아 나왔는가 의심하네.
復疑葡萄酒新熟	또 의심하노니 포도주가 새로 익어
醞醅鴨頭色	삭아서 오리 머리 빛이 되었는가 하네.
措大家中安有此	가난한 선비 집에 어찌 이런 것이 있으리오?
先聞香臭雙鼻觸	먼저 향긋한 냄새가 두 코를 찌름을 맡네.
一匙二匙甘如蜜	한 술 두 술 달기가 꿀과 같고
盡盃便欲旋手脚	그릇을 비우고 곧 손과 발을 돌리고자 하네.
隣翁賀免窘	이웃 늙은이는 군색함을 면한 것을 하례하고
稚子求飽喫	어린 자식들은 배가 부르게 먹기를 구하네.
一室始吐氣	온 집안이 비로소 기운을 토하여
喧笑溢房屋	떠들고 웃음이 방안에 넘치네.
門外乞兒來	문밖에 거지가 와서
先來僅得沾一勺	먼저 온 자가 겨우 한 모금 적심을 얻었네.
後至頓足	뒤에 온 자는 발만 구르며

疾聲請活我	소리를 높여 나 좀 살리라고 청하네.
其奈無餘瀝	남은 국이 없는 것을 어찌하랴
臨門語乞兒	문에 임하여 걸인에게 말하네.
何不呼朋挈儔	왜 친구를 불러서
向紫陌朱門乞	큰 거리 부잣집에 빌지 않느냐?
犬彘厭粱肉	개와 돼지도 쌀밥과 고기를 실컷 먹나니
豈無活爾術	어찌 너희를 살릴 방도가 없겠느냐?

「青麥行」¹⁴³⁾

5언과 7언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가난한 삶 속에서 보리죽에 얽힌 농촌생활의 애환을 담아내고 있다. 쌀이 없어 풋보리로 보리죽을 쑤어먹는 실정에 보리는 ‘고양이 눈동자 같은 보석사발’과 같고, 보리죽의 향기는 마치 포도주가 새로 익어 향긋한 것 같다. 가난한 삶에 보리죽은 균색함을 면케 하고, 어린 새끼들을 배부르게 해 주는 고마운 양식이다. 이 궁색한 양식을 먹으며 온 가족들은 행복하게 웃는다. 이러한 상황에 비렁뱅이 아이들은 큰 거리 부잣집에 가서 구걸하지 않고, 보리죽이나마 양식으로 때우고 있는 가난한 집에 와서 구걸을 한다.

句를 구분하여 놓기는 하였으나 산문이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고전 한시의 형식을 벗어나 있다. 산문의 형식이다 보니 함축적인 시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지시적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격이 떨어지더라도 정겨운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왜 친구를 불러서 큰 거리 부잣집에 나란히 함께 가서 빌질 않느냐? 그 집엔 개들도 기장밥과 고기에 물렸다거니’라는 작가의 대화에서는 비렁뱅이 아이를 향한 연민과 함께 보리죽을 쑤어먹는 자신들의 처지와는 대비되는 부자 양반들의 처지를 은연중 비꼬고 있다. 비렁뱅이 아이들이 개들에게도 고기를 물리는 부잣집에 가서 구걸을 하지 않고 보리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자신들에게 와 구걸을 하는 모순적인 현실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年年行」²⁾에는 비참한 농촌의 현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年年旱	해마다 가뭄
-----	--------

143) 위의 책, 卷之一, 詩, 8면.

晝洫夜槁肌肉坼	낮에는 도랑 밤에는 두레박질에 살이 터지네.
年年雨	해마다 장맛비
耕草補堤腐襪襪	김매고 둑 수리에 비옷이 썩어나네.
年年蝗	해마다 멸구
擊水捕捉吞聲哭	물을 치며 잡는데 우는 소리 머금었네.
年年風	해마다 바람
百穀偏敗無全穫	백곡이 쓰러져 썩어 온전한 수확 한번 못해보네.
年年疫	해마다 역병
四時畏避如崩角	사철 두려워 피하기를 마치 봉각처럼 하네.
一年一災尙云得	한 해 한 재앙은 오리려 가하다 해도
五災兼備民安適	다섯 재앙 갖춰오니 백성은 어딜 가야 하나?
間年一災猶難活	한 해 걸러 한 재앙도 오히려 살아남기 어렵거든
年年五災胡此毒	해마다 다섯 재앙 어찌 이리 독할까?

「年年行」二의 (1~14행)144)

縱云五災俱	비록 다섯 재앙을 갖추었다 하나
無天不能獨	하느님도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不念民死盡	백성의 죽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면
天地爲空殼	하늘도 땅도 빈 껍질만 남게 될 것이네.
縱云億萬	비록 억만이라 해도
蚩蚩天不恤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들을 하늘이 구휼치 아니할까?
我則知天	나는 하나님을 아노니
天公寧不作	하느님이 어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寧不作兮彼天公	어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저 하느님이시여!
我不爲惡	나는 악을 행치 않았거든
胡令至此極	어찌 이다지 참혹한 데 이르게 하십니까?

「年年行」二의 (45~55행)145)

「年年行」二편에서는 다섯 가지 재앙이라 일컬은 가뭄(旱), 장마(雨), 멸구(蝗), 바람(風), 역병(疫)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농촌의 비참한 삶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다. ‘年年’이라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가난과 질병이 일상화되어 버린 농촌의

144) 위의 책, 卷之一., 詩, 35면.

145) 위의 책, 卷之一., 詩, 36면.

현실을 부각시켰으며, 다섯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年年이 겪어야 하는 극심한 고통을 표현해내면서 결국에는 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참혹성이 형상화되어 있다. 삶에 당면한 참혹한 현실을 성도함에 있어 율시의 작위적 배치와 형식상의 시적 긴장감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관조를 표상하고, 현실과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구구절절 토로하기 위하여 거의 산문에 가까운 외연의 확장을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위백규는 40대 이후 점차 근체시의 제작에서 벗어나 시적 형식과 내질을 확대 생산하게 된다. 연작시의 활용은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폐 사상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율시에 비해 자유로운 창작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세계의 내질과 외질의 변화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연작시의 활용을 통해 보리와 같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소하고 가벼운 사물을 시적 재료로 삼아 그렇게 가볍지 않은 내용을 표현해 내면서 현실적 삶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동질적 경험을 근거로 삼아 독자의 감수성을 끌어들이고 있다. 설령 독자를 배제한다고 해도, 작가와 대상의 거리는 매우 가깝고, 익숙하고, 친밀하다. 그 가까움이 현장성과 구체성의 문제의식을 증가시키고 있음은 물론이다.

3. 日常語의 포용과 作法의 변화

위백규의 시어 사용법은 다채롭고 중층적이다. 20대부터 60대까지 시적 변화과정에서 시어 사용의 일관된 구심점을 상정하기 어렵다. 함축적 시어와 지시적 시어, 정제된 것과 풀어 쓴 것, 문어체와 구어체가 뒤섞여 있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정리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 그도 처음 시학에 입문했을 때는 한시 일반의 작법과 원론을 따랐다. 소년시절과 20대의 당·송풍 근체시는 詩語의 정제, 修辭의 단련, 起承轉結과 首領頸尾聯의 배치, 격조 있는 구상 등 秀作이 되는 요건을 갖추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秀作의 제작이라는 전통적 범주에서 이탈하여 시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모색해 나갔다. 형상과 내용의 보편성, 작품의 탁월성을 지향하는 통념을 벗어나 시대적·개인적 특수성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로 시의 위상을 재조정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이 겪은 개별적인 체험과 견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지점에서 그의 시어는 불가피하게 현격한 변화를 수반한다.

이에 이 절에서는 그의 시가 시어의 원론적 용법으로부터 변모해 나가는 과정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선 까닭은 위백규 자신의 詩觀과 작시론이 시어의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살피기에 알맞고, 또한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부각시키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味反猜膾炙	맛은 도리어 헛감이나 불고기를 시기하여
類求喜臭鮮	좋은 냄새가 나는 신선한 물고기와 짝하자 하네.
交合宜糟醬	배합엔 마땅히 고추장을 쓰나니
相得只毛藿	서로 어울리는 것은 모팍뿐이네.

「罪麥」의 35~38행¹⁴⁶⁾

珍饈修成疹	진수성찬 사치한 밥은 화병을 이루나
薄饈貧不妨	나물반찬의 가난함은 해됨이 없다네.
羹藿微象著	미역국과 어울리면 상저를 징험할 만하고

146) 위의 책, 卷之一., 詩, 6-7면.

‘속된 말과 천한 말의 까닭도 많고 정세한테 통하지 못하면 옛 사람의 노래와 근심을 보지 못할 것이요.’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시들이다. 위의 시들에서 사용된 ‘膾炙(훗감과 불고기)’, ‘糟醬(고추장)’, ‘미역’, ‘좁쌀밥’ 등의 시어는 현실감을 더해준다. 이밖에도 ‘襄荷(양하순)’, ‘蒿菘(상추),¹⁴⁸⁾ ‘阿羅佛(아라불),¹⁴⁹⁾ ‘梔子(치자)’, ‘山茶(산다)꽃’, ‘浮萍(개구리밥)’¹⁵⁰⁾ 등의 다수의 예가 보인다.

위의 작품들은 근체시의 관점에서 秀作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작품들이다. 시상의 섬세한 안배는 물론이고, 시어의 함축과 고상한 서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일견 이들은 졸작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지만 일찍이 近體詩 秀作의 제작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가 이러한 폐단을 몰랐을 리는 없다. 즉, 이러한 성향의 작품들은 의도적으로 감행한 결과이지 우연한 실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러한 俚語를 거리낌 없이 전면에 노출시켰을까?

첫째, 적나라한 현장성의 획득을 들 수 있다. 이 시를 읽는 독자는 이것이 국적 불명의 시가 아님은 물론, 조선의 어느 시골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장면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작가 위백규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다. 자신의 일상을 바탕으로 현실감 넘치는 주제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 시대(18세기), 그 장소(장흥 방촌)에서 쓰이고 있는 일상 언어의 차용은 그 시대, 그 장소에서의 삶을 증언해주기에 매우 적합한 재료이다. 따라서 俚語의 사용은 시간과 공간의 특수성을 집약적으로 환기시키는 장점이 있다. 적어도 俚語를 생소한 것으로만 간주한다면, 이는 한시의 중세적·보편적 품격에 길들여진 편견에서 기인한 독법이라 할 수 있다.

147) 위의 책, 卷之一., 詩, 7면.

148) 위의 책, 같은 곳, 8면, 「靑麥行」.

149) 위의 책, 같은 곳, 1면, 「雙溪寺贈僧」.

150) 위의 책, 같은 곳, 16면, 「贈別蔡季能」.

두 번째는 평이하고 질박한 시어에 대한 선호를 들 수 있다. 일상 언어의 질박함을 택한 사례로서 칠언절구의 「葛根」과 오언절구의 「松葉」과 「假餅」을 보기로 한다.

形似神荼麵似桃	형체는 신령한 복령 같고 가루는 광량의 녹말 같아
鍊成瓊膏遞糜糧	갈아서 반죽을 만들어 죽거리를 대신하네.
仙人強解塵間事	선인이 억지로 진세의 일을 풀려고
故泄眞方救歲荒	짐짓 참된 비방을 누설하여 흉년을 구하네.

「葛根」¹⁵¹⁾

青青雪裏葉	푸르고 푸른 눈 속의 잎을
和粥見清真	죽에 타니 청진함을 보겠네.
始覺凌寒節	비로소 추위를 견뎌낸 절개가
方能活世人	바야흐로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알겠네.

「松葉」¹⁵²⁾

麩糠團作餅	밀기울로 둥글게 떡을 만드니
飢食易爲香	굶주릴 때에 먹으면 곧잘 향기롭네.
稚子強求飽	어린 자식이 억지로 배불리 먹고자
驕啼鬧室堂	버릇없이 울어 집안을 시끄럽게 하네.

「假餅」¹⁵³⁾

이 시들은 詠物詩와 유사하면서도 대상에 대한 가벼운 소묘에 그치지 않고, 생활세계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과 사회적 갈등을 아울러 드러내고 있어 소품들이지만 그 함의가 풍부하게 입체화되어 있다. 「葛根」은 칩뿌리의 생김새를 묘사하고 있으며, 흉년 시에 농민의 굶주림을 구해주는 보배로운 식물로 소개하고 있다. 「松葉」은 겨울에도 푸르게 피어 있는 솔잎의 절개를 칭찬하고 농민들을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假餅」은 밀기울 떡에 담긴 궁핍한 삶의

151) 위의 책, 같은 곳, 13면.

152) 위의 책, 같은 곳, 2면.

153) 위의 책, 같은 곳, 2면.

애환을 담고 있다. 특히 「假餅」에서는 어린 것이 배를 불리고자 때를 쓰는 장면을 첨가시킴으로 해서 궁핍의 실상을 더욱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황식물 연작시는 위에 제시한 작품들 이외에도 「茶菰」, 「榆根」, 「黃精」이 더 있다. 이러한 시들은 공통적으로 향촌사회의 궁핍상과 그것을 극복해 나오는 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구황에 관련된 민간의 정보를 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고유어나 일상적 구어의 사용 또한 위백규 시문학의 한 특성이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농가구장」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고유어와 일상적 구어의 사용은 현장적 실감을 구성해 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전체 길이가 길지 않기에 전문을 실어본다.

서산의 도들벗서고 구웁은 느제로내다
비뒹 무근풀이 뉘뻗시 짓터든고
두어라 츠레지운 닐이니 띤는다로 밭오리라

도롱이에 흙의걸고 썰곶은 검은쇼 물고
고동플 쫓머기며 깃물궤 느려갈 제
어더서 품진벗님 흙찌가자 흥난고

둘너내자 둘너내자 긴츄골 둘너내자
바라기 역고를 골골마다 둘너내자
쉬깃튼 긴스래는 마조잡아 둘너내자

쌈은 든눈대로 듯고 벗슨 썰대로 췌다
청풍의 옷깃열고 긴파람 홀리불제
어더서 길가는 소님니 아난드시 머무논고

헝기에 보리모 사밭의 콩넙치라
내밥 만홀세요 네반찬 적글세라
먹은뒹 혼숨줍 경이야 네오내오 다홀소나

돌라가자 도라가자 희지거단 도라가자

계변의 손발식고 흙의메고 돌아올제
어디서 우배초적이 흙씩가자 비아는고

면훤는 세드래 네드래요 일원벼는 피는모가 곱논가
오뉴월이 언제가고 칠월이 번이로다
아마도 하늘님 너희 삼길제 날위호야 삼기샷다

아희는 낙기질 가고 집사름은 저리치 친다
새밥녁을짜에 새 술을 길러서라
아마도 밥들이고 잔자블싸여 호흙계워호노라

취호느니 늘그니요 웃논이 아희로다
호튼순비 호린 술을 고개수겨 권홀째여
뉘라서 호르장고 긴노래로 츠레춤을 미루는고

「農歌九章」¹⁵⁴⁾

「농가구장」은 강호가도적 삶의 가장 전형적인 양식인 연시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 작품이 강호가도의 전통위에서 지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전통적인 연시조의 어떠한 유형에도 포섭될 수 없는 내용상의 이질성과 언어 조직의 특이성을 지니고 있어 강호가도의 특질로부터 본질적으로 떨어진 세계임도 또한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것은 종래의 사대부 시조가 위백규에 이르러 현격한 변모 양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요시적인 성격의 농가구장에서 쓰이는 언어적 특색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논의된 바와 같이,¹⁵⁵⁾ 중앙의 표준어가 아닌 전라도 지방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작품 전반에 한자로 표기한 문구는 전혀 없으며 농민이 생활속에서 사용하던 생경하리 만큼 평이한 생활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설명이나 묘사는 제거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그대로 옮겨다 놓았다.

154) 『三足堂歌帖』, 「농가구장」.

155) 이종출, 「위백규의 시조 ‘농가’고」, 『조선대학교 사대논문집』 제1집, 1970.
임주탁, 「위백규 ‘농가’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15집, 서울대 국문학과, 199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3권, 지식산업사, 1986.

이러한 고유어나 일상적 구어 사용이 반드시 위백규만의 특색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령 고유명사를 시어로 수용하여 낯설게 하기의 효과를 누렸던 海東 江西 詩派의 전례가 있다. 또한 李瀾도 『星湖僿說』의 ‘朝鮮方音’에서 조선의 언어가 詩料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18세기가 관념적 사고가 현실적 사고로 전환되던 시기이고, 현실과 유리된 추상적 영역이 감퇴해갔던 반면, 생활 현실에 착근하여 眞境을 묘사하는 경향이 이 시대의 주류로 부상하였던 때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도정에서 시어도 새로운 변화를 수반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대략 생활언어의 확대와 한국어의 발견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임형택이 지적한 대로,¹⁵⁶⁾ 이것은 민족주의와 현실주의의 흐름에서 중대하게 간주되어야 할 징표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백규가 민족적 자아가 뚜렷한 선각이었다거나, 현실주의를 문학적 대안으로 마련할 만큼 진보적인 작가였다는 과찬은 삼가고자 한다. 그러나 위백규의 일상 언어에 대한 유연한 접근은 바야흐로 시적 범주에서도 생활언어와 한국어가 재발견되어 나갔음을 알려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56) 임형택, 「실학사상과 현실주의 문학」,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2002, 창작과 비평사, 371~391면.

V. 시문학의 공간적 특성과 주제 의식

1. 공간적 특성

위백규는 거의 일평생을 장흥의 방촌일대에서 기거하였으며, 주로 그 중에서도 천관산의 장천재에서 학문적 소양을 닦았다. 윤봉구를 사문으로 정한 이후로는 윤봉구가 기거하였던 충청도 덕산에 기거하기도 하였지만, 궁벽했던 집안 형편 때문에 덕산에 오랫동안 기거하지 못하고 장천재를 오가는 생활을 해야 했다. 장천재에서의 생활은 그의 문학작품에 있어 큰 영향을 주어, 천관산이나 장천재에서 느꼈던 자연 현상 등을 시로 표현하였다. 먼저 위씨 일문이 기거하였던 방촌은 당시 위백규 스스로 ‘三僻’의 자의식을 느낄 정도로 주류 학문이나 문화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곳이었다. 이 안에서 위백규는 생활인으로써 농사일을 해야 했으며, 그가 누렸던 문화생활은 詩作등의 문학 활동을 하거나 드물게 일대의 산등을 유람하는 것이었다. 저술과 독서 또한 이를 논하고 계도를 받을만한 학문적 동료도 없었기 때문에 윤봉구가 타계한 이후에는 이곳에 머물면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달성한 것이었다. 이러한 위백규의 학문적·문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가 기거하였던 방촌의 공간적 특성에 의한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장흥사회는 그가 태어나서 성장한 곳이며, 위백규는 향촌 교육과 향촌 자율 개선안을 통하여 그 사회를 한 단계 높이고자 애썼다. 그가 거의 일평생을 기거하였던 장흥은 그의 삶의 무대이며, 그 핵은 그가 성장한 방촌 마을이었다. 또한 일생동안 학문을 닦아왔고 각종 저술을 펴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道場은 천관산의 발치에 있는 長川齋였다. 따라서 장흥 방촌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 위백규의 문학작품 속에 드러난 그의 활동무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먼저 위씨 일문의 생활터전으로서의 방촌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18세기 위씨 문중은 노론의 일원이었다. 위백규는 아버지 위문덕의 행적이나

자신의 평소 행적을 숨회하는 중에 벌열의 문에 투탁하지 않았음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계층적 단절의 현실 속에서 비타협적인 고고한 자세를 그들 스스로 의식적으로 견지해 가고 있었음을 강조하여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를 유지할수록 위씨 문중은 정치적으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이전에는 위백규의 집도 넉넉한 살림을 꾸려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고조부되는 현감공(1580~1656)이 건축한 위백규의 생가 가옥의 규모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현재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의 생가는 원래는 正堂 3칸, 夾室 좌우 각 4칸, 長廊 7칸으로 된 기와집을, 그후 조부 三足堂 世寶(1669~1707)가 을유(1905) 2월에 아래쪽의 터에 옮겨 지으면서 구조조정을 해서 祠堂 1칸, 正寢中堂 3칸, 西夾 3칸, 東夾 3칸, 前廊 5칸 마굿간2, 중문, 방, 마루방, 大門屋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규모는 당시의 여건으로 볼 때 큰 역사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비나 진호 등 부용인원의 규모를 알려주는 하나의 징표로서, 정열에서 세보에 이르기까지의 17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3대 동안은 위씨 일문이 비교적 요족하게 살았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¹⁵⁷⁾ 그러나 18세기를 거치면서 大家의 살림 규모는 점점 줄어 위백규의 세대나 그 자녀들의 세대는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나 생활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의 부친 영이재는 직접 농업 노동에는 종사하지 않았지만 가족과 노비의 노동력을 토대로 논밭 40마지기 정도를 자영하면서 손수 가정의 대소 살림을 주관해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 속에서 영이재와 위백규는 가족들의 희생 속에서 과거공부에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당시 향촌 사족층이 급제를 통하여 관직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해가 지날수록 가문의 궁핍화는 가속되어 갔다. 위백규가 부모를 여의고 나서 지은 사성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부친 영이재 위문덕의 살림규모와 생활방식을 알 수 있다.

157) 김석희, 『존재 위백규의 문학연구』, 이회문화사, 1995, 34면 참조.

가업이 소빈하여 무논이 겨우 스무 마지기 남짓하고 건밭은 그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비록 풍년이래도 교황하기에 부족하고, 흉년엔 장리쌀을 얻고도 지나기가 어려웠다. 내어놓고 이식을 취할만한 돈도 없었고, 의거하여 힘을 써볼 수 있는 재물도 없었다.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셨고, 줄함에 의거하여 분수를 맞추셨다.¹⁵⁸⁾

조세는 반드시 조심하셨고 요역에도 만홀히 하심이 없었다. 일찍이 토주에게 통하여 빈 적이 없었고, 향소에 구간한 일이 없었다. 일찍이 이속을 친압하여 관대한 일이 없었고, 귀양 온 손님을 사귀어 가까이 한 적이 없었다. 향인들의 칭찬과 비방에 마음을 통하지 않으셨고, 향교나 서원에서서의 다툼을 보시기를 더러운 불이 털까 염려하듯 하셨다. 어깨를 치며 옷을 잡아당기는 사림도 없었고, 눈을 흘기며 예이는 듯한 원망도 만들지 않으셨다.¹⁵⁹⁾

평생 손에 낫이나 호미를 잡으신 일이 없으셨다. 그러나 몸소 밭두둑에 나가 살핀 바의 경험으로 농업경영에는 스스로 모범을 이루셔서 그 마땅히 할 바를 하실 따름이셨다.¹⁶⁰⁾

이와 같이 부친 영이재는 극도의 근검절약을 통한 내핍생활을 체질화하였으나 그것은 스스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궁핍의 축적은 아들 대에 이르러서는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평생 손에 흙을 안 묻히고 가난한 선비로서 지낼 수 있었던 자신과는 달리, 그의 아들들은 스스로 쟁기나 호미를 잡고 직접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문사의 내력은 위백규로 하여금 방촌이 자신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산과 노동의 굴레의 터전으로 느끼도록 하였을 것이다. 존재는 당시의 사회가 자신뿐만 아니라 지방 선비나 일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생활고를 겪게 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축문 형태의 글로 자신의 처지를 술회하고 있다.

158) 위문덕, 『永而齋遺稿』, 卷之七, 「用財」, 家業素貧 水田僅餘二十斗 旱田又不及 雖豐年不足以交黃凶歲稱貸而猶艱 錢無出利之殖 財無拮据之贏 量入爲出依拙稱分.

159) 위문덕, 위의 책, 같은 곳, 「居鄉」, 租稅必謹 徭役毋慢 未嘗通謁於土主 于求於鄉所 未嘗狎款吏屬 交觀譎客 鄉人毀譽不以動心 校院爭憂視之 若澆 無拍肩執袂之交 無血視膚受之怨.

160) 위문덕, 위의 책, 같은 곳, 「治家」, 平生未嘗手執鋤耙 窮窺田畦 而佃農自有成範 爲其所當爲而已.

유세차, 갑오년 모월 모일에 생원 위백규는 천관산신에게 고하나이다.

……중략……

저는 이제 이미 불인을 막아내는 부자가 될 수가 없고, 또, 농사를 지어 쌀을 팔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위로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처자를 거느려 식구가 십여 명인데, 겨울에는 덮어도 추위를 호소하고 가을에는 곡식이 나도 배고파 울고 있습니다. 가문 날이나 굶은 날이나 신발도 없고, 밭을 갈려 해도 소가 없고 출입하려 하나 수레도 없고, 귀여운 아들과 어여쁜 딸들이 글공부나 길쌈에 전념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남종 여종도 나무하고 물 길는 일을 하지 못하니 조상의 제사를 때맞춰 지내지 못하고, 친한 손이 이르러도 대접도 못하며, 사돈이나 동서 그리고 족당들도 왕래하며 문안조차 할 수 없고, 세시의 절기를 당해도 스스로 차려서 즐길 수 없습니다. 부친이 올해 일흔이요 모친은 일흔 둘인데, 벼에다 나물국도 배불리 먹지 못합니다. 진실로 저로 하여금 숙맥도 분별 못하게 하였다면 또한 그만이었으나, 이미 성근 자식들은 세상일을 알고, 몸소 겪고 있으니 어찌 돌아보며 슬피 탄식함이 없으리까? 하물며 저는 무뢰한 흉년에 불우한 돌림병을 만나 세상에 알아줄 친구 하나 없으니 누구와 더불어 두루 몸을 바르게 도모하여 서툰게라도 의탁하여 살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구렁에 빠질 것을 단연코 의심할 바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안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당하면 즐겁지 아니할 것입니다. 진실로 신의 밝은 뜻을 알 수 없으니, 과연 저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161)

이 글은 유자로서의 덕망도 선비로서의 처신도 가난과 질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자회요 자탄이다. 이처럼 방촌에서의 그의 삶은 일생 辛酸의 삶이었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이와 같은 위백규의 심경은 다음의 시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稱爲梅霖古或然	봄장마라 이르나니 옛적에도 혹 있었네만
飜盆浹旬祇今年	열흘간을 동이를 얻어 붓듯 함은 올해뿐이네.
農民愁死其如歲	농민들 시름으로 죽는 거야 해마다의 일이나.
大陸橫侵莫問天	땅덩이 통째로 잠겼어도 하늘에 물을 길 없네.

161) 『存齋全書』 下, 374~375면. 某於今旣 不能爲富干不仁 亦不能畊田而販米 上父母下妻子 家眷十數 冬膜而呼寒 秋登而啼飢 旱無鞋 潦無履 耕無牛 出無束 愛子嬌女不得專文紡 單童兒婢 不能給樵汲 祖廬之祭 不能以時 親賓之至 不能以饋 姻婭族黨 不能來往問評 歲時伏臘 不能供具自娛 父今年七十母七十二 布衣無莞菜羹 不能誠使某菽麥不辨 則亦已矣 旣粗有知識徵諸世而驗諸躬 豈無反顧而噓噓者乎 況我有無賴之飢歲不虞之灾疢 世無知音 誰與爲周身謀本拙焉 托爲生自今 丘壑顧連者 斷乎斌疑 雖今顏氏子當此應 不能晏然樂焉而已矣 誠未知神明之意 果以某爲何如耶.

賢聖有言吾自慰	성현의 말씀 있음에 나는 어찌 지내련만
爨炊無計婦堪憐	부엌거리 없거니 며느리가 가엾네.
化翁戲劇應未已	조화옹의 장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니
且喚家僮看防川	또 일꾼을 불러 방천을 보게 하네.

疊韻送河義瑞單道別懷」¹⁶²⁾

이 시는 장마 속에서 고통받는 농민들의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정작 작자 자신은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현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선비들의 몫이요, 농사일은 일꾼들의 몫이며, 집안 살림은 아녀자들의 몫이다. 열흘 동안이나 내린 장마로 아녀자들이나 일꾼들이 손을 놓고 하늘을 원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만은 그래도 성현의 말씀을 궁구하며 자위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마를 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대한 성찰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방촌이라는 공간은 생활인으로서 위백규에게 고달픈 노동의 터전이었으며, 생계를 위한 자연과의 싸움을 지속해야 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존재는 그의 생활기반이 되었던 방촌에서 거의 평생을 기거하면서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의 세계를 이탈하여 현실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저술에 임했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시를 남겼다고 단정지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연이 위백규에게 생계를 위한 투쟁의 대상이며, 고달픈 터전이었던 것은 아니다. 장천재라는 공간의 특징은 위백규에게 있어 학문적·문화적 취향을 꽃피우게 한 곳이다. 특히 천관산이라는 공간은 위백규의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9세에 천관산에서 놀면서 지은 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천관산에 올라 술을 마시며 지은 시까지, 천관산은 방촌이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 기거할 수밖에 없었던 위백규에게 있어 포부를 심어주며 자연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었다. 지리산, 월출산, 내장산, 내변산과 함께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인 천관산은 산에 오르면 남해안 다도해가 펼쳐지고, 북으로는 영암의 월출산, 장흥의 제암산, 광주의

162) 『存齋全書』上, 卷之一, 詩, 22면.

무등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바다 쪽으로 제주도 한라산까지 어렴풋이 보인다고 하니 천관산은 실로 궁벽에 갇혀 살다시피 하였던 위백규에게 카다르시스의 공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천관산을 대하여 지은 위백규의 시들을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山籟引風生夜壑	산간의 소리가 바람을 이끌어 밤 골짜기에 일고
磬聲和月隱虛櫺	경쇠 소리는 달빛과 어울려 빈 문지방에 숨어드네.
須看感應皆由動	모름지기 감응은 모두 다 동으로 말미암음을 보라
然後方知靜不空	그런 뒤에야 비로소 정이 공이 아님을 알 것이네.

「宿冠寺贈詩僧」¹⁶³⁾

扶老登山興自豪	늙은 몸 부추겨 산에 오르니 흥이 절로 나서
石臺行酌恍仙醪	석대에서 잔을 돌리니 어렴풋 신선주와 같네.
男兒意氣何時豁	남아의 의기가 언제나 뜨일까?
坐間滄溟萬里濤	앉은 사이에 푸른 바다 만리의 파도가 보이네.

「冠山次曹斯文師學韻」¹⁶⁴⁾

위백규는 천관산에서 지냈을 때의 詩作이나 천관산을 소재로 한 시작에서는 생활의 고단함이 묻어나 있지 않다. 천관산에서 위백규는 그의 감성적 세계를 마음껏 펼쳐 내고 있으며, 천관산의 수려함에 취하여 일상에서 절제하였던 사나이로서의 기상, 군자로서의 기상을 토해내고 있다. 첫 번째 시 「宿冠寺贈詩僧」은 위백규가 천관산의 암자에 머물렀을 때, 중에게 준 시로 천관산의 밤 풍경을 뛰어난 묘사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산간의 소리가 바람을 유인하고, 이 바람이 풍경 소리를 내게 한 상황을 감응을 불러일으키는 動이라 하였으며, 밤에 비치는 달빛을 靜이라 하여 이 둘이 어우러진 밤 풍경이 감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겨 노래할 줄 아는 여유가 배어 있으며 또한 이를 고도의 묘사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시 「冠山次曹斯文師學韻」은 위백규가 노년에 지은 시로서 천관산에

163) 위의 책, 같은 곳. 13면.

164) 위의 책, 같은 곳. 18면.

올라 흥취에 취하여 사나이로서의 뜻과 기질을 노래하고 있다. 남해 다도해의 파도를 바라보며 석대에서 잔을 돌리는 그의 모습에서 사나이의 큰 포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장엄한 풍경들을 보면서 위백규는 어려서부터 천관산이라는 이상향에 올라 속세를 바라보며 남아의 의기를 노래했으며 노년이 되어서도 천관산은 항상 그에게 이상을 품게 해주는 공간이었다.

이상에서 위백규에게 있어 주요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방촌과 천관산의 의미를 그의 문학작품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두 공간은 각각 위백규에게 있어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서 그리고 실제생활과 분리된 이상향으로서 존재하였다. 그곳에서 위백규는 경작을 하고, 자연과 투쟁하며, 시를 짓고 자연을 노래하면서 자아를 형성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2. 주제 의식

조선후기는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이다. 경직되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신분제 사회가 서서히 동요되기 시작하고 빈부의 격차는 점차 심화되었다. 권세를 차지한 소수의 별열들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갔으며, 그 안으로 다른 세력이 침범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양반층의 일부가 실세하여 몰락해 감과 동시에 중인층이 성장하고 서민계층이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와 더불어 문학도 그 내용적·형식적 측면에서 이전보다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졌다. 신분제의 동요는 기존의 양반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신분적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위백규가 서 있던 곳이 바로 이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위백규는 일평생을 통해 양반으로서의 지식인, 그리고 농민으로서의 생활인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당대 수많은 士인들이 느꼈을 소외의식, 양반으로서의 자의식의 괴리를 위백규 또한 느끼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위백규가 선택한 것은 모순된 현실에 대한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개선책이라 볼 수 있다.

그가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당대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백규는 「만언봉사」, 「정현신보」와 같은 경제적 저술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실을 직시하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랄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비판의식은 50대 후반에서 60대에 들어 농업에서 물러나 그의 본업인 독서인으로 되돌아갔을 때에 구체적인 저술로 표현되게 된다. 60세에 집필하여 정조에게 올린 「만언봉사」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위백규는 국가의 이익과 백성의 편안함에 해가 되는 근본을 법이나 제도 자체 또는 경제적 제 양상들보다는 정치적인 해이와 기강의 문란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르는 각종 무질서를 회복, 재확립하는데 정치적 이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개혁,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관료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 관료조직과 지방 제도의 개선, 새로운 관료 충원제도와 인사제도. 임명, 문벌의 폐단,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비양심적인 관료들의 중간착취 등에 대한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정책, 토지정책, 지역 민방위정책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비판의식은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성토했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촌사회 생활인의 일원으로서 동시에 지식인으로서 해결책과 개선책을 제안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는 향촌의 지식인으로서 향촌의 질서와 규율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가문의 자제들을 교육 시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렇듯 그의 현실 개선책과 비판적 의식은 성리학적 학문의 깊이에서 비롯되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위백규는 세상을 정확히 바라보대 세상에 물들기를 거부하였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것은 단순히 그의 가문이나 경제적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20여 년간 京鄕을 오가면서 단 한번도 高門에 投託하지 않고 고고하게 經蠹書蟬한 것을 자부하여 긍지로 삼았다.

이러한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비판은 그의 비타협성과 더불어 생활인으로

서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몸소 경험하면서 진실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가 겪은 가문의 열악함과 농사일의 고단함, 그리고 가난과 질병, 이러한 실질적인 역경들은 위백규로 하여금 시에 있어서 正格의 틀을 넘어서 외연과 내연을 모두 확대시킨 시문학으로 성숙하게 하였다.

그가 일생동안 남긴 시 작품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리시, 자연시, 생활시, 매화시, 여도시” 등이 있지만, 그의 실학사상과 더불어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 “생활시”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도 그가 남긴 생활시를 중심으로 시문학에 나타난 주제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위백규의 시문학에는 농촌의 고단하고 비참한 생활상을 여실히 토로하고 있지만 이에는 농촌에 대한 긍휼과 애뜻함이 녹아 있다. 이는 곧 자신의 삶에 대한 애뜻함이며, 동병상련의 애뜻함이다.

내 집은 본디 가난하여 거친 밭 한 섬지기에 거뒀들이는 것이 황량했고, 나 또한 계책이 졸하여 힘써 일하지 않으면서도 위로는 사당을 지키고 다음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밖으로는 손님과 친구를 접하랴 출입왕래에 대응하랴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기에 천신만고하니 쌀농사 보리농사에도 양식을 이어대지 못하였다. 너는 여자의 몸으로 내게 자녀로 태어나 그 고달픔과 주름 번뇌가 말하지 않아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친정집에서의 스물 한 해, 한 번도 세 끼의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한 짓가락의 생선 고기를 집어본 적이 없이 절구질에 물 길기, 불 때기, 빨래와 설거지, 온갖 노고에 밤낮이 없었다.

……중략……

다만 불씨의 윤회시설이 만약 허탄한 것이 아니라면, 원컨대 다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자식이 되고 너의 아버가 되어서, 이 같은 회한의 심정으로 힘을 다해 밥을 갈아 쌀밥에 고기반찬, 숨 두둑한 옷과 이불로써 내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고, 너로 하여금 겨울에도 죽을 먹지 않고 여름날에도 세끼를 거르지 않게 하고, 봄이면 쭉뚝을 해 주고 가을에는 청을치신을 사 주고, 생일날은 생선 굽고 국을 끓여 먹고 더불어 집안에서 즐거이 놀 수 있다면 세상의 경상과도 바꾸지 않으리니, 이 오직 내 소원이다.

「祭亡女文」¹⁶⁵⁾

165) 『存齋全書』 下, 卷之二三, 「祭文」, 413면. 吾家素貧 薄田一石 所入荒涼 我又計拙 靡有拮据 上守先廟 次奉爺孃 外接賓友 次應往還 量入爲出 千苦萬辛 冬稻夏麥青黃未交 汝以女子 子生於我 其

이 글은 37세의 젊은 나이로 죽은 외동딸의 영전에 올린 「祭亡女文」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40대 이전에는 식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과거공부에 매달려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특색은 당대 士人들의 존재적 고뇌를 반영하는 것으로 출사길이 열려 있지 않아 관직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농사꾼처럼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지도 못하는 신분적 갈등 속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인과 자식들의 희생, 특히 고생만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외동딸에 대한 위백규의 마음은 남달랐을 것이다. 이러한 회한은 다음 생에서 다시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나 단란한 삶을 누리자는 그의 소망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이와 같이 회한과 위기의식은 위백규의 내면에서 가장 깊숙한 자리에 위치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다. 만년에 지은 그의 시에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반성적 성찰로 이어지고 있다.

虛過六十一年春	헛되이 예순한 해를 보내고
孤負總明男子身	홀로 총명하던 남자의 몸을 저버렸네.
到老全知曾不孝	노년에 이르러 일찍이 불효한 것을 알겠고
看書每覺我非人	책 볼 때마다 사람노릇 못한 것을 깨닫네.
事爲半是名場誤	일은 반이나마 과거장의 이름으로 그르쳤고
朋友空憑戲語親	벗은 헛되이 말놀음으로 친했다 뿐이네.
仍復醉迷其奈爾	이에 다시 술이나 취해 다녀 어찌겠는가?
從今節飲養天真	이제부터 덜 마시고 천진을 기르리라.

「寫懷」¹⁶⁶⁾

이 시에는 빈핍한 가정에서 과거공부에 매달려 허송해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辛楚飢惱 不言可知 在室二十一年 未嘗噉三合飯羹 一箸魚肉 而春汲炊澣滌之勞 匪日匪夕 ……중략…… 但佛氏輪迴之說 若非誕妄 則願復爲子於吾父吾母 願復爲父於汝 以此梅心竭力耕田 飯稻鱸魚 厚絮衣衾 以養吾父母 仍使汝冬日不餓 夏日三飯 蒸春艾餅 買秋葛屨 生日炙魚煮羹 與之嬉戲於門欄 則世間卿相不與易也 惟是願也.

166) 위의 책, 卷之二十二, 「然語」, 寫懷. 381면..

후회가 드러나 있으며, 가족들의 희생에 대한 미안함과 가족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짙게 깔려있다. 이 시의 첫 번째 구에는 ‘헛되이 61세를 살았다’라고 하여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면적 성찰과 더불어 그의 시에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을 향한 긍휼과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 이러한 비판 의식은 지독한 현실의 고통을 매년 겪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애정이요, 연민의 정이다. 하지만 위백규의 농민에 대한 연민과, 당시 잘못된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당대의 수많은 사인들이 느꼈던 牧民의 꿈을 이루지 못한 자괴감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기의 士人인 유경중의 시를 살펴보면 정치권에서 소외된 양반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民有工商事	백성들에게는 공업과 상업의 일이 있어
皆得有執業	모두들 종사하는 직업이 있네.
我獨坐而食	나만 홀로 앉아서 먹으며
農事猶不習	농사도 오히려 익히지 못했네.

「閒居雜詠」¹⁶⁷⁾

非工非賈亦非農	공인도 아니고 상인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니
一蠹人間老病翁	세상에 한 줌 같은 늙고 병든 늙은이라네.
曾與故人兼笑羨	일찍이 친구와 함께 웃으며 부러워했으니
佛尊安享睡山中	불존이 편히 누리며 산중에서 조는 것을.

「有感」¹⁶⁸⁾

위의 유경중의 시는 각각 24세 무렵과 60세에 지은 것이다. 이 시들에는 양반으로서 위정자의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생활인으로서도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그의 위기의식이 생애 내내 잠재된 것이었으며, 이것이 일평생 그를 억누르는 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수를 보면 士農工商의 신분 사회에서 사람들은 누

167) 유경중, 『海巖稿』, 卷一, 閒居雜詠.

168) 유경중, 위의 책, 卷十, 有感.

구나 자신의 직업을 갖기 마련이라는 내용이 이 시를 읽는 전제이다. 그도 이것을 알고 있으며, 시를 쓰고 있는 현재적 시점에서 자신이 士라는 의식도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시의 궁극적 의미는 그가 士人이면서도 士人의 전망에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사인으로서 차마 상공업에 종사할 수는 없더라도, 그의 스승 이익이 그랬듯이 農業에는 종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나, 그는 士와 農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못하고 있다. 준거집단에 대한 상실감의 표현이다. 이러한 상실감은 당시 대부분의 사인 계층이 겪을 수 있었던 경험이며, 이러한 회의적 태도는 그들의 생활인으로서의 무능함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위백규는 기존의 사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그의 집안의 내력이 그러하듯이 소외된 양반으로서,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의 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촌에 내려와 궁경독서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士와 農의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일반적인 사인의 모습과는 달리 士로서 農에 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의 시, 특히 궁경독서기에 지은 생활시들 속에는 쟁기와 호미를 직접 들고 가난과 싸워야 했던 솔직담백한 그의 심경들이 녹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인으로서의 역할과 수련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걸쳐 저술과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문중의 지도자로서, 향촌사회의 일원으로서 성리학적인 견해를 유지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위백규의 자아정체성의 혼란은 기존의 사인들이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과 공통되는 면이 있는 동시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백규의 혼란의 양상은 그의 한시 작품인 “보리 연작”에서 잘 드러나 있다. 보리의 성격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보리 연작 속에는 위백규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으로서 보리를 정죄하는 자아와 보리를 옹호하는 자아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보리 연작 「최맥」 중 피고의 신분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하고 있는 서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號穀數爲百	곡식의 이름을 말하자면 수가 백이나 되지만
可憎者惟麥	밉다고 할 것이 오직 보리네.

謬以衆惡質	어찌다 잘못하여 여러 나쁜 자질임에도
承乏參民食	궁핍함을 틈타 백성들의 식량에 참여하였는고?
……중략……	
賦形穀物類	형태를 받은 것은 곡물이 무리이나
無良胡此極	좋지 않기가 어찌 이렇게 심할꼬?
作詩枚厥罪	시를 지어 그 죄를 세고
筆誅凜殛竄	글로 꾸짖어 냉정하게 귀양을 보내네.

「罪麥」¹⁶⁹⁾

「죄맥」의 서두(1~4행)와 결미(81~84행)이다. 서두에서 작자는 보리를 밭살스럽고, 가치가 없으나 빈핍함을 틈타 인민의 주식으로 끼어든 약삭빠른 존재로 묘사하면서 결미에서 결국 유배형을 내린다. 이러한 전개에서 양반으로서 본업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는 처지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죄맥」 이후 창작한 「맥대」에서는 이러한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作詩數麥惡	시를 지어 보리의 나쁜 점을 세니
厥罪所以彰	그 죄가 이로 말미암아 드러났네.
麥猶不知愧	보리가 오히려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晏然當夕嘗	태연히 저녁 끼니로 올라 있네.
反思心自訝	돌이켜 생각하니 마음에 스스로 의아하여
臆對伸厥謗	억측으로 대답하여 그 비방을 풀어 보네.

「麥對」의 1~6행¹⁷⁰⁾

君無恥惡食	그대는 구진 밥을 부끄러워 말고
爲善彌自覆	신을 행하기를 더욱 힘쓰라.
旣爲學聖徒	이미 성현을 배운 무리가 되어
自處胡不量	스스로 처하기를 어찌 헤아리지 못하는고?

「麥對」의 129~132행¹⁷¹⁾

169) 『存齋全書』 上, 卷之一, 詩. 6~7면.

170) 위의 책, 같은 곳. 7~8면.

분명히 양반의 신분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당대의 성리학적 신분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를 지어 보리의 죄를 낱알이 고향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은 지속될 뿐이며, 오히려 마음속에 성리학적 신분 질서의 강요로 인한 자괴감의 정체에 대한 의아함이 생기는 것이었다. 결국 「백대」에서는 ‘구진 밥을 부끄러워 말고, 선을 행하기를 더욱 힘쓰라’에서 성리학적 모순을 극복하고, 원시 유학에 대한 회고적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죄백」과 「백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보리연작은 당대 사인들의 위기의식과 이의 극복과정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위백규가 노년에 토로한 회한은 단순히 양반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의 결과로 치부하여 버리기에는 그의 삶이 너무나 진솔하다. 그의 깊은 한숨은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임과 동시에 힘들게 살아가는 민초들에 대한 동병상련이자 연민이며, 이들을 바라보는 지식인으로서의 심리적 책임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위백규의 시문학에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동시에 농촌 현실에 대한 직접 체험으로 진실성을 획득한 愛民의 정신이 서려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양반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에 빠져있었던 사인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18세기 士人으로서의 위기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위백규의 문학세계를 살펴보았다. 위백규는 18세기라는 다변화된 세계를 몸소 체현해 주고 있으며 특히 양반으로서의 의식과 사상 중심으로 해석되는 기존의 변화상과는 달리 농촌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가난과 싸우며 이에서 우러나오는 세계상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위백규 문학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71) 위의 책, 같은 곳. 7~8면.

VI. 문학사적 의의

1. 소재의 다양화

위백규가 살다간 18세기는 수많은 작가들이 각자의 개성과 목소리를 분출시켰던 시기이다. 百家爭鳴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무렵에 즉하여, 본고는 위백규가 그러한 문학적 지형에 존재했던 한 작가라는 관점에 서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본고는 18세기 문단의 변화에 유의하며 그의 삶과 시문학을 검토하였던 바, 문학사적인 의의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8세기 문단의 동향과 관련하여 위백규라는 작가의 등장이 당대 문단의 저변화와 개성화를 재확인시켜 준다는 데서 첫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시인은 대체로 士이면서 大夫일 수 있었으니, 시인과 관료의 미분리 상태에서 시가 제작되었고, 그들이 남긴 시편도 板本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18세기 이르러 일부 집단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아가는 동안에 기타의 문사들은 정치적 소외를 맛보았고 이의 결과로 시인과 관료가 분리되는 사례가 급증하여 판본 대신 필사본으로 존재하는 문집이 많아졌다. 이는 18세기 시단의 저변에서 일어난 주요한 변화 중의 하나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위백규는 그 자신이 시대의 변화를 실증해주는 분명한 사례였으며, 더 나아가 農·工·商業의 다른 어느 곳으로 귀속될 수 없었던 당대의 많은 향반들과는 달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직접 호미와 쟁기를 췌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질적이다. 농민들의 고통스런 삶과 자신의 생활고로 인해 위백규는 향촌의 현실을 직시하며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니게 되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여전히 문학을 삶의 근간으로 받아들이며 시작활동을 꾸준히 지속하였고, 자신의 삶과 정서를 담아내었다.

한편 작가의 위상이 하락하고 시가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백규는 평생토록 시를 버리지 않았다.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경제적 부가 바탕이 되어 詩作에 주력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며, 집안이 영예가 있어 이를 계승한 것도 아니었다. 나아가 문학에 대한 기대 심리, 즉 시가 사대부의 교양물이자 대부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시작에 전념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노년에 지은 다음의 작품들에는 그의 詩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 있다.

知君居婁任委遲 問術還羞訪子皮 世人誰識金緘口 筆法漫稱玉作肌 詩文獨娛元因性 非是都忘自得師 悵悵離筵無限意 海雲深處獨歸時	그대가 가난한 데 거하며 마음대로 노닐을 알고 방법을 물으러 도리어 子皮를 찾는 것이 부끄럽네. 세상사람 중 누가 금인의 입을 봉함을 알꼬? 필법으로 부질없이 옥 같은 피부를 그리며 칭하도다. 시문으로 홀로 즐긴 것은 원래 성품으로 인한 것이며 시비를 모두 잊고 스스로 스승을 얻었네. 쓸쓸한 이별 자리의 한없는 뜻은 바다 구름 깊은 곳에 홀로 돌아갈 때이라네.
--	---

「贈河上舍韻」의 奉紱¹⁷²⁾

男兒身世苦栖遲 百里曾謠五穀皮 早識聖學全性命 肯求溫飽養膚肌 多年悔念殆成病 古譜清彈未得師 弊箒千金猶自惜 柳塘微雨獨吟時	남아의 신세가 안타깝게 허덕여 백리해가 일찍이 오고피를 노래 불렀네. 일찍 성인의 학문을 알아 성명을 온전히 했으니 즐거 따듯함과 배부름을 구하고 피부를 가꾸랴? 다년간 후회스러운 생각이 거의 병이 되었고 옛 악보 맑은 연주는 스승을 얻지 못했네. 떨어진 빗자루도 천금같아 오히려 스스로 아껴 버드나무 연못에 가랑비 내릴 때 홀로 시를 읊네.
--	--

「贈河上舍韻」의 自道¹⁷³⁾

그에게 시는 출사를 위한 방편도 아니었으며, 양반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교양물도 아니었다. 첫 번째 시에서 위백규는 ‘시문을 홀로 즐기는 것은 원래의 성품

172) 『存齋全書』上, 卷之一, 詩, 27면.

173) 위의 책, 같은 곳, 27면.

에 따르는 것이며'라고 하여 시를 짓는 것이 어떠한 작위적인 태도의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자신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노래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 있듯이 시는 위백규에게 있어 위로이다. 두 번째 시에서 백리해는 천하를 경영할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초기에 불우하게 지내다가 훗날 秦나라 上卿이 되어 중국 천하를 통일하게 한 기초를 닦았다. 위백규 자신도 일찍이 성인의 학문을 알아 성명을 온전히 했으나, 이를 펼치지 못한 다년간의 후회에 대한 체념이 묻어난다. 이렇게 시는 그에게 후회스러운 삶에 대해 스스로에게 던지는 위로가 된다.

다음의 두 작품 역시 위백규 인생의 말년에 한평생을 돌아보는 회한과 회포의 심정으로 쓴 시이다. 이 작품에서도 그는 한평생 시와 함께 해 왔음을 노래하고 있다.

自歎存誠無素功
尋常難使此心空
三代過去人生晚
一元催消物態窮
登高放歌天地寬
對酒開懷古今通
禮樂詩書多少事
蕭然江海白頭翁

스스로 성심을 보존한 본디 공부가 없음을 탄식하여
언제나 이 마음을 비우기가 어려웠네.
삼대가 다 지난 후 사람을 태어남이 늦었으니
일원이 재촉하여 없어지니 물태가 궁하네.
높은 데 올라 노래 부르니 천지가 넓게 여겨지고
술을 대하여 회포를 푸니 고금이 통하네.
예절과 음악, 시와 서의 허다한 일에
깨끗한 강해의 백두옹이 되었네.

「贈河上舍韻」의 遣懷¹⁷⁴⁾

索處無人問所思
眼昏言澁漸成癡
雲虛木末秋光外
月滿梅窓夢覺時
神或可欺心已謬
人如容議已先知
冬裘夏葛因天分
五十年來但詠詩

쓸쓸히 살다보니 생각한 바를 묻는 사람이 없어
눈 어두워지고 말 걸끄러워져 점점 어리석어지네.
나무 끝 가을 풍경 밖에는 구름이 비었고
매화 문창에 꿈을 깬 때 달빛은 가득했네.
신을 혹 속일 만하면 마음이 이미 틀렸고
타인이 만약 논의할 만하면 내가 먼저 아네.
겨울에 갖옷 여름에 갈포 옷은 자연의 이치로 인함이며
오십 년 이래 다만 시만 읊었네.

174) 위의 책, 같은 곳, 27면.

위의 두 편의 시에서 위백규는 나이가 들어 생각도 어두워지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을 묻지 않는데 오직 한평생 시와 함께 해온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있다. 공부가 부족하여 마음 비우기가 어렵다고 탄식하면서도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때로는 술과 음악과 시로써 자신을 달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그의 넉넉함이 묻어 나온다. 이러한 자기 고백은 타인과의 시적 교류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한시를 자기 증명의 양식으로 전환시켰던 작가였음을 보여준다. 그는 시공을 초월한 위대한 작품을 제작하여 만인의 고품을 받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원하려는 소박하고 원론적인 지점으로 돌아가 시의 제작에 임했다.

한편, 당대의 시대적 상황이 그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음은 직·간접적으로 그의 시문학에 영향을 미쳤다. 40세 이후 윤봉구 선생이 타계한 이후 출사를 단념하고, 궁경독서하게 된 일련의 대응은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 하에서 일어난 것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작가가 개성에 근거하여 창작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유로운 詩作 형태는 비단 위백규뿐만 아니라 당대의 동향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科業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도 문예에 정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작가 개인의 의지·취향·처지에 따라 각양각색의 시세계를 구축하여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 그러한 징표들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는 전반적으로 작가의 개성을 시학의 요건으로 간주하며 국외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였던 때라고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관인작가들이 여전히 국가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반면, 애초에 벼슬자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일군의 작가들은 보다 용이하고 유연하게 새로운 시대 조류를 자신의 문학세계로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백규의 경우도 자신의 자유롭고 개성적인 시 쓰기를 합리화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백규가 당대의 작가층의 저변화와 문학의 개성화를 예증해 주는 실례라 할 수 있을지라도 그의 등장은 별도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그는

175) 위의 책, 같은 곳, 27~28면.

양반이었지만, 평민과 같은 생활체험을 했을 뿐 아니라 주변과의 교유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詩作을 통해 이러한 현장감 넘치는 생활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시켰다. 이러한 모습은 위백규 자신이 점차 시의 내적·외적인 변화와 확대를 이루어냄으로써 구현해 내었다.

우선 위백규는 고급문학으로 전래되어 오던 근체시에 대한 섭렵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질적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 또한 궁경독서기의 경험으로 보리를 소재로 한 일련의 작품들과 속수미음 등의 잡영연작의 제작을 통해 시의 외연을 확대해 나갔다. 즉, 그의 시작 소재는 실생활의 만물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잡영연작의 제작은 이러한 그의 세계관의 확대를 표현하고, 자신의 심경을 자유롭게 토로하기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궁경독서기 이후 위백규의 시세계는 근체시의 제작에서 벗어나 시적 형식과 내질을 확대 생산하게 된다. 즉, 시적 형식의 변질과 확대는 현실적 삶을 가감 없이 보여주도록 하였으며 이는 현장성과 구체성의 문제의식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도록 해준다. 또한 위백규는 노년에 국문가사인 「자회가」를 제작함으로써 문학형태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

이와 같이 국문시거나 생활시로서의 리얼리즘적 한시들이 다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띠고 있으며, 향촌사족층 문학의 다층적인 면모를 입체상을 띠고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전범의 탈피와 個我的 자각

전범으로부터 탈피하여 個我的 의의가 확대되는 부분은 위백규의 시문학의 중차대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기성의 관례로부터 벗어나 작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야말로 그의 시문학이 보여준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에 이 절에서는 그간의 내용을 재정리하며 그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제3장의 시관과 작시론에서 살폈듯이, 그는 기본적으로 제도론적 문학관

의 토대 위에서 시란 당대의 성정과 풍속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마음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쓰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이는 당대 문인들이 그러하였듯이 재도론적 문학관과 자득적 문학관이 한 개인 안에 혼재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일상생활을 소재의 주요 원천으로 삼되 詩的인 것과 非詩的인 것의 구별을 문제 삼지 않으려 하였고, 시어의 취사선택에서도 당대의 일상언어(俚語)를 배제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는 작가의 역할로 보건대, 독자에게 고귀한 무엇을 비밀스럽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주제를 솔직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전달자의 역할 쪽에 비중을 두었음을 뜻한다. 또한 기성의 한시가 일반적으로 고아한 품격을 추구하며 시적인 소재와 언어를 구분하여 썼던데 비해, 그는 소재와 시어의 자질을 부차화하며 자신의 체험과 그를 둘러싼 시대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시의 목표와 역할을 재조정했다고 할 만하다.

시관과 작시론에서 제기된 변화는 실제로 자신의 시문학에도 그대로 관철되어 가는 추세였다. 제4장에서 살폈듯이 그는 점차 자신의 처지와 욕구에 적합한 방향으로 시의 내질과 형식을 취사선택해 나간다. 근체시의 경우에도 어떤 전범에도 고스란히 귀속되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한 奇異한 공격을 추구해 나가고 있었으니, 일상사의 세부적 국면과 시대의 현실을 주로 포착하고 묘사하면서 그의 시는 관념의 영역에서 경험의 영역으로, 전체의 관점에서 개인의 시각으로 질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전범으로부터의 이탈을 보다 뚜렷하게 보여주었던 것은 시형식의 실험과 실천 과정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자유로운 작법과 발상에 기초하여 소재의 영역을 확장하고 수사적 장치가 주는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잡영연작에서 발생한 변화는 더욱 컸다. 이 시 형식은 정서적 순화의 함축을 요구하는 이전의 한시와 달리, 작가의 발상과 견문을 솔직하게 표현하기에 적합했다. 그 안에서 소재와 작법도 뒤따랐다. 소재의 자질을 문제 삼지 않고 일상사와 사적 체험, 인정과 물태, 정치와 경제, 사회와 풍속 등 작고 가까운 것으로부터 크고 먼 것까지를 과감히 끌어당길 수 있었으며, 산문과 운문의 경계를 오가며 시의 산문화

경향을 질게 보여주었던 것이 그러하다.

잡영연작은 한편으로 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음을 표지해 주는 사례였다. 이는 시가 전통적인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작가 스스로 인식했음을 나타내 준다. 이로써 시란 독자가 엿보아야 하는 비밀스러운 무엇이 아니라 독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쉬운 정담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위백규의 시문학은 다양한 층위에서 전범을 이탈한 현상이었으며, 이는 중세 한시의 해체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위백규 자신의 시각에서 접근할 때,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해체와 과격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작가의 의도를 따라가건대, 여기에는 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관념이 전환되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즉, 그는 ‘어떻게 써야 빼어난 작품인가’라는 문제보다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안으로 작가 자신의 생활을 비롯한 당대인의 삶을 허위와 투식 없이 쉽고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소재의 확장, 일상 언어의 도입, 시와 산문의 넘나들 등 기성의 전범을 이탈했던 일련의 현상은 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부터 파생된 예들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백규는 자신의 체험과 견식을 중심에 두고 자신의 일상적 삶, 기후와 사건, 생활환경, 인정과 세태, 정치사회적 문제를 두루 시화할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문학형태의 확장을 통하여 소재의 무제한적 확장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시의 구심점에 작가가 존재하는 중층적 구도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학 활동의 특징은 전체에 개인이 귀속되는 단점을 차단하고, 個我로서 누리는 삶의 방식과 일상생활을 감싸 안으려는 의지의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일상생활의 재발견과 조선시의 실천

조선후기 한시사에서 오랫동안 학계의 주목을 받아온 개념은 朝鮮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조선시의 구현문제보다 위백규 시문학의 자기 발전적 과정

에 주목하였으나, 그의 시문학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탐색이 결과적으로는 18세기 한국한시의 한 가지 진로를 보여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이 절에서는 본고에서 수행한 내용 가운데 특별히 조선시 문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그가 조선시를 실천한 또 하나의 작가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조선시가 무엇이며, 어떤 것을 일컬어 조선시로 지칭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일찍이 이동환은 ‘조선의 풍토, 역사, 현실의 삶을 문학의 확실한 기초로 삼아 조선적인 사고와 감각에 충실하도록 표현함으로써 한시문학의 자국적 진실과 개성을 드러낸 시’라고 정의하고, ‘시인 개인의 일상을 다룬 작품, 詠史樂府와 죽지사 등 자국의 역사·풍속·민속에서 소재를 취한 작품, 우리시가의 漢譯詩, 민요취향의 한시, 金笠詩系의 戲作詩’ 등을 제시한 적이 있다.¹⁷⁶⁾ 이와 유사한 논의로 이규호는 ‘소재와 의경이 조선적인’ 시를,¹⁷⁷⁾ 오수경은 ‘조선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생활감정을 담은 시’를 조선시로 지칭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⁷⁸⁾

조선시에 대한 제가의 견해를 나열한 이유는 이로부터 조선시를 규정할 수 있는 공통점을 추출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조선 사람의 생활 감정과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조선시라는 주장이다. 이는 삼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려니와, 이를 조선시로 간주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본다.

조선 사람의 생활감정과 삶의 모습을 표현한 시를 조선시라고 하였을 때, 위백규의 시문학에서 이와 상응하는 요소를 찾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 가령 보리연작 등의 그의 생활시에는 18세기 장흥 방촌에 펼쳐진 당대인의 삶은 물론이요, 작가 자신의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재현해주고 있으며, 나아가 시어의 사용에서도 俚語, 고유명사, 어순 등에 걸쳐 한국어의 자질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당대인으로서 자신과 당대인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을 시작의 소임으로 삼았던 데서 보이듯, 위백규의 詩觀 자체가 조선시의 정신과 상통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조선시의 구체적 실천으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면은 작가의 생

176) 이동환, 「朝鮮後期 漢詩에 있어서 民謠趣向의 擡頭」, 『한국한문학연구』 3·4집, 1979.

177) 李圭虎, 「朝鮮詩의 形成과 展開」, 『한국고전시학론』, 새문사, 1985.

178) 吳壽京, 「雅亭 李德懋의 詩論과 朝鮮風의 성격」, 『韓國漢文學研究』 9·10집, 1995.

활현장에서 제작한 생활시이다.

그는 자신의 생활 체험을 시세계의 주요한 영역으로 삼았다. 애초에 그는 당대인의 삶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詩作의 소임을 삼았으므로, 현실을 초탈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善惡과 美醜의 관념에 따라 실재하는 현실의 세부를 은폐하거나 배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기에 비록 범속하고 하찮은 것이나 초라한 凡夫의 삶, 衣食住의 일상적 욕구, 그다지 의미심장할 것도 없는 자신의 일상까지를 그대로 詩化할 수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을 묘사하면서 장흥 방촌에서 살다간 한 조선인의 생활감각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주변인물과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을 포착하면서 생활환경으로서의 현실적 배경과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적 인간들을 시의 전면에 부각시킬 수 있었다.

위백규가 조선인으로서 조선적인 시를 지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은 없다. 그가 中華와 차별되는 민족적 각성을 보여준 것도 아니니, 그에게 설불리 민족적 자아라는 커다란 개념을 부여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는 조선 땅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그 시대 그곳에서 겪고 보고 느꼈던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 시인이었다. 더욱이 그가 흙에서 함께 한 삶은 다른 양반들과는 다르게 조선 서민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었다. 그의 생활시의 제작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의 시에는 지리적, 시간적, 언어적, 정서적 조건에서 조선인에 의한 조선시를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다.

VII.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18세기 시단의 저변에서 일었던 변화에 기초하여 존재 위백규의 시문학을 고찰하였다. 위백규가 문학사에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며 그의 문집 『존재집』과 『존재전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드물었으나, 본고는 작가와 작품의 발굴을 병행하여 그의 시문학이 지닌 가치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그는 매우 이색적인 경력을 지닌 작가임을 알 수 있었다. 다른 士인들이 교유관계를 유지하며 시문학의 경지나 학문적 경지를 유지하였던 것과는 달리, 위백규는 특별한 교유관계도 없었으면서 방대한 저술활동을 한 점이나, 農·工·商 어디에도 귀속되지 못하면서 방황하였던 당대의 사인들과는 다르게 궁경독서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뛰어난 작법의 생활시와 한시로 표현해 낸 점 등은 이제껏 우리가 경험한 어느 실학자들보다 이색적이다. 『존재집』과 『존재전서』에 수록된 시편도 18세기 문단의 특징적 흐름과 성취도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만큼 값진 것이었다.

그의 시문학이 보여준 매력은 지속적인 실험정신과 자기모색 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단지 기이하고 이색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그의 시편이 品格에 치중되었던 이전의 시문학과 매우 다르며, 자신의 사적 체험을 추상적 여과 없이 드러내고 생활 현장의 범속한 세계를 무단히 제시하고자 하는 성향이 또한 남달랐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이유를 질문하는 동안, 그러한 특징이 시인의 존재 조건과 시의 위상 변화에서 비롯되었음을 탐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가 기존의 시세계를 회의하며 새로운 생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기존 한시의 정의와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잘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문학의 새로운 정의와 실천에 도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고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측면에 착안하여, 그의 문학적 실천 과정이 한국 한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가정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바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다만 문학사적 의의를

논한 앞 절에서 대략적이거나 그 내용을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겸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를 마무리 하려고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위백규가 왜 18세기 시단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지를 문제제기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어 논의의 전개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위백규의 시문학이 특수하게 누릴 수 있는 가치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따랐다. 연구 자료와 관련해서는 『존재집』과 『존재전서』가 타인의 정선을 거치지 않는 원자료임을 밝히고, 그의 문학을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들었다.

제2장에서는 시문학이 형성되는 배경으로, 과거응시의 향방과 좌절, 위백규의 소외와 자의식, 시문으로의 몰두 과정을 추적하여 그가 18세기에 새롭게 배태된 전형적 인물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것은 새로운 작가층의 대두를 시사하였으며, 그때까지 유효했던 문학에 대한 일반적 동의를 수정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었다. 제2절에서는 교유인물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그에 관한 주변 정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백규는 스승인 윤봉구에게 영향을 받았으나, 윤봉구가 죽은 이후에는 이렇다 할 교유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점은 위백규의 지리적 위치와 경제적 환경, 성격상의 특징 등의 이유에서였으나 이러한 특징이 오히려 위백규의 문학세계에 특이성을 부여하였다.

제3장에서는 문학관을 검토하였다. 그의 문학관은 철저한 載道論的 입장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사대부 일반의 道文觀의 전통 위에 山林的 전통의 문학적 관습이 작용하여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송시열, 권상하, 윤봉구로 이어지는 전통 학맥의 계승자임을 자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詞章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용에서 송시열을 거쳐 그에게까지 맥을 이어온 高踏的인 道學主義 시문관이 비판적 현실인식과 접합되어 새롭게 변용된 모습을 보였다.

제4장은 위백규 시문학의 외적·질적인 변화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근체시 내부의 변화를 별도의 절로 설정한 까닭은 그 안에서 발생한 질적 변화가 위백규 시문학의 중심에서부터 그 바깥으로 파급되어 갔음을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

이다. 이어 잡영연작을 활용하여 외연을 확대하였으며, 노년에는 가사를 제작하였다. 이들의 발전적인 진행은 후기로 갈수록 위백규 시문학이 정점에 도달함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들이 흔히 청·장년기에 秀作을 제작하곤 했던 것에 비하면, 위백규의 경우는 장년을 넘어 노년에 이룰수록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그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시관과 표현 욕구에 걸맞은 시 형식을 획득하여 나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제5장은 시문학의 공간적 특징과 그리고 위백규 문학에 드러난 주제 의식을 살펴보았다. 위백규의 시편에 담긴 주제들을 이 두 가지 분류에 담아낼 수는 없지만, 18세기 문단의 특징적 성격과 관련하여 그의 시세계를 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과 주제라고 판단하였다. 문학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에서는 위백규가 평생에 걸쳐 기거하였던 장흥 방촌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천관산을 다루었다. 이 두개의 공간은 위백규에 있어서 생활공간과 이상적 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공간에서 위백규는 자신의 일상과 생활체험, 주변의 생활환경과 범속한 인간 등을 시의 전면에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재도론적인 입장을 지닌 성리학자로서의 이상과 고품을 담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주제 의식은 위백규의 내면에 저류로 자리 잡은 것이자 세계의 위협에 노출된 당시의 사인작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상흔을 다름과 함께, 당대의 사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위백규의 특수한 처지를 다루었다.

제6장은 본고의 논의를 재정리하며, 그의 시문학이 한국 한시사에서 지닐 수 있는 의의를 소재의 다양화, 전범의 탈피와 個我的 자각, 일상생활의 재발견과 조선시의 실천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는 위백규라는 작가의 등장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가 실천한 시세계가 어떠한 특징을 내포했는지, 나아가 그것이 한국 한시의 진로에서 어떤 의의를 지닐 수 있는지를 차례로 검토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본고를 통해, 위백규가 차후 18세기 시단의 문제적 인물이자 독자적 시세계를 개척한 시인으로 재평가되기를 기대한다. 그의 시문학은 주목을 받을 만한 요소가 다분하며, 18세기 문단의 저변을 탐색하는 데 자장의 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위백규의 시문학에 대한 탐색이 본고에서 논의한 것

보다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위백규와 같은 재야의 작가를 계속해서 발굴해야 하
리라고 본다. 이 작업은 아마도 한국한시의 저류를 탐색하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 魏伯珪, 『존재집』 22권 11책(규장각).
_____, 『존재전서』 25권 상하 2질(경인문화사 영인본)
위문덕, 『영이재집』 천, 지, 인 7권 3책.
_____, 『장흥위씨대동보』, 개인소장.
魏世寶, 『삼죽당유고』 2권 1책.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3, 자료편, 216~219면, 노인가.
김부식, 『고려사』, 규장각 소장본.
南公轍, 『金陵集』, 규장각 소장본.
박지원, 『燕巖集』, 서울 : 경인문화사, 1979.
朴宗采, 『過庭錄』, 규장각 소장본.
徐命膺, 『保晚齋集』, 규장각 소장본.
安鼎福, 『順菴集』, 영인본, 한국문집편찬위원회.
이의철, 『朱子語類』, 민족문화문고, 2001.
전검익, 『初學集』, 上海 : 商務印書館 영인본, 1929.
_____, 『有學集』, 규장각 소장본.
정약용, 『與猶堂全書』, 경인문화사 영인본, 1981.
黃胤錫, 『頤齋遺稿』, 규장각 소장본.
소 옹, 『이천격양집』(사부종간첩부), 상해 : 商務印書館 영인본, 1929.
朱 子, 『論語集註』.

단행본

- 고동환, 『서울 상업사』, 태학사, 2000.
- 금동현, 『조선후기 문학기론 연구』, 보고사, 2002.
- 김문식, 『朝鮮後期 經學思想 研究』, 一潮閣, 1996.
- 김석중 · 안황권, 『존재 위백규의 사상과 철학』, 삼보아트, 2001.
- 金碩會,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5.
- 김성기, 『한국 고전 시가 논고』, 도서출판 역락, 2004.
- 金 泳,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집문당, 1993.
- 朴熙秉, 『朝鮮後期 傳의 小說의 性向 研究』, 대동문화연구원, 1993.
- 정약용, 『茶山詩選』, 송재소 譯註, 창작과 비평사, 1981.
- 尹絲淳, 『韓國儒學論究』, 玄巖社, 1980.
- 이정선, 『조선후기 조선풍 한시 연구』, 한양대출판부, 2002.
- 李銀順, 『朝鮮後期黨爭史研究』, 一潮閣, 1988.
- 李熙煥, 『朝鮮後期黨爭研究』, 國學資科院, 1995.
- 長興魏氏大宗會, 『장흥위씨종보』, 1995.
- 정대림, 『한국고전비평사』-조선후기편, 태학사, 2001.
- 정양완, 『朝鮮後期漢文學作家論』, 집문당, 1994.
- 車長變, 『朝鮮後期閥閥研究』, 一潮閣, 1997.
- 한국학연구소,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문화의식』, 한양대출판부, 2001.
- 한우근,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1974.

주요논문

- 고동환, 「18·19세기 서울 京江지방의 商業發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 金明淳, 「朝鮮後期 紀俗詩 研究」,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6.
- 김명호, 「실학파의 문학과 근대 리얼리즘」, 『박지원 문학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김석희, 「존재 위백규의 생활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_____, 「위백규 문학의 평전적 검토 시론」, 『고전문학과 교육』 제6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

羅鍾冕, 「18세기 詩書畫論의 美學的 性格에 대하여」, 『韓國漢詩研究』 8호, 2000.

박무영, 「일상성의 대두와 새로운 조명」, 『우리 한문학사의 새로운 조명』, 집문당, 1999.

宋載昭, 「茶山の 朝鮮詩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研究』 2호, 한국한문학회, 1977.

송재소, 「다산 정약용의 문학론」,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4.

안대회, 「명말청초 문학의 수용」,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안동교, 「存齋 魏伯珪의 思想-그의 性理說을 중심으로」, 장흥문화원 제15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움 자료, 2003.

유봉학, 「18·19세기 京鄕學界의 分岐와 京華士族」, 『國史館論叢』 22, 국사편찬위원회, 1991.

李東歡, 「朝鮮後期 漢詩에 있어서 民謠趣向의 擡頭」, 『韓國漢文學研究』 3·4합집, 1978.

_____, 「조선후기 문학사상과 문체의 변이」,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이우성, 「實學派와 文學」, 『국어국문학』 16호, 국어국문학회, 1957.

_____,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 『鄉土 서울』 17, 1963.

_____, 「실학연구서설」, 『실학연구입문』, 역사학회편, 일조각, 1973.

이종범, 「存齋 魏伯珪의 家統과 鄕村活動-傍村 魏氏家の 家乘과 鄕村活動 : 魏伯珪의 學問과 政論 형성의 배경」, 장흥문화원 제15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움 자료, 2003.

林煥澤, 「閭巷文學과 庶民文學」, 『韓國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1.

張源哲, 「朝鮮後期 文學思想의 展開와 天機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진재교, 「口演傳統과 李朝後期 敍事樣式의 變貌」, 『야담문학연구의 現단계』2, 보고서, 2001.

沈慶昊, 「海東樂府體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1.

崔信浩, 「韓國學詩論에 있어서 天機에 대한 고찰」(1·2), 『韓國漢詩研究』 2·3호, 韓國漢詩學會, 1994·1995.

ABSTRACT

A Study on the Ideas and Literature of Jonjae, Wi Baek-gyu

Wee Hong-hwan

Advisor : Prof. Kwon Soon-yoel, Ph. 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the poetic literature of Jonjae, Wee Baek-gyu, based on changes at the bottom of the poetic arena in the 18th century.

Wee Baek-gyu was a writer who had a very unique career. Unlike other literary men who composed verses and studied while keeping a large circle of companies, he wrote so many books, read many books while farming for himself, and expressed the common people's feelings in poetry about living and Chinese poetry by his great poetic way, based on his practical experiences. These points are more remarkable than any other realists whom we've examined.

Pomes in *Jonjaejib* and *Jonjaejeonseo* is worth discussing the distinctive current and achievement of the literary world in the 18th century. His poetic attraction is found in the continuous experimentalism and in the process of self-exploration.

The arguments in this dissert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introduction, I raise a question why Wee Baek-gyu attracted attention in the poetic arena of the 18th century. And then, by showing an argument course, I reveal that I intend to highlight the specific value which

the poetic literature of Wee has.

In the second chapter as the background where his poetic literature is formed, I consider him as a new model who came into being in 18th century through investigating his direction after he took the state examination and his frustration, his estrangement and self-consciousness, and the process of his absorption in poetry.

In the third chapter, I examine his poetic viewpoint and his prosody. I point out that his literary point of view began from the thorough position of Jaedo doctrine.

In the fourth chapter, I consider how his poetic literature changed in both externals and quality. As he became older, he accomplished the versification which was suitable for his poetic viewpoint and his desire for expression. When I consider some developing changes in his poetic literature, I find out that Wee's poetry reached the peak in the latter part of his life.

In the fifth chapter, I study his sense of crisi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exposed in his literature.

I review the arguments of this dissertation in the sixth chapter. I classify the significance which his poetic literature can have in the Korean poetic history into these followings: diversification of writing groups and the appearance of new image as a writer, renewal from a model and self-awareness, rediscovering everyday life and practicing Chosun poetry.

Finally, I expect to reevaluate Wee Baek-gyu as the man in question at the poetic arena of the 18th century and as the poet who opened up a original world of poetry through this dissertation.